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容 載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論語』에서의 成語 추출과
온·오프라인 교수학습법 연구

2023

誠信女子大學交 大學院

漢文學科

朴 智 秀

『論語』에서의 成語 추출과
온·오프라인 교수학습법 연구

金 容 載 教授 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3年 5月

誠信女子大學交 大學院


漢文學科


朴 智 秀


認 准 書

朴智秀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23年 5月

審査委員長 신 영 주 

審査委員 張 貞 煥 

審査委員 金 容 載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文概要

본 연구는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여 주제별로 분류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공간에 따른 교수학습법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논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논어』의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성어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논어』는 인간관계와 인성교육의 寶庫이다. 『논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내용을 탐색할 수 있다. 『논어』는 경문으로 배우는 것이 마땅하나, 처음 『논어』를 접하는 사람들은 경문으로 학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성어로 『논어』를 교육함으로써 『논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논어』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를 활용한 교육은 중·고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에게도 유의미하므로 두 집단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다만, 교육공간과 교수매체 활용 등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이 있는 경우 교수학습법을 각각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논어』 「學而」편부터 「堯曰」편까지의 경문에서 성어를 추출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1절에서는 成語의 정의를 분석하고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문과 교육과정과 사전을 통해 성어는 ‘대체로 옛사람들이 만들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어를 어휘의 내용 요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성어교육은 학습자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절에서는 중·고교 한문 교과서 속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의 수록 현황을 살펴보고, 「학이」편부터 「요왈」편까지의 경

문에서 성어를 추출하였다. 단순히 글자를 축약한 것보다는 유의미한 내용을 품고 있는 성어를 정리하였다. 5자를 초과하는 것은 함축적인 뜻을 품고 있는 성어라고 하기보다는 문장에 가까워서 5자 이하의 성어만을 추출하였다. 제1편부터 제20편까지 총 201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3절에서는 추출한 성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성어의 학습요소를 작성하였다.

III장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敎學과 孝悌 관련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1절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교육에서 시행되는 성어교육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Problem-Based Learning을 적용한 敎學 관련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3절에서는 易地思之를 가능하게 하고, 비판적·논리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孝悌 관련 성어의 역할 놀이와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IV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에서 修養과 言行 관련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1절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대두된 배경과 개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修養 관련 성어를 One-Day Class를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공간에서의 한문교육으로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言行 관련 성어를 AI 기술 중 하나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으로 개발하였다.

V장에서는 友情·인간관계와 政治 관련 성어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에서의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1절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온라인 교육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수학습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절에서는 友情·인간관계 관련 성어를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학습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으로 개발하였다. 3절에서는 Flipp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政治 관련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논어』에 관한 서적은 매우 많다. 이는 『논어』가 현대에서도 유효한 의미를 지니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논어』의 의미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되새겨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어』가 옛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여 교수학습법을 개발함으로써 『논어』의 접근성과 교육적 활용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目次

□ 論文概要

I. 序論	1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6
3. 선행연구 검토	10
II. 『論語』經文에서의 成語 추출	15
1. ‘成語’의 정의와 교육적 효과	15
2. 『論語』經文에서의 성어 추출	20
3. 추출된 성어의 주제별 분류 및 학습요소	35
III.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敎學’·‘孝悌’와 관련한 성어 교수학습법 ...	49
1.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성어교육	49
2.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Problem-Based Learning〉 교수학습법	52
3. 易地思之를 위한 〈역할 놀이〉와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토의·토 론하기〉 교수학습법	62
IV. 온라인 교육에서의 ‘修養’·‘言行’과 관련한 성어 교수학습법 ...	73
1. 온라인 교육의 대두와 개발 필요성	73
2. 〈One-Day Class〉를 활용한 교육공간 개발	75
3. 〈메타버스〉를 활용한 AI 기술 교수법 개발	82

V.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에서의 ‘友情’·‘政治’와 관련된 한 성어 교수학습법	89
1.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	89
2. <스마트 기기> 를 활용한 능동적 참여 학습	91
3. <Flipped Learning> 기반의 미디어를 활용한 거꾸로 학습	102
VI. 結論	113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7
□ 부록	131

〈表〉 目次

〈표 01〉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17종) 內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 수록 현황	21
〈표 02〉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13종) 內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 수록 현황	21
〈표 03〉	「學而」 제1에서 성어 추출	23
〈표 04〉	「爲政」 제2에서 성어 추출	23
〈표 05〉	「八佾」 제3에서 성어 추출	24
〈표 06〉	「里仁」 제4에서 성어 추출	25
〈표 07〉	「公冶長」 제5에서 성어 추출	25
〈표 08〉	「雍也」 제6에서 성어 추출	26
〈표 09〉	「述而」 제7에서 성어 추출	26
〈표 10〉	「泰伯」 제8에서 성어 추출	27
〈표 11〉	「子罕」 제9에서 성어 추출	28
〈표 12〉	「先進」 제11에서 성어 추출	28
〈표 13〉	「顔淵」 제12에서 성어 추출	29
〈표 14〉	「子路」 제13에서 성어 추출	30
〈표 15〉	「憲問」 제14에서 성어 추출	30
〈표 16〉	「衛靈公」 제15에서 성어 추출	31
〈표 17〉	「季氏」 제16에서 성어 추출	32
〈표 18〉	「陽貨」 제17에서 성어 추출	33
〈표 19〉	「微子」 제18에서 성어 추출	33
〈표 20〉	「子張」 제19에서 성어 추출	34

〈표 21〉 「堯曰」 제20에서 성어 추출	35
〈표 22〉 ‘敎學’과 연관된 성어	35
〈표 23〉 ‘孝悌’와 연관된 성어	37
〈표 24〉 ‘言行’과 연관된 성어	37
〈표 25〉 ‘正義’와 연관된 성어	38
〈표 26〉 ‘겸손’과 연관된 성어	39
〈표 27〉 ‘修養’과 연관된 성어	39
〈표 28〉 ‘政治’와 연관된 성어	40
〈표 29〉 ‘友情·인간관계’와 연관된 성어	41
〈표 30〉 ‘禮’·‘智’와 연관된 성어	42
〈표 31〉 ‘孔子’와 연관된 성어	43
〈표 32〉 ‘富貴’·‘處世’와 연관된 성어	43
〈표 33〉 ‘中庸’과 연관된 성어	44
〈표 34〉 ‘君子·小人’과 연관된 성어	44
〈표 35〉 ‘仁’과 연관된 성어	45
〈표 36〉 ‘道’와 연관된 성어	45
〈표 37〉 ‘信義’와 연관된 성어	46
〈표 38〉 ‘其他’ 성어	46
〈표 39〉 고등학생 대상 PBL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敎學’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58
〈표 40〉 일반인 대상 PBL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敎學’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60
〈표 41〉 중·고등학생 대상 역할 놀이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孝悌’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69
〈표 42〉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孝悌’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70
<표 43>	One-Day Class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修養’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81
<표 44>	메타버스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言行’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	86
<표 45>	중·고등학생 대상 태블릿 PC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友情’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99
<표 46>	일반인 대상 태블릿 PC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인간관계’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100
<표 47>	햏미디어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政治’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108
<표 48>	쿨미디어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政治’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110

I. 序論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대사회에서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끊임 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삶 속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계로 매장을 운영하는 무인 매장이 늘어나기도 하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여 다양한 직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과 삶을 떨어트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도리어 그 안에서 인간다움을 찾기도 한다. 기계와 차별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기계로 대체 불가능한 직업 등을 탐색하곤 한다. 이것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냄새가 멀어져 가는 상황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인간의 냄새가 사라지고 있는 AI 시대에서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논어』의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고속 기술 과학 문명의 시대에서 느낌의 미학과 관계의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는 『논어』에 주목한 것이다.¹⁾

『논어』는 동양 最古의 고전으로 인성교육과 인간관계의 寶庫이다. 「學而」편부터 「堯曰」편까지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教學’, ‘孝悌’, ‘政治’, ‘處世’, ‘仁·義’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논어』는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읽히고 있다. 이는 『논어』가 단순히 고전으로서만 역할을 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논어』에는 옛 시대에서만 필요한 내용이 아닌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도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오랫동안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논어』에는 자신을 수양시키는 방법,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법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태도가 담겨 있다. 『논어』를 교육함으로써 『논어』를 통해

1) 김용재, 『論語入門』,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4, 10쪽 참조.

인간다움을 탐구하게 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논어』²⁾는 四書 중 하나이다. 四書 중에서도 왜 『논어』를 교육하고자 하는가? 먼저, 『孟子』는 이야기 형태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수는 있으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과 인물에 대한 배경지식이 요구된다. 경문을 학습하기 전에 필요한 과한 배경지식은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시간 내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량 조절이 필요한데, 『孟子』는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서 호흡 또한 길다는 단점이 있다. 호흡이 길면 한문에 대한 지식과 흥미가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大學』의 경우, 분량이 짧아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성어를 충분히 추출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修身齊家治國平天下’ 등은 성어보다는 문장에 가깝기 때문에 성어로 교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中庸』은 전반적으로 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문을 해석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까지 학습내용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습자의 한문에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반해 『논어』는 대화체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어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으로 삼았는데, 『논어』 자체가 그 당시 언어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어와 관련이 많다. 또한, 『논어』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철학적인 내용이나 배경지식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문과 성어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용이하다.

2) 『논어』에는 孔子의 어록이 담겨 있다. 『논어』의 편찬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자하를 비롯한 64명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편찬하였다. 둘째, 중궁과 자유 등이 撰定하였다. 셋째, 중자의 문인이었던 악정자춘과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무리가 편찬하였다. 넷째, 중자와 유자의 문인이 지었다. (김용재, 『『論語』編纂에 대한 異見과 諸註釋을 통해 본 孔子의 教育精神』, 『한문고전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334-335쪽 참조.)

현대사회에서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교과 역량 중 하나로 인성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³⁾ 인성 함양은 중·고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하다. 김용재 (2021)⁴⁾는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부모(어른) 세대들’부터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성교육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부터 동참해야 한다고 하였고, 평생교육의 노정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가정 내 어른과 학교 내 선생님 등 사회의 어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자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한다. 『논어』에 담겨 있는 인성 관련 내용을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인성 덕목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때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성찰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논어』를 학습할 때, 해당 내용이 현대사회에서도 시의적절한지를 생각하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논어』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현재는 일반적으로 경문을 통해 『논어』를 교육한다. 중·고교 한문 교과서에서도 『논어』는 경문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교 밖에서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는 한문교육도 경문을 위주로 『논어』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논어』는 경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논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문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처음 『논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경문을 통해 학습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대개 『논어』 경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과 그에 쓰인 한자를

3)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3쪽 참조.

4) 김용재, 「한문고전과 인성교육[1] -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4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413-417쪽 참조.

아는 것이 필요하다. 경문은 한문 문장인 만큼 한문의 문법과 언어 특성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양한 형태의 한문 문장을 읽어내기는 쉽지 않고, 그 본의까지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⁵⁾ 처음 한문과 『논어』를 접하는 사람이 긴 한문 문장인 경문을 배우는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전까지도 이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수업에서 경문을 다룰 때는 제한된 시간 상 짧은 경문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논어』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한다. 예를 들어, 孝의 실천 방법으로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政事를 묻는 말에는 매번 다른 답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논어』에서 주는 메시지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제약상 수업 시간에 한두 개의 경문만을 가르치게 되면 교수학습법에도 한계가 있어서 『논어』를 교육에 활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논어』는 대화체 경문으로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며, 질의와 답변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하다.⁶⁾ 이러한 점은 학습자가 『논어』를 학습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논어』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처럼 『논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경문으로 가르치는 것은 여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논어』가 학습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논어』를 보다 많은 사람이 폭넓게 배울 방법으로 성어를 활용한 『논어』 교육을 제시한다. 성어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

5) 한문은 관용적으로 굳어진 어휘와 典故를 수시로 활용하여, 짧은 글 속에서 이야기의 편폭을 확장하는 수법을 즐겨 사용한다. 상징어를 활용하여 語句를 간결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수법도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의 성분이나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신영주, 「중등학교 한문과 독해 수업의 단계별 구성에 관하여」, 『동방한문학』 제73호, 동방한문학회, 2017, 396쪽 참조.)

6) 김용재,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經文의 解釋學的 理解[6] —雍也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81집, 동양철학연구회, 2015, 10-11쪽 참조.

용되고 있다. 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맥락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뉴스·TV 프로그램 자막 등에서도 성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한다. 성어는 경문보다 길이가 짧으며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논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습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성어의 특징 중 하나는 함축적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논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효율적이다. 또한, 성어로 『논어』를 교육하게 되면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교수학습법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제고시킬 수 있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인성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한자와 어휘’, ‘문장’ 두 영역 내에서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⁷⁾ 교수·학습의 방향으로는 한문 영역의 학습이 유기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운용한다고도 하였다.⁸⁾ 중·고교 학교 현장에서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하면, 성어를 통해 어휘교육이 가능하며 문장 영역 내에서는 성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논어』의 경문을 교육할 수 있다.

또한,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는 이전과 달리 융합 선택 과목으로 ‘언어생활과 한자’가 새로 생겼을 정도로 어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어를 어휘의 내용 요소로 보고 있다. 어휘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성어교육은 본고의 목적인 『논어』에 보다 폭넓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인성 함양과 언어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성어는 어휘교육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

7) 전통문화 및 한자 문화권의 문화 등 한문과에서 다루어지는 문화 관련 내용과 인성 관련 내용의 경우는 별도의 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한자와 어휘’, ‘문장’ 두 영역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3쪽 참조.)

8)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28쪽 참조.

여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논어』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논어』를 경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어를 통해 『논어』의 메시지를 공부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의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論語』 영인본의 종류로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출간한 『논어』 영인본⁹⁾, 보경문화사에서 출간한 『논어 영인본』¹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四書栗谷諺解』 등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저본으로 사용한 영인본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출간한 『논어』 영인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논어』는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하다.¹¹⁾ 이에 『논어』의 주석서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같은 경문도 주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논어』의 대표 주석서로는 古注인 삼국시대 魏나라 何晏의 『論語集解』¹²⁾가 있다. 송나라 邢昺의 『論語正義』¹³⁾도 있고, 두 책이 합본되어 간행된 『論語

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論語』 영인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0.

10) 보경문화사 편집부, 『논어 영인본』, 보경문화사, 1989.

11) 『논어』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이유를 대략 3개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논어』는 대화체 구문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경문이 많다. 두 번째,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논어』 속 글자가 소실된 부분이 있어, 경문에 쓰인 한자가 달라진 경우도 있다. 세 번째, 『논어』는 대화체 구문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띄어쓰기와 끊어 읽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김용재,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6] —「雍也」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 81집, 동양철학연구회, 2015, 10-11쪽 참조.)

12) 『논어집해』는 당시 유행하던 여러 가지의 『論語注』들을 언어적·문자적으로 분류하여 재집성한 것이다. 공안국·마응·포함·정현·왕숙·주생렬 등의 다양한 견해가 인용되어 있다. (김용재, 「『論語集解』와 『論語集註』의 註釋 比較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理解[1] —「學而」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3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512쪽 참조.)

13) 『논어정의』는 『논어집해』를 상세히 부연하고 고증한 것이다. (한국고전종합DB, 『논어주소』 해제, 2023.05.01. (http://db.cyberseodang.or.kr/front/search/contentsLink.do?mId=A&srchIdx=1&srchCondition=4&srchKeyword=%EB%85%BC%EC%96%B4%EC%A3%BC%EC%86%8C&srchCbId=&srchBnCode=&srchCodeType=&facetBnName=&facetCbName=&bnCode=jti_1h0201&titleId=C1))

注疏』가 있다.¹⁴⁾ 新注라고 일컬어지는 주석서로는 朱熹의 『論語集註』가 있다. 우리나라의 『논어』 주석서로는 대표적으로 茶山 丁若鏞의 『論語古今註』, 栗谷 李珣의 『四書栗谷諺解』 등이 있다.

본고의 목적인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朱熹가 엮은 『論語集註』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이에 여러 주석서 중, 朱熹의 『論語集註』를 저본으로 하여 경문을 번역하도록 한다. 『論語集註』의 번역에 관해서는 성백효의 『최신판 論語集註』¹⁵⁾, 한국고전종합DB¹⁶⁾를 참고하였다.

성어는 『논어』 「學而」부터 「堯曰」까지의 경문에서 추출하였다. 이때, 단순히 경문을 축약하거나 별다른 의미가 없는 성어는 제외하고, 내용적으로 유의미한 요소가 있는 성어만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성어를 주제별로 분류할 때는 성어를 추출한 경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파악하였다.

교육대상으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으로 설정하였다. 최소 중·고등학생 이상이 『논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는 데 학습 수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초등학생의 경우는, 성어에 쓰인 한자를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성어로 교육하더라도 『논어』를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도 한문 과목이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교육을 제외하고 공교육만 다루기로 한다. 사교육의 경우, 일반인 대상의 교수학습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한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논어』의 교수학습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을 포

14) 한국고전종합DB, 『논어주소』 해제 2023.05.01.

15) 성백효, 『최신판 論語集註』,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7.

16) 한국고전종합DB, 2023.05.01. (<https://db.itkc.or.kr/>)

함한 일반인의 경우, 대학 교육과 학교 밖에서 시행되는 온·오프라인 교육에서 동일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수학습법은 교육공간을 기준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기본적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대상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중·고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법의 기본 틀은 같더라도 교육공간, 교수매체 등의 차이로 인해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법을 각각 작성하였다.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 중, 한 가지 주제의 성어를 여러 개의 교수학습법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본고에서 모든 주제의 성어를 모든 교수학습법에 연결 지어 다루기는 어렵다. 편의상 한 가지의 교수학습법에 한 가지 주제의 성어를 적용하여 서술하였다. 교육공간의 특징과 해당 교수학습법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며, 『논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대사회에서도 필요한 주제의 성어를 선정하여 연결 지었다.

다음은 장별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다.

II 장에서는 먼저, 1절에서 成語의 정의와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문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어와 사전에서 설명하는 성어의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보았다. 성어교육의 효과와 효율성을 살펴보고, 『논어』를 성어로 교육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2절에서는 중·고교 교과서의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의 수록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논어』 경문에서 성어를 추출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며,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어를 위주로 추출하였다. 3절에서는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학습요소를 분석하였다. 성어를 추출한 경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제를 분류하였다. 어느 주제로도 묶기 어려운 성어는 其他로 정리하였다. 학습요소를 분석할 때는 성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화하여 작성하였다.

Ⅲ장, Ⅳ장, Ⅴ장에서는 교육공간에 따라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Ⅲ장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어』의 성어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비롯하여 아직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곳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성어교육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성어교육에서 중요한 점과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의 교육방식을 알아보았다. 일반인 대상의 한문교육의 경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중·고등학교를 위주로 서술하였다. 2절과 3절에서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법을 특정 주제의 성어와 연결 지어 서술하였다. 2절에서는 Problem-Based Learning을 적용한 敎學 관련 성어의 자기주도학습 교수학습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孝悌 관련 성어를 易地思之를 위한 역할 놀이와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Ⅳ장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1절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대두하게 된 배경과 개발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즉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절에서는 온라인 One-Day Class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공간에서의 교수학습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한문교육의 플랫폼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One-Day Class를 활용한 修養 관련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

다. 3절에서는 AI 기술인 메타버스를 적용한 言行 관련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이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논어』교육을 고안하였다.

V 장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에서의 교수학습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1절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인들은 디지털 매체 보유율이 높고, 공교육에서도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직 오프라인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2절에서는 스마트 기기인 태블릿 PC를 활용한 友情·인간관계 관련 성어의 교수학습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순히 자료를 검색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3절에서는 Flipped Learning 형태의 미디어를 활용한 政治 관련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핫-미디어와 쿨-미디어를 사용한 각각의 교수학습법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四書에서 유래한 성어에 관한 연구와 성어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는 있었다.

먼저 김민경의 「《論語》 成語 研究」¹⁷⁾에서는 성어의 정의와 특징, 범위와 유래를 바탕으로 성어의 개념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논어』 경문 전편에서 추출한 성어 약 400개의 원문과 뜻을 바탕으로 하여 성어를 형식적·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용하는

17) 김민경, 「《論語》 成語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성어도 함께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형식적 측면에서는 성어를 형성방식과 어법구조에 따라 분류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論語』 성어를 ‘仁·義·禮·智’를 주제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은 성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어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약 400개의 성어 모두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김용재의 「四書에서 유래하는 成語에 대한 중·고교 ‘漢文科’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법」¹⁸⁾에서는 성어에 대한 諸정의를 하고, 제7차 교육과정 하에 제작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내 四書에서 유래하는 성어를 조사하였다. 또한, 중등 한문과에서 수록 가능한 고사성어를 4가지의 관점에 초점을 두어 추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수업 현장 부분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교수법을 제고하였다.

최영갑·김용재·진성수의 『四字論語 100選』¹⁹⁾에서는 『논어』의 전편을 다루었고, 『논어』 속에서 감동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를 네 글자로 만들어 수록하였다.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만들기도 하였고, 네 글자로 축약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성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글도 함께 수록하였기 때문에 현대사회 안에서 해당 성어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다.

백광호·공민정의 「第4次 産業革命 變化에 따른 漢文科에서의 ‘成語’ 授業 具案」²⁰⁾에서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의 ‘성어’ 영역의 위상과 일반적인 ‘성어’ 수업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한문과 수업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한문과 성어 교수 구안을 연구하였다. ‘정보검색활용으로 성어의 유래 알기’, ‘릴레이툰으로 성어의 속뜻 깨닫기’, ‘한문 지식을

18) 김용재, 「四書에서 유래하는 成語에 대한 중·고교 ‘漢文科’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법」, 『교육연구』 제60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19) 최영갑·김용재·진성수, 『四字論語 100選』, 풀빛, 2021.

20) 백광호·공민정, 「第4次 産業革命 變化에 따른 漢文科에서의 ‘成語’ 授業 具案」, 『漢字漢文教育』 제4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7.

활용하여 성어 창작하기’, ‘Problem-Based Cooperative Learning으로 성어의 가치 찾기’를 제시하였다.

송분화의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故事成語 교육 방안」²¹⁾에서는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하여 고사성어 교수학습 진행 절차와 수업을 수립한 후, 실제 수업에서 적용하였다. 수업 전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를 통해 故事成語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한문과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문교육에서도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수학습법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교수학습법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백광호의 「《漢文教育》에 대한 反省的 考察」²²⁾에서는 전국한문교사모임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인 《漢文教育》의 88호부터 100호까지의 성과를 분석·고찰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별 교수·학습 사례 중에서는 성어의 교수·학습 자료에 제시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사례로는 ‘유래 조사를 통한 성어 의미 이해하기’, ‘성어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 ‘나만의 학습노트 만들기를 활용하여 성어 이해하기’, ‘성어를 활용하여 기사문 작성하기’, ‘방송 영상을 활용하여 성어 이해하기’,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하여 성어 이해하기’,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연극하기’를 제시하였다. 성어 교수·학습 방법을 배경 지식, 문제 상황, 학습 목표, 수업 절차, 유의점 및 관련 자료를 순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성어 수업의 절차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 四書에서 유래한 성어와 성어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한 연구는 있었으나, 성어를 통한 『논어』의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는 『논어』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

21) 송분화,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故事成語 교육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22) 백광호, 「《漢文教育》에 대한 反省的 考察」, 『漢字漢文教育』 제4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이기 위해 성어를 활용하여 중·고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어』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論語』 經文에서의 成語 추출

1. ‘成語’의 정의와 교육적 효과

1) ‘成語’의 정의 및 개념 분석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기 전에 성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성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어를 ‘대체로 2~4자로 이루어진 관용구’라고 하였다.²³⁾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어(成語)는 예로부터 관용적으로 널리 쓰여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속어(熟語)를 말한다.’라고 하였다.²⁴⁾

다음은 사전에서 언급한 성어의 개념 및 정의이다. 『표준국어대사전』²⁵⁾에서는 성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3) [12한문01-07] 이 성취기준은 성어의 뜻과 유래를 이해하여 삶의 다양한 태도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성어는 대체로 2~4자로 이루어진 관용구이다.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故事成語)의 경우, 성어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속뜻을 학습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삶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성찰할 뿐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24쪽 참조.)

24) ‘성어(成語)’는 예로부터 관용적으로 널리 쓰여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속어(熟語)를 말한다. 특히,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故事成語)는 성어가 이루어진 내력(來歷)이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가 한문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고사성어의 학습은 단순히 겉뜻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고사의 내력이나 고문헌에서 유래된 속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11-361호, 14쪽 참조.)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05.31.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① 말을 이름
- ② 옛사람들이 만든 말
- ③ 『언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語句)

민중서림에서 편찬한 『漢韓大字典』²⁶⁾에는 성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① 숙어(熟語)
- ② 고인(古人)이 만들어 널리 세상에서 쓰여지는 말

민중서관에서 편찬한 『국어사전』²⁷⁾에서는 성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① 말을 이름
- ② 고인(古人)이 만든 말
- ③ 숙어

다시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내용 체계를 (1) 한자와 어휘, (2) 문장으로 나누었다. 성어는 (1) 한자와 어휘에서 과정·기능의 범주의 내용 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문의 활용’ 영역에서 핵심 개념으로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을 제시하였고,

26) 민중서림 편집국, 『漢韓大字典』, 제2판, 민중서림, 2008.

27) 국어국문학회 감수, 『밀레니엄 새로운 국어사전』, 민중서관, 2003.

내용 요소 중 하나로 ‘성어’를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지식’ 영역에서 내용 중 하나로 ‘어휘’를 제시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 ‘성어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대체로 성어를 어휘의 내용 요소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어와 어휘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①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수효. 또는 단어의 전체
- ② 『언어』 어떤 종류의 말을 간단한 설명을 붙여 순서대로 모아 적어 놓은 글

위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성어는 ‘어휘 중에서도 옛사람이 만든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어의 하위개념으로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고사성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①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

성어 중에서도 옛이야기에서 나온 것을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성어의 또 다른 하위개념으로 二字成語, 三字成語, 四字成語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성어를 이루는 한자의 개수로 일컫는 것이다.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다 보니 5자 이상의 성어 혹은 文句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성어의 특징 중 하나는 ‘짧은 글 안에 함축적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인데, 5자 이상의 성어는 성어보다는 문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과서에서도²⁸⁾ 성어는 대개 2~4자의 성어가 실려있고, 중학교 교과서에만 5자 성어가 2개 실려있다.²⁹⁾

본고에서는 『논어』에서 5자 이하의 성어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³⁰⁾ 5자 초과인 성어인 경우 문장을 풀이하는 것에 더 가까우며, 일상생활과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보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 없이 단순히 경문을 2~4자로 축약한 성어는 제외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어만을 정리하였다.

2) 성어교육의 효과 및 효율성

미래 교육에서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문은 어렵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더욱 학습자 중심의 활동 수업을 구성하여 한자·한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어는 학습자가 직접 유래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등 학습자 참여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에 효과적이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도 성어는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법을 활용하기에 용이하다고 말하였다.

정효영(2015)³¹⁾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성어 교수학습은 학생들의 참여가

28)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지만, 아직 교과서는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29) 獨木不成林(동아), 五十步百步(교학사, 금성, 다락, 대학, 동아, 동화, YBM, 이젠미디어, 지학사, 천재)가 수록되어 있다.

30) 짧은 글 안에 함축된 뜻을 품고 있다는 성어의 특징에 집중하였으며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교과서에도 최대 5자 성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31) 정효영, 「한문과 어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문교육연구』 제4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

가장 활발한 수업이라고 하였고, 권진옥(2021)³²⁾도 성어의 학습은 학습자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습 기법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 활동을 중심으로 성어 수업을 구성하면 학습자들이 성어에 담긴 의미를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고사성어에서 성어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속뜻을 학습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삶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성찰하고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³³⁾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에서도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긴 문장인 경문으로 『논어』를 학습하는 것은 처음 『논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내용 이해에 앞서 경문을 번역하는 것과 경문에 쓰인 한자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더욱 높이고 결국엔 『논어』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성어를 활용한 『논어』교육은 학습자들의 접근성과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문에 비해 성어는 비교적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학습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학습한 후에도 경문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 의미와 내용을 한 번에 떠올리기 쉽지 않다. 반면에 성어로 『논어』를 교육할 때, 성어가 유래한 경문의 맥락과 함께 가르치면 학습자들은 이후에는 성어만 봐도 성어의 의미와 경문의 맥락을 보다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이 높다.

또한, 『논어』에서는 같은 주제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32) 권진옥, 「중등 한자·한문 교육 방법론에 대한 모색 -학습자 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어문연구』 제49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33)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24쪽 참조.

변 언급한다. 그러나 경문을 통해 가르치면 시간상 다양한 경문을 학습하기 어렵다. 반면에 성어로 교육하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성어를 학습할 수 있다. 그만큼 그 주제에 대해 언급한 『논어』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어로 『논어』를 학습하는 것은 학습자의 『논어』에 대한 접근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으며 난이도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또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구성하는 데 용이하다. 이러한 성어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어』를 성어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論語』 經文에서의 성어 추출

1) 중·고교 한문교과서 內, 『論語』에서 유래한 성어 수록 현황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기 전, 중·고교 한문교과서에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의 수록 현황을 살펴보았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는 총 17종이다. 17종의 교과서에는 2자성어부터 5자성어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총 152개의 성어가 수록되어 있다.³⁴⁾ 그중에서 『논어』가 출전인 성어는 총 12개이다. 「학이」, 「위정」, 「선진」, 「안연」, 「자로」, 「계씨」에서 각 1개의 성어가 수록되어 있고, 「공야장」, 「현문」, 「위령공」에서는 각 2개의 성어가 수록되어 있다. 12개의 성어와 편명, 수록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34)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글모음집 참고.

〈표 01〉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17종) 內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 수록 현황

성어	편명	교과서
三省吾身	學而	교학, 동아
溫故知新	爲政	동아, YBM, 이젠
聞一知十	公冶長	교학, 금성, 다락, 동화, 비상, YBM, 장원, 지학, 천재
不恥下問	公冶長	중앙
過猶不及	先進	교학, 동아, 씨마스, YBM, 장원
克己復禮	顏淵	장원
欲速不達	子路	YBM, 장원
見利思義	憲問	금성
爲己之學	憲問	중앙
反求諸己	衛靈公	동아
殺身成仁	衛靈公	동아, 이젠, 중앙, 지학
學而知之	季氏	중앙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는 총 13종이다. 13종의 교과서에는 2자성어부터 4자성어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총 145개의 성어가 수록되어 있다.³⁵⁾ 그중에서 출전이 『논어』인 성어는 총 9개이다. 「위정», 「팔일」, 「공야장」, 「옹야」, 「술이」, 「태백」, 「선진」, 「안연」, 「헌문」에서 각 1개의 성어가 수록되어 있다. 9개의 성어와 편명, 수록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02〉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13종) 內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 수록 현황

성어	편명	교과서
溫故知新	爲政	미래
樂而不淫	八佾	이젠
不恥下問	公冶長	씨마, 와이, 이젠, 지학
博施濟衆	雍也	대명
發憤忘食	述而	미래, 이젠
如履薄水	泰伯	이젠
過猶不及	先進	와이, 이젠

35)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글모음집 참고.

성어	편명	교과서
克己復禮	顏淵	대명, 이젠
見利思義	憲問	대명

중학교 교과서(17종)와 고등학교 교과서(13종)에서는 ‘見利思義, 過猶不及, 克己復禮, 不恥下問, 溫故知新’ 총 5개의 성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2) 「學而」 제1부터 「堯曰」 제20까지의 성어 추출

『논어』 「學而」 제1부터 「堯曰」 제20까지의 경문에서 성어를 추출하였다. 각 편명과 순, 경문 그리고 성어를 정리하여 표로 제작하였다.³⁶⁾ 동일한 경문에서 여러 개의 성어를 추출하여 반복되는 경문이 있는 경우, ‘上同’으로 표시하였다.

『논어』에서 유래된 성어는 매우 많다. 김민경(2009)은 『논어』에서 394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추출한 성어 외, 알려지지 않은 성어도 매우 많다. 그러나 본고는 단순히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성어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어만을 정리하였다.³⁷⁾ 본고에서 「學而」 편부터 「堯曰」 편까지에서 추출한 성어는 총 201개이다.³⁸⁾ 각 편에서 추출한 성어는 다음과 같다.

36) 경문과 번역이 있는 성어의 표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7) 김민경, 「《論語》 成語 研究」, 김용재, 「四書에서 유래하는 成語에 대한 중·고교 ‘漢文科’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법」, 최영갑·김용재·진성수, 『四字論語 100選』,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참조하여 성어를 추출하였다.

38) 본고에서 사용한 『논어』 저본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논어』 영인본이다. 번역 본으로는 성백효의 『최신판 論語集註』,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각 편 경문의 순은 앞의 저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① 「學而」 제1에서 성어 추출

「學而」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03〉 「學而」 제1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學而	10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學而時習
	2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本立道生
	2	上同	君子務本
	3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巧言令色
	4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三省吾身
	5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節用愛人
	5	上同	使民以時
	7	子夏曰 賢賢易色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賢賢易色
	8	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過則勿憚改
	9	曾子曰 慎終追遠 民德歸厚矣	慎終追遠
	10	子禽問於子貢曰 夫子至於是邦也 必聞其政 求之與 抑與之與 子貢曰 夫子 溫良恭儉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溫良恭儉讓
	14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居無求安
	15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富而無驕
15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切磋琢磨	

② 「爲政」 제2에서 성어 추출

「爲政」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04〉 「爲政」 제2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爲政	2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一言以蔽之
	3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道德齊禮
	3	上同	有恥且格
	4	子曰 吾十有五而志於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三十而立

篇名	순	경문	성어
	4	上同	不惑
	4	上同	知天命
	4	上同	從心所欲
	7	子遊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犬馬之養
	9	子曰 吾與回 言終日 不違如愚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不愚	不違如愚
	11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溫故知新
	12	子曰 君子 不器	君子不器
	14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周而不比
	14	上同	比而不周
	18	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多聞闕疑
	22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輓 小車無軌 其何以行之哉	大車無輓
	24	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	見義勇爲

③ 「八佾」 제3에서 성어 추출

「八佾」은 총 2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05> 「八佾」 제3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八佾	8	子夏問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繪事後素
	17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告朔餼羊
	17	上同	愛禮存羊
	20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樂而不淫
	20	上同	哀而不傷
	21	哀公 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 以松 殷人 以栢 周人 以栗 曰 使民戰栗 子聞之 曰 成事 不說 遂事 不諫 既往 不咎	既往不咎
	25	子謂 韶盡美矣 又盡善也 謂武盡美矣 未盡善也	盡善盡美

④ 「里仁」 제4에서 성어 추출

「里仁」은 총 2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1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06〉 「里仁」 제4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里仁	2	子曰 不仁者 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樂 仁者 安仁 知者 利仁	仁者安仁
	5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君子去仁 惡乎成名?君子無 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造次顛沛
	7	子曰 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	觀過知仁
	8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朝聞夕死
	9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惡衣惡食
	10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無適無莫
	15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一以貫之
	17	子曰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見賢思齊
	18	子曰 事父母 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勞而不怨
	19	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遊必有方
24	子曰 君子 欲訥於言而敏於行	訥言敏行	

⑤ 「公冶長」 제5에서 성어 추출

「公冶長」은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07〉 「公冶長」 제5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公冶長	8	子謂子貢曰 女與回也孰愈 對曰 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 賜也聞一以知二 子曰 弗如也 吾與女弗如也	聞一知十
	14	子貢問曰 孔文子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	不恥下問
	16	子曰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	善與人交
	16	上同	久而敬之
	19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 曰 再 斯可矣	三思而行
	20	子曰 甯武子 邦有道則知 邦無道則愚 其知 可及也 其愚 不可及也	愚不可及
	21	子在陳 曰 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	斐然成章
	22	子曰 伯夷 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	不念舊惡

⑥ 「雍也」 제6에서 성어 추출

「雍也」편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6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08〉 「雍也」 제6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雍也	3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 子曰 與之釜 請益 曰 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 子曰 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 吾聞之也 君子周急不繼富	肥馬輕裘, 輕裘肥馬
	8	伯牛有疾 子問之 自牖執其手 曰 亡之 命矣夫 斯人也 而有斯疾也 斯人也 而有斯疾也	斯人斯疾
	9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簞食瓢飲
	9	上同	簞瓢陋巷
	9	上同	不堪其憂
	10	冉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畫	中道而廢
	12	子遊爲武城宰 子曰 女得人焉耳乎 曰 有澹臺滅明者 行不由徑 非公事 未嘗至於偃之室也	行不由徑
	16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文質彬彬
	20	樊遲問知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問仁 曰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敬而遠之
	2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知者樂水
	21	上同	仁者樂山
	21	上同	樂山樂水
	24	宰我問曰 仁者 雖告之曰 井有仁焉 其從之也 子曰 何爲其然也 君子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	從井救人
	25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博文約禮
	27	子曰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	中庸之道
28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舜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博施濟衆	

⑦ 「述而」 제7에서 성어 추출

「述而」는 총 3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09〉 「述而」 제7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述而	1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述而不作
	2	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誨人不倦
	8	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舉一反三
	10	子謂顏淵曰 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有是夫	用行舍藏
	10	子路曰 子行三軍 則誰與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暴虎馮河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	
10	上同	死而無悔
10	上同	臨事而懼
10	上同	好謀而成
11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從吾所好
14	冉有曰 夫子爲衛君乎 子貢曰 諾 吾將問之 入曰 伯夷叔齊何人也 曰 古之賢人也 曰 怨乎 曰 求仁而得仁 又何怨 出曰 夫子不爲也	求仁得仁
15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曲肱而枕之
15	上同	富貴浮雲
16	子曰 加我數年 卒以學易 可以無大過矣	假我年數
18	葉公問孔子於子路 子路不對 子曰 女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雲爾	發憤忘食
19	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 敏以求之者也	生而知之
20	子不語怪力亂神	怪力亂神
26	子釣而不網 弋不射宿	弋不射宿
37	子 溫而厲 威而不猛 恭而安	威而不猛

⑧ 「泰伯」 제8에서 성어 추출

「泰伯」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0> 「泰伯」 제8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泰伯	3	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戰戰兢兢
	3	上同	如履薄冰
	5	曾子曰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昔者 吾友嘗從事於斯矣	犯而不校
	6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裏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 人與 君子人也	六尺之孤
	6	上同	託孤寄命
	7	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任重道遠
	7	上同	死而後已
	17	子曰 學如不及 猶恐失之	學如不及
	19	子曰 大哉堯之爲君也 巍巍乎 唯天爲大 唯堯則之 蕩蕩乎 民無能名焉 巍巍乎其有成功也 煥乎其有文章	巍巍蕩蕩

⑨ 「子罕」 제9에서 성어 추출

「子罕」은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1〉 「子罕」 제9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子罕	8	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河不出圖
	10	顏淵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 卓爾雖欲從之 末由也已	欲罷不能
	16	子在川上 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不舍晝夜
	18	子曰 譬如爲山 未成一簣 止 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進 吾往也	未成一簣
	21	上同	秀而不實
	22	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	後生可畏
	28	子曰 知者 不惑 仁者 不憂 勇者 不懼	知者不惑
	28	上同	仁者不憂
28	上同	勇者不懼	

⑩ 「鄉黨」 제10에서 성어 추출

「鄉黨」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자 이하의 성어는 없어서 추출하지 않았다.

⑪ 「先進」 제11에서 성어 추출

「先進」은 총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2〉 「先進」 제11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先進	12	閔子侍側 闇闇如也 子路 行行如也 冉有子貢 侃侃如也 子樂 若由也 不得其死然	不得其死
	14	子曰 由之瑟奚爲於丘之門 門人不敬子路 子曰 由也升堂矣 未入於室也	升堂入室
	15	子貢問 師與商也孰賢 子曰 師也過 商也不及 曰 然則師愈與 子	過猶不及

篇名	순	경문	성어
		曰 過猶不及	
	16	季氏富於周公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 子曰 非吾徒也 小子鳴鼓而攻之可也	鳴鼓而攻
	24	子路使子羔 爲費宰 子曰 賊夫人之子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然後 爲學 子曰 是故 惡夫佞者	惡夫佞者
	25	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 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一日之長

⑫ 「顏淵」 제12에서 성어 추출

「顏淵」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3〉 「顏淵」 제12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顏淵	1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克己復禮
	4	司馬牛問君子 子曰 君子不憂不懼 曰 不憂不懼 斯謂之君子已乎 子曰 內省不 夫何憂何懼	內省不疚
	6	子張問明 子曰 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 可謂明也已矣 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 可謂遠也已矣	浸潤之譖
	6	上同	膚受之愬
	7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足食足兵
	7	上同	無信不立
	8	棘子成曰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 君子也 駟不及舌 文猶質也 質猶文也 虎豹之鞞猶犬羊之鞞	駟不及舌
	11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君君臣臣
	12	子曰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子路無宿諾	片言折獄
	16	子曰 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反是	成人之美
	17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政者正也
	21	樊遲從遊於舞雩之下 曰 敢問崇德 修慝 辨惑 子曰 善哉問 先事後得 非崇德與 攻其惡 無攻人之惡 非修慝與 一朝之忿 忘其身 以及其親 非惑與	一朝之忿
	24	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	以文會友

⑬ 「子路」 제13에서 성어 추출

「子路」은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4〉 「子路」 제13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子路	3	子路曰 衛君 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 野哉 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故 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	名正言順
	11	子曰 善人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是言也	勝殘去殺
	16	葉公問政 子曰 近者悅 遠者來	近悅遠來
	17	子夏爲莒父宰 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欲速不達
	18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父爲子隱
	20	子貢問曰 何如斯可謂之士矣 子曰 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曰 敢問其次 曰 宗族稱孝焉 鄉黨稱弟焉 曰 敢問其次 曰 言必信 行必果 硜硜然小人哉 抑亦可以爲次矣 曰 今之從政者 何如 子曰 噫 斗筭之人 何足算也	斗筭之人
	23	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和而不同
	23	上同	同而不和
	26	子曰 君子 泰而不驕 小人 驕而不泰	泰而不驕
27	子曰 剛毅木訥 近仁	剛毅木訥	

⑭ 「憲問」 제14에서 성어 추출

「憲問」은 총 4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5〉 「憲問」 제14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憲問	2	克伐怨慾 不行焉 可以爲仁矣 子曰 可以爲難矣 仁則吾不知也	克伐怨慾
	4	子曰 邦有道 危言危行 邦無道 危行言孫	危言危行
	13	子路問成人 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曰 今之成人者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見利思義
	13	上同	見危授命

篇名	순	경문	성어
	14	子問公叔文子於公明賈曰 信乎夫子不言不笑不取乎 公明賈對曰 以告者過也 夫子時然後言 人不厭其言 樂然後笑 人不厭其笑 義然後取 人不厭其取 子曰 其然 豈其然乎	時然後言
	16	子曰 晉文公譎而不正 齊桓公正而不譎	譎而不正
	17, 18	(17)子路曰 桓公殺公子糾 召忽死之 管仲不死 曰 未仁乎 子曰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18)子貢曰 管仲非仁者與 桓公殺公子糾 不能死 又相之 子曰 管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於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豈若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	一匡天下
	17, 18	上同	被髮左衽
	25	子曰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	爲己之學
	36	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以德報怨
	36	上同	以直報怨
	37	子曰 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下學上達
	46	原壤夷俟 子曰 幼而不孫弟 長而無述焉 老而不死 是爲賊 以杖叩其脛	老而不死

⑮ 「衛靈公」 제15에서 성어 추출

「衛靈公」은 총 4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6> 「衛靈公」 제15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4	子曰 無爲而治者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無爲而治
	5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裏 行乎哉 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 子張書諸紳	參前倚衡
	8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志士仁人
	8	上同	殺身成仁
	16	子曰 群居終日 言不及義 好行小慧 難矣哉	好行小慧
	20	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反求諸己
	22	子曰 君子不以言舉人 不以人廢言	以言取人
	22	上同	不以人廢言
	38	子曰 有教無類	有教無類

⑩ 「季氏」 제16에서 성어 추출

「季氏」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7〉 「季氏」 제16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季氏	1	季氏將伐顓臾 冉有季路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於顓臾 孔子曰 求無乃爾是過與 夫顓臾魯 昔者 先王 以爲東蒙主 且在邦域之中矣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社稷之臣
	1	冉有曰 夫子欲之 吾二臣者 皆不欲也 孔子曰 求 周任 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危而不持 顓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且爾言 過矣 虎兕出於柙 龜玉毀於櫝中 是誰之過與 冉有曰 今夫顓臾固而近於費 今不取 後世 必爲子孫憂	危而不持
	1	孔子曰 求 君子 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 丘也 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 無貧 和 無寡 安 無傾 夫如是故 遠人 不服則修文德以來之 既來之則安之 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 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不在顓臾而在蕭牆之內也	分崩離析
	1	上同	禍起蕭牆
	4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益者三友
	4	上同	損者三友
	7	孔子曰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	君子三戒
	8	孔子曰 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小人 不知天命而不畏也 狎大人 侮聖人之言	君子三畏
9	孔子曰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學而知之	
13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	過庭之訓	

⑪ 「陽貨」 제17에서 성어 추출

「陽貨」는 총 2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8〉 「陽貨」 제17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陽貨	1	陽貨欲見孔子 孔子不見 歸孔子豚 孔子時其亡也而往拜之 遇諸塗 謂孔子曰 來 予與爾言 曰 懷其寶而迷其邦 可謂仁乎 曰 不可 好從事而亟失時 可謂知乎 曰 不可 日月逝矣 歲不我與 孔子曰諾 吾將仕矣	歲不我與
	3	子曰 唯上知與下愚不移	下愚不移
	4	子之武城 聞弦歌之聲 夫子莞爾而笑 曰 割雞焉用牛刀 子游對曰 昔者 偃也聞諸夫子 曰君子學道則愛人 小人 學道則易使也 子曰 二三子 偃之言 是也 前言 戲之耳	牛刀割雞
	6	子張 問仁於孔子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 爲仁矣 請問之 曰恭寬信敏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	寬則得衆
	7	佛肸 召 子欲往 子路曰 昔者 由也聞諸夫子 曰親於其身 爲不善者 君子不入也 佛肸 以中牟畔 子之往也 如之何 子曰 然 有是言也 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 白乎 涅而不緇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	涅而不緇
	12	子曰 色厲而內荏 譬諸小人 其猶穿窬之盜也與	色厲內荏
	12	上同	穿窬之盜
	14	子曰 道聽而塗說 德之棄也	道聽塗說
	15	子曰 鄙夫可與事君也與哉 其未得之也 患得之 既得之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	患得患失
	15	上同	無所不至
18	子曰 惡紫之奪朱也 惡鄭聲之亂雅樂也 惡利口之覆邦家者	惡紫奪朱	
18	上同	禮壞樂崩	

⑱ 「微子」 제18에서 성어 추출

「微子」는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19〉 「微子」 제18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微子	2	柳下惠爲士師 三黜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父母之邦
	3	齊景公待孔子曰 若季氏則吾不能 以季孟之間 待之 曰 吾老矣 不能用也 孔子行	季孟之間
	5	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 已而 今之從政者殆而 孔子下 欲與之言 趨而辟之 不得與之言	來者可追
	7	子路拱而立 止子路宿 殺雞爲黍而食之 見其二子焉	殺雞爲黍

	8	逸民 伯夷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少連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謂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謂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清 廢中權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放言高論
	8	上同	無可無不可

⑱ 「子張」 제19에서 성어 추출

「子張」은 총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20〉 「子張」 제19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子張	1	子張曰 士見危致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	見危致命
	4	子夏曰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不爲也	致遠恐泥
	6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博學篤志
	6	上同	切問近思
	8	子夏曰 小人之過也必文	文過飾非
	12	子遊曰 子夏之門人小子 當灑掃應對進退 則可矣 抑末也 本之則無 如之何 子夏聞之 曰 噫 言遊過矣 君子之道 孰先傳焉 孰後倦焉 譬諸草木 區以別矣 君子之道 焉可誣也 有始有卒者 其惟聖人乎	灑掃應對
	12	上同	有頭有尾, 有始有終
	13	子夏曰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	學優登仕
	22	衛公孫朝問於子貢曰 仲尼焉學 子貢曰 文武之道 未墜於地 在人賢者識其大者 不賢者識其小者 莫不有文武之道焉 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	文武之道
	22	上同	學無常師
25	陳子禽 謂子貢曰 子爲恭也 仲尼豈賢於子乎 子貢曰 君子一言以爲知 一言以爲不知 言不可不慎也 夫子之不可及也 猶天之不可階而升也 夫子之得邦家者 所謂立之斯立 道之斯行 綏之斯來 動之斯和 其生也榮 其死也哀 如之何其可及也	生榮死哀	

⑳ 「堯曰」 제20에서 성어 추출

「堯曰」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표 21〉 「堯曰」 제20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堯曰	2	子張 問於孔子曰 何如 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屏四惡 斯可以從政矣사 子張 曰 何謂五美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子張 曰 何謂惠而不費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擇可勞而勞之 又誰怨 欲仁而得仁 又焉貪 君子無衆寡 無小大 無敢慢 斯不亦泰而不驕乎 君子 正其衣冠 尊其瞻視 儼然人望而畏之 斯不亦威而不猛乎	惠而不費
	2	子張 曰 何謂四惡 子曰 不教而殺 謂之虐 不戒視成 謂之暴 慢令致期 謂之賊 猶之與人也 出納之吝 謂之有司	不教而殺, 不教而誅

3. 추출된 성어의 주제별 분류 및 학습요소

이 절에서는 위에서 추출한 성어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성어는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뜻뿐만 아니라, 내포하고 있는 속뜻도 중요하다. 성어가 유래한 『논어』 경문의 전후 내용을 파악하여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맞은 주제로 분류하였다. 어느 주제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성어는 其他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어마다 학습요소를 유형화하여 작성하였다. 주제별 성어 및 학습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22〉 ‘教學’과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學而時習	學而	배우고 때때로(반복하여) 익힌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居無求安	學而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三十而立	爲政	학문이 이루어져 도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不惑	爲政	외부의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는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知天命	爲政	天命을 알게 된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從心所欲	爲政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不違如愚	爲政	어긋남이 없어서 어리석은 듯 하다. 배운 것을 체득하여 실천한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溫故知新	爲政	옛 것을 익히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안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不恥下問	公冶長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誨人不倦	述而	남을 가르칠 때 게을리 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가르침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舉一反三	述而	한 가지 일을 미루어 다른 일을 헤아릴 수 있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假我年數	述而	배우고 싶은 바가 있어서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發憤忘食	述而	일을 이루기 위해 분발하여 먹는 것을 잊는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生而知之	述而	학문을 태어나면서부터 알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學如不及	泰伯	학문을 미치지 못하는 듯하게 한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欲罷不能	子罕	끝내고자 해도 끝낼 수 없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未成一簣	子罕	마지막 노력을 소홀히 하여 일을 이루지 못한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秀而不實	子罕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어 아무런 성과가 없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後生可畏	子罕	후세대이더라도 학문을 닦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두려워할 만 하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升堂入室	先進	학문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爲己之學	憲問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해야 된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下學上達	憲問	쉬운 것부터 배워서 어려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有教無類	衛靈公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열려 있다. 바람직한 가르침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學而知之	季氏	배워서 학문을 안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過庭之訓	季氏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리를 가르친다.
		바람직한 가르침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博學篤志	子張	널리 배우고 뜻을 굳건히 한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切問近思	子張	모르는 것을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한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學無常師	子張	학문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표 23〉 ‘孝悌’와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本立道生	學而	근본(효제)이 바로 서면 道가 생겨난다.
		孝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君子務本	學而	군자는 근본인 孝悌에 힘쓴다.
		孝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慎終追遠	學而	장례에는 예를 다하고, 제사에는 정성을 다한다.
		바람직한 孝悌의 태도를 생각하게 한다.
犬馬之養	爲政	부모님을 봉양할 때는 공경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孝悌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
勞而不怨	里仁	효자는 부모를 위해 수고하여도 원망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孝悌의 태도를 생각하게 한다.
遊必有方	里仁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식은 자신의 행방을 알려야 한다.
		바람직한 孝悌의 태도를 생각하게 한다.
如履薄冰	泰伯	부모님에게 받은 신체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다.
		孝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표 24〉 ‘言行’과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巧言令色	學而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며서 남에게 아첨하다.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訥言敏行	里仁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三思而行	公冶長	지나친 생각은 사사로운 뜻을 일으킨다. 신중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暴虎馮河	述而	무모한 용기나 행동을 의미한다. 신중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死而無悔	述而	무모한 행동을 의미한다. 신중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臨事而懼	述而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여 조심한다. 신중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好謀而成	述而	일을 도모하는 것을 좋아하여 성공에 이른다.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惡夫佞者	先進	말재주만 잘하는 자를 미워한다.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駟不及舌	顏淵	말은 빨리 퍼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신중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危言危行	憲問	바른 말과 행실을 하여 時俗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時然後言	憲問	상황에 맞게 말을 하다. 신중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譎而不正	憲問	남을 속이는 것을 바르지 못하다.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參前倚衡	衛靈公	忠信과 篤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함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穿窬之盜	陽貨	좀도둑처럼 남몰래 하는 나쁜 짓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放言高論	微子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하다.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표 25〉 ‘正義’와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見義勇爲	爲政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정의로운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無適無莫	里仁	치우친 바 없이 오직 義만 따라서 평등하다. 정의로운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行不由徑	雍也	지름길을 취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만을 행한다.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怪力亂神	述而	비합리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君君臣臣	顏淵	각자의 맡은 도리를 지켜서 정명에 맞게 한다.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名正言順	子路	말과 행위가 정당하여 이치에 합당하다.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見利思義	憲問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아도 정의로움을 생각해야 된다.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見危授命	憲問	위태로움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정의를 실천한다.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殺身成仁	衛靈公	자신을 희생하여 올바른 道를 실천한다.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好行小慧	衛靈公	옳지 못한 지혜를 행하면 안 된다.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惡紫奪朱	陽貨	간사한 것이 정의로운 것을 어지럽힌다.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禮壞樂崩	陽貨	세상이 어지러워졌음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見危致命	子張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표 26〉 ‘겸손’과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富而無驕	學而	부유해도 겸손하여 예의를 좋아해야 된다.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述而不作	述而	聖人の 말을 전한 것이지 자신이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겸손한 태도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겸손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표 27〉 ‘修養’과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三省吾身	學而	하루에 세 가지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 현대사회에서 수양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過則勿憚改	學而	잘못이 있으면 곧바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수양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切磋琢磨	學而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는다. 올바른 수양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君子不器	爲政	군자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모든 분야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인재상에 대해 생각해 본다.
繪事後素	八佾	사람은 아름다운 바탕이 있는 뒤에 꾸밈을 더해야 된다. 바람직한 인재상에 대해 생각해 본다.
見賢思齊	里仁	어진 사람을 보면 자기도 어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바람직한 인재상에 대해 생각해 본다.
簞食瓢飲	雍也	청빈한 삶으로,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수양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簞瓢陋巷	雍也	소박한 생활에도 즐거움을 느낀다. 현대사회에서 수양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不堪其憂	雍也	물질이 부족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 올바른 수양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不舍晝夜	子罕	밤낮을 쉬지 않고 부단히 학문에 힘을 쓴다. 현대사회에서 수양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反求諸己	衛靈公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서 고친다. 올바른 수양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표 28〉 ‘政治’와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節用愛人	學而	나라의 재물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올바른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使民以時	學而	백성을 동원할 때는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올바른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道德齊禮	爲政	국민을 다스릴 때는 덕으로 이끌고 예로 가지런히 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有恥且格	爲政	국민이 좋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훌륭한 것에 나아간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博施濟衆	雍也	국민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구제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託孤寄命	泰伯	어린 임금을 부탁하여 국정을 맡긴다. 올바른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六尺之孤	泰伯	나이가 어린 군주나 후계자를 의미한다. 올바른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足食足兵	顏淵	국민의 생활과 군사를 넉넉하게 하면 국민이 신의를 지킨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無信不立	顏淵	정치나 개인 간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政者正也	顏淵	정치는 바르게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勝殘去殺	子路	잔학한 사람은 교화시킬 수 있어서 사형을 할 필요가 없다. 올바른 정치의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近悅遠來	子路	좋은 정치가 널리 퍼진다. 올바른 정치의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欲速不達	子路	정치를 할 때, 일을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면 오히려 순서가 없어서 도달하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斗筭之人	子路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루하여 보잘것없다. 올바른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一匡天下	憲問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被髮左衽	憲問	아직 생활의 정도나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를 의미한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본다.
無爲而治	衛靈公	지도자의 덕이 커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나라가 다스려진다. 올바른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社稷之臣	季氏	나라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올바른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危而不持	季氏	타인의 잘못을 알고도 방관하며 나라가 위태로워도 돕지 않는다. 올바른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分崩離析	季氏	나라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무너진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禍起蕭牆	季氏	나라 안에서 재앙이 일어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惠而不費	堯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도와주어 낭비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不教而殺, 不教而誅	堯曰	미리 가르치지 않고, 잘못이 있으면 죽이는 것이다. 올바른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표 29〉 ‘友情·인간관계’와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善與人交	公冶長	남을 공경하여 오래 잘 사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久而敬之	公冶長	타인과의 관계가 오래되어도 공경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不念舊惡	公冶長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 속에 새겨두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以文會友	顏淵	학문으로 친구를 사귈다.	올바른 우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犯而不校	泰伯	타인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따지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和而不同	子路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신의 주장을 잃어 굽히지는 않는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同而不和	子路	남에게 겉으로만 동의하고 속으로는 불만을 품는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以德報怨	憲問	자신의 원수에게 덕을 베푼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以直報怨	憲問	자신의 원수를 정직함으로 대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益者三友	季氏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를 의미한다.	올바른 우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損者三友	季氏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를 의미한다.	올바른 우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표 30〉 ‘禮’·‘智’와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주제
		학습요소		
告朔餼羊	八佾	예의는 내용은 없이 형식만 남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예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禮
愛禮存羊	八佾	禮를 보전하기 위해 형식을 남긴다.	예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愚不可及	公冶長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다는 뜻으로 오히려 더 지혜로움을 의미한다.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智
敬而遠之	雍也	겉으로는 공경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한다.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知者樂水	雍也	지혜로운 자는 두루 통달하여 막힘이 없다.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樂山樂水	雍也	어진 자는 義理에 편안하여 중후하고 지혜로운 자는 두루 통달하여 막힘이 없다.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知者不惑	子罕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혹하지 않는다.		

성어	篇名	의미	주제
		학습요소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표 31〉 ‘孔子’와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주제
		학습요소	
溫良恭儉讓	學而	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태도를 생각하게 한다.	
威而不猛	述而	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태도를 생각하게 한다.	

〈표 32〉 ‘富貴’·‘處世’와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주제	
		학습요소		
肥馬輕裘, 輕裘肥馬	雍也	부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富貴	
		부귀와 빈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從吾所好	述而	부귀는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행동한다.		
		부귀와 빈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曲肱而枕之	述而	가난한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부귀와 빈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富貴浮雲	述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는 소용없다.		
		현대사회에서 정당하게 부귀를 얻는 방법을 생각한다.		
患得患失	陽貨	얻음을 근심하고, 잃음을 근심한다.		
		부귀와 빈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無所不至	陽貨	이익과 지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근심을 한다.		
		부귀와 빈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多聞闕疑	爲政	많이 듣고 그중에서 의심나는 것을 제외한다.		處世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처세를 살펴본다.		
既往不咎	八佾	이미 지나간 것은 탓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처세를 살펴본다.		
用行舍藏	述而	나아가고 물러가는 때를 알아 태도가 분명한다.		
		처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內省不疚	顏淵	자신을 성찰하여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처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歲不我與	陽貨	시간은 영구하지 않다.		
		처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下愚不移	陽貨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성어	篇名	의미	주제
		학습요소	
道聽塗說	陽貨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처세를 살펴본다.	
		길에서 들은 것과 같이 근거없는 소문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처세를 살펴본다.	

〈표 33〉 ‘中庸’과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樂而不淫	八佾	즐거워하되 정도를 넘지 않는다. 中庸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哀而不傷	八佾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中庸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中庸之道	雍也	치우치거나 과부족함이 없이 알맞은 상태이다. 中庸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過猶不及	先進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中庸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無可無不可	微子	옳은 것도 없고 그름 것도 없다는 뜻으로, 과불급이 없다. 中庸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표 34〉 ‘君子·小人’과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周而不比	爲政	君子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귀되,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君子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比而不周	爲政	小人은 남을 사사롭게 편당지어 사귄다. 현대사회에서의 小人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反面教師를 삼는다.
成人之美	顏淵	君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더욱 빛나게 한다.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君子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泰而不驕	子路	君子는 태연하면서 교만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君子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君子三戒	季氏	君子가 지키는 세 가지 경계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君子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君子三畏	季氏	군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3가지 있다.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君子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色厲內荏	陽貨	소인은 겉은 엄하나 내면은 유약하다. 현대사회에서의 小人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反面教師를 삼는다.
文過飾非	子張	小人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꾸며서 덮는다. 현대사회에서의 小人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反面教師를 삼는다.

〈표 35〉 ‘仁’과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賢賢易色	學而	어진 사람을 존경한다.
		어진 사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仁者安仁	里仁	어진 사람은 仁을 편안히 여긴다.
		어진 사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造次顛沛	里仁	다급한 경우에도 仁을 지켜야 한다.
		仁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觀過知仁	里仁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안다.
		어진 사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仁者樂山	雍也	어진 자는 義理에 편안하여 중후하다.
		어진 사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從井救人	雍也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한다.
		어진 사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求仁得仁	述而	자신이 얻고자 하는 仁을 얻었다.
		仁의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弋不射宿	述而	仁한 마음으로 일에 있어서 정도를 넘지 않는다.
		仁의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任重道遠	泰伯	仁에 대한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仁의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死而後已	泰伯	仁을 추구하는 마음은 살아있는 한 그치지 않는다.
		仁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仁者不憂	子罕	어진 사람은 道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
		어진 사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克己復禮	顏淵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의를 따른다.
		仁의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剛毅木訥	子路	仁에 가까운 사람을 의미한다.
		어진 사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志士仁人	衛靈公	뜻이 있는 사람과 德와을 이룬 사람을 의미한다.
		仁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寬則得衆	陽貨	사람에게 너그러워서 민심을 얻는 것이 仁이다.
		仁의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표 36〉 ‘道’와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朝聞夕死	里仁	道를 깨달으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道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惡衣惡食	里仁	도에 뜻이 있으면 변변치 못한 衣食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道の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一以貫之	里仁	도로써 모든 것을 꿰뚫는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道の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본다.
博文約禮	雍也	지식을 넓히고 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道에 맞는 것이다. 道の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勇者不懼	子罕	용감한 사람은 道義를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道の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본다.
父母之邦	微子	道を 굽히며 산다면 고국을 떠날 필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道の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본다.
文武之道	子張	聖人の 道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道の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본다.

〈표 37〉 ‘信義’와 연관된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大車無輓	爲政	사람에게는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片言折獄	顏淵	몇 마디 말로 밝게 결단한다. 신용이 있다.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표 38〉 ‘其他’ 성어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一言以蔽之	爲政	한 마디 말로써 전체의 뜻을 다 말한다.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본다.
盡善盡美	八佾	完全無缺을 의미한다. 완벽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다.
聞一知十	公冶長	충명한 것을 의미한다. 충명함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斐然成章	公冶長	학문의 성취를 이룬 것이 있다. 학문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것의 기준을 생각해 본다.
斯人斯疾	雍也	아끼는 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한다. 孔子의 애통해하는 마음에 대해 이해한다.
中道而廢	雍也	의지는 있지만 힘이 부족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文質彬彬	雍也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戰戰兢兢	泰伯	무서워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의태어를 나타내는 성어를 이해한다.
巍巍蕩蕩	泰伯	높고 넓은 모양을 나타낸다. 의태어를 나타내는 성어를 이해한다.
河不出圖	子罕	孔子的 문장이 행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亂世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不得其死	先進	지나치게 굳세서 자신의 命대로 죽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모함의 폐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鳴鼓而攻	先進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한다.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꾸짖어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함을 학습한다.
一日之長	先進	나이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나이에 의해 어려워하지 않고 말을 다 하게 하여 그 뜻을 살피려고 한 孔子의 뜻을 학습한다.
浸潤之譖	顏淵	교묘한 계략을 의미한다. 교묘한 계략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膚受之愬	顏淵	교묘한 계략을 의미한다. 교묘한 계략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一朝之忿	顏淵	일시적으로 일어난 분노를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父爲子隱	子路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숨겨주는 것은 天理와 仁情의 지극함이다. 정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克伐怨慾	憲問	네 가지 惡德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惡德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老而不死	憲問	늙었으나 어지러운 일이 자꾸 생겨서 죽지 못한다. 인륜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예시를 생각해 본다.
以言取人	衛靈公	말만 듣고 그 사람의 어쭈름을 판단한다. 말재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不以人廢言	衛靈公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옳은 말까지 버리면 안 된다. 편협한 시각의 폐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牛刀割鷄	陽貨	큰 일을 처리할 기능으로 작은 일을 처리한다. 일의 적절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涅而不緇	陽貨	자신이 결백하면 주변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관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季孟之間	微子	상대를 대할 때 알맞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의 적절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來者可追	微子	지나간 잘못은 고칠 수 없으니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성어	篇名	의미
		학습요소
殺鷄爲黍	微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의 적절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致遠恐泥	子張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작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의 적절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灑掃應對	子張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연령에 따라 일상에서 필요한 일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有頭有尾, 有始有終	子張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始終一貫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學優登仕	子張	배우고서 벼슬을 하면 배운 것을 徵驗함이 넓어진다. 배우는 것과 벼슬하는 것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生榮死哀	子張	훌륭한 사람은 살아가는 명성이 있고 죽어서는 사람들이 슬퍼한다. 훌륭한 인품의 기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Ⅲ.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敎學’·‘孝悌’와 관련한 성어 교수학습법

1.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성어교육

오프라인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학습자는 교사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교사의 목소리의 변화, 표정, 교사와의 눈맞춤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수업보다 사회적 실재감이 풍부하다.³⁹⁾ 직접 얼굴을 대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보다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교수학습법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둠 활동, 토의·토론하기 활동 등과 같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활동이나 역할 놀이 활동 등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활동은 오프라인 교육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Ⅲ장에서는 성어의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오프라인 교육인 학교에서의 성어 수업은 유래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성어를 풀이하여 겉뜻과 속뜻을 알게 하며, 언어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금 더 심화하면 성어를 통해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한다.⁴⁰⁾

새롭게 고시된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어 관련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39) 김현우, 「온라인 한국어 수업과 오프라인 한국어 수업의 학습자 성취도 비교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제13호,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0, 23쪽 참조.

40) 백광훈·공민정, 「第4次 産業革命 變化에 따른 漢文科에서의 ‘成語’ 授業 具案」, 『漢字漢文教育』 제4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7, 52쪽 참조.

[9한01-04] 단어와 성어를 읽고 풀이한다.

[9한01-05] 단어와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여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12한문01-05] 단어와 성어를 읽고 풀이한다.

[12한문01-06] 단어와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여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12한문01-07] 성어의 뜻과 유래를 이해하여 삶의 다양한 태도와 가치를 탐색한다.

[12언한01-04] 성어의 의미와 유래를 파악하여 삶의 가치를 이해한다.

성어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학습자 주도 성어 탐구·발표하기’, ‘성어로 이야기 만들기’, ‘성어 그림·만화 활용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성어 수업을 할 때는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하였다.⁴¹⁾

새롭게 고시된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성어를 풀이하고 유래를 이해하며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하고, 삶의 가치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논어』와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교육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학습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현재 중학교 한문교과서 17종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3종에서는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를 단독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다른 성어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학습요소로는 『논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성어의 출전이 『논어』라고 밝힌 교과서는 없다. 고사성어의 경우는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유래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의 유래를 설명한 교과서는 두 종밖에 없다. 먼저, 비상교육의 중학교 한문 교

41)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8쪽 참조.

과서⁴²⁾이다.

■ **聞一知十**: _____를 들으면 열을 알.
문 일 □□ > 지극히 충명함을 이르는 말.
④ **聞**[서술어] + **一**[목적어] → 술목 관계
유래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자신을 안희와 비교하면서 한 말로, 안희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자신은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 뿐이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다.
활용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聞一知十**하는, 동네의 소문난 수재였다.

비상교육에서는 ‘聞一知十’의 출전이 『논어』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유래를 통해 『논어』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대강의 맥락만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지학사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⁴³⁾이다.

4 3 1 2
不恥下問.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불 치 하 문
유래 자공(子貢)이 공문자(孔文子)의 시호(諡號)를 ‘문(文)’이라고 한 이유를 묻자, 공자(孔子)가 ‘민첩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서이다.’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하였다.

지학사에서 ‘不恥下問’의 출전이 『논어』인 것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유래를 통해 『논어』를 설명하였는데, 비상교육의 교과서와는 다르게 대화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성어가 유래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 한문교과서에서는 성어를 통해 『논어』를 교육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어는 고전 한문 문장의 語句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 교과서에서 학습하는 성어들은 대개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하

42) 이동재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비상교육, 2018.

43) 안재철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지학사, 2018.

나의 어휘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⁴⁴⁾ 다른 성어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도 『논어』라는 텍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의 어휘로서 수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교과서에서 『논어』는 대부분 경문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성어 부분에서는 『논어』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논어』 경문의 수는 적으며, 수업 시수가 적은 한문 과목에서는 『논어』를 자세히 가르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논어』를 단독으로 제시하지 않고 『明心寶鑑』, 『孟子』, 『朱子語類』 등 다른 고전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경문을 통해 『논어』를 가르치고자 하여도 다른 고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온전히 『논어』에만 집중하기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논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보다는 번역 등의 단편적인 부분만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학습법은 『논어』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기 어렵다.

III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성어교육의 장점인 학습자 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논어』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면서도 『논어』 자체에 집중하여 유의미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서 오프라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의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Problem-Based Learning〉 교수학습법

1) PBL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효과

44) 장진엽,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한자 어휘 수록 체계 검토」, 『어문연구(語文研究)』 제49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232쪽 참조.

Problem-Based Learning(이하 PBL)이란 학습자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모형이다. PBL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상황과 관련된 사례의 문제를 통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모한다. 둘째, 수업방법으로는 토의와 학생 간의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력 증진, 발표 능력과 협동학습 능력을 강조한다. 셋째, 학생 중심의 자가지향적 학습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이 되도록 한다. 넷째, 교수자는 조력자로서 학습의 촉진과 학습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⁴⁵⁾ PBL은 오프라인 교육에서 학습자 활동 중심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데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이다.

孔子の 교육방법 중 하나는 啓發教育이다. 계발교육이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스스로 깨치도록 하는 교육방법이다. 孔子는 일부만을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학습자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였다. 이에 孔子는 계발교육방법으로 주로 問答의 방식을 사용하였다.⁴⁶⁾

PBL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孔子가 사용한 계발교육의 방법과 유사하다. 『논어』를 孔子の 교육방법과 유사한 PBL을 활용하여 가르침으로써 학습자들의 『논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PBL 교수학습법은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 중, 敎學 관련 성어와 연결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 敎學으로 분류한 성어는 총 28개이다. 『논어』에서 추출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성어 중 가장 많은 수이다. 또한,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 중에서도 敎學 관련 성어가 가장 많다. 『논어』는 「학이」편으로 시작하는 만큼, 敎學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번

45) 이신동·조형정·장선영·정종원, 『알기쉬운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양서원, 2012, 185-186쪽 참조.

46) 문병도·이명준, 「공자의 교육목표와 교육방법」, 『공자학』 제10호, 한국공자학회, 2003, 99-101쪽 참조.

언급하며 배움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⁴⁷⁾ 그만큼 敎學을 학습하면 『논어』의 내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에 敎學과 관련된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연구함으로써 『논어』에서의 敎學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나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수록 『논어』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⁴⁸⁾,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⁴⁹⁾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다. 학습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사고보다는 단편적이고 빠른 배움만이 있을 뿐이다. 더불어 자기 적성과 미래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정하기보다는 대학교에 가서 또다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도 자기 적성과 배우고자 하는 분야를 끊임없이 탐색하기 위해서는 배움에 대해 자기성찰을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배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학문은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평생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발전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도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⁵⁰⁾ 그러나 배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지

47) 『논어』의 子曰, 弟子, 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學而』)의 경문을 보면, ‘學文’은 실천보다 이론·지식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구문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공자는 ‘실천’ 위주의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며, 이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학문’의 한자표기는 ‘學文’이 아니라 ‘學問’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래 ‘學問’은 『중용』의 ‘博學’과 ‘審問’의 줄임말로, 文이나 詞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배우고 깊이 자문하여 지식의 범주를 넓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진정한 ‘學問’의 5단계이며, 博學 → 審問 → 慎思 → 明辨 → 篤行이다. 역시, 배움[博學]으로 시작하여 실천[篤行]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용재, 「류성룡의 실학적 토대로서의 經學觀 연구」, 『서애연구』 제7권, 서애학회, 2023, 117-123쪽 참조)

48)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교육부,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2016, 6쪽 참조.)

49)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정책 소개, 2023.05.31. <http://www.hscredit.kr/hsc/intro.do>)

50)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역할이 활발

않거나 자기주도적으로 배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소홀해지기 쉽다. 중·고교 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학습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고교 학생의 경우, 타인에 의해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깨닫는 것은 자발적인 학문 탐구를 추구하는 것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개인 및 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하기 어렵다. 학문의 중요성을 알고,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의해 깨우치는 것보다 스스로 현대사회 또는 개인이 학문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순히 배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바람직한 태도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敎學 관련 성어는 학습자가 배움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하는 것이 선행될 수 있는 PBL 교수학습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2) PBL 교수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지도안 예시

『논어』에서 말하는 敎學의 의미를 이해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삶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교수학습법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주도 성어 탐구·발표하기’⁵¹⁾와 PBL을 접목하여 2차시 수업을 구성하였다. 고등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수업을 각각 작성하였다.

먼저, 고등학생 대상의 수업이다. 1차시 수업에서 모듈별 학습을 통해 현

해졌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늘어났고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였다. (김윤아·이복희,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상담 수준이 평생학습 참여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과 학습만족도 매개효과」,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연구』 제1권 제1호, 한국평생교육HRD학회, 2022, 2쪽 참조.)

51)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29쪽 참조.

대사회에서의 배움의 중요성과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학습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을 생각한다. 이후, 敎學 관련 성어의 음·뜻, 번역과 성어가 유래한 경문의 맥락이 제시된 활동지를 배부받고 모둠별 토의를 통해 성어의 의미를 학습한다.

2차시 수업에서는 1차시 수업에서 문제를 제기한 중·고교 학교 현장에서의 배움의 폐단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어』에서 추출한 敎學 관련 성어를 통해 찾도록 한다. 먼저, PBL과 孔子의 교육방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그 이후, 모둠별로 성어의 의미를 통해 배움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그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게 한다. 모든 활동을 종료한 후, 모둠별 발표를 통해 모둠에서 학습한 내용을 타 학습자들과 공유한다. 모둠별로 생각한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과 그 폐단을 바로잡을 방안을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와 연결 지어 발표한다. 이때, 모둠이 발표한 성어가 유래한 『논어』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다. 여러 모둠의 발표를 통해 본인의 모둠에서 심화 학습한 『논어』에서 유래한 敎學의 관한 성어 외에도 다른 성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논어』에 나타난 敎學의 의미를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수업에서는 II장에서 분석한 학습요소 중,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의 성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下學上達⁵²⁾을 통해서 암기식 학습보다는 순서와 계열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을 성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학습하기 전, 학습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계열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 중심의 학습을 추구한다는 선정할 수 있다.

切問近思⁵³⁾와 不恥下問⁵⁴⁾를 통해서도 주입식으로 지식을 습득하여 의문이

52) 『論語』「憲問」：子曰 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생겨도 묻지 않고 무조건 암기하는 것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비록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을 한계 짓지 않고 의문이 생기는 것을 자세히 묻는 것이 필요함을 학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주일에 5번 이상 질문하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성어 외에도 II장에서 작성한 학습요소를 바탕으로 모둠에서 선정한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어』에 나타난 敎學 관련 성어와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다.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논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며, 『논어』의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인 대상의 수업은 고등학생 대상의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찾는 것보다는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구성한다. 평생학습의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습을 평생동안 끊임없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학습 추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때, II장에서 분석한 敎學 연관된 성어 중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와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다. 三十而立⁵⁵⁾과 不惑⁵⁶⁾을 통해서 『논어』에서는 학문을 함으로써 내면의 힘을 길러서 외부의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의 학습의 중요성 중 한 가지로 자신의 주관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을 배우

53) 『論語』 「子張」：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54) 『論語』 「公冶長」：子貢問曰 孔文子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

55) 『論語』 「爲政」：子曰 吾十有五而志於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56) 『論語』 「爲政」：子曰 吾十有五而志於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生而知之⁵⁷⁾와 學而知之⁵⁸⁾를 통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後生可畏⁵⁹⁾에서는 후세대이더라도 학습하면 언제든지 윗세대를 능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자기계발을 위해 배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성찰할 수 있다.

위의 성어 외에도 II장에서 작성한 학습요소를 바탕으로 다른 성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논어』에서 나타난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논어』에서 敎學 관련 성어를 살펴보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배움과 그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논어』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음은 PBL 교수법을 적용한 敎學과 관련한 성어의 수업지도안이다. 아래에서 구성한 지도안은 2차시 수업이다. 1차시 수업에서 이미 현대사회에서의 敎學과 관련한 문제를 찾고, 『논어』에서 추출한 敎學 관련 성어를 학습하였다고 가정하였다. 첫 번째 지도안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배움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수업을 고안하였다. 두 번째 지도안은 일반인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수업으로 작성하였다.

〈표 39〉 고등학생 대상 PBL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敎學’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57) 『論語』「述而」：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 敏以求之者也

58) 『論語』「季氏」：孔子曰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59) 『論語』「子罕」：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지식채널 e의 <실 패해도 괜찮아>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다. ◆ 학습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어』에 나타난 敎學 관련 성어를 이해한다. -『논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올바른 敎學의 자세를 찾아 내면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 시청 후, 입시를 위한 배움이 아닌, 자신의 꿈을 향한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한다. ◆ 학습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 	10분	문답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PPT, 동영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활동 1. PBL 수업과 『논어』 속 孔子의 교육법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어』에서 孔子의 교육 방법은 啓發敎育이다. 학습자 스스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깨우치는 자발적 활동이 중요하다. 학습자에게 PBL을 통하여 孔子의 啓發敎育 방법을 체험하게 한다. 2. 활동지를 배부하고 활동을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차시 수업 때 논의한 중·고교에서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과 『논어』에서 유래한 敎學 관련 성어를 복기하도록 한다. ② 『논어』에서 나타난 敎學 관련된 성어와 연결 지어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활동 1. PBL 수업에 대해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자의 교육방법인 문답법에 대해 이해한다. 2. 활동지를 받고 활동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둠별로 1차시 때 논의한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과 敎學 관련 성어를 복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어의 음·뜻, 번역 및 의미를 복기한다. ② 1차시에서 학습한 『논어』에서 나타난 敎學의 의미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35분	문답법, 문제 해결 중심 학습법	활동지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록 한다. -문답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수업 현장을 순회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둠을 돕는다.</p> <p>◆ 모둠별 발표 1. 모둠별로 활동한 사항을 발표하도록 한다. -모듬의 발표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한다.</p>	<p>-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바람직한 학습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의 성어를 활용한다. •예시① 下學上達 :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학습을 하기 전, 계열성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학습을 하며 이해 위주의 학습을 추구한다. •예시② 切問近思, 不恥下問 :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 방안으로 '일주일에 5번 이상 질문한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p> <p>◆ 모둠별 발표 1. 모둠별로 활동한 사항을 발표한다. -타 모듬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모듬에서 심화 학습한 『논어』에 나타난 敎學과 관련된 성어 외, 다른 성어도 학습한다.</p>			
정리 및 평가	<p>◆ 확인 학습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 ◆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p>	<p>◆ 확인 학습 -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 ◆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p>	5분	마무리	활동지

〈표 40〉 일반인 대상 PBL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敎學’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p>◆ 인사 ◆ 동기유발</p>	<p>◆ 인사 ◆ 동기유발</p>	10분	문답법,	동영상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평생 학습에 관한 내용의 지식채널 e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영상 시청하게 한다.</p> <p>◆ 학습목표 확인</p> <p>-『논어』에 나타난 敎學 관련 성어를 이해한다.</p> <p>-『논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안다.</p>	<p>-동영상 시청 후,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한다.</p> <p>◆ 학습목표 확인</p> <p>-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p>		웹기반 중심 학습법	
전개	<p>◆ 문제 해결 활동</p> <p>1. PBL 수업과 『논어』 속 孔子의 敎育법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한다.</p> <p>-『논어』에서 孔子의 敎育 방법은 啓發敎育이다. 학습자 스스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깨우치는 자발적 활동이 중요하다. 학습자에게 PBL을 통하여 孔子의 啓發敎育 방법을 체험하게 한다.</p> <p>2. 활동지를 배부하고 활동을 안내한다.</p> <p>① 1차시 수업 때 학습자가 문제 제기 한 평생학습 추구의 필요성과 敎學 관련 성어를 정리하도록 한다.</p> <p>② 『논어』에서 추출한 敎學과 관련된 성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학습의 중요성을 살펴보게 한다.</p> <p>-문답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p> <p>-수업 현장을 순회하며 어</p>	<p>◆ 문제 해결 활동</p> <p>1. PBL 수업에 대해 이해한다.</p> <p>-공자의 敎育방법인 문답법에 대해 이해한다.</p> <p>2. 활동지를 받고 활동을 한다.</p> <p>① 1차시 수업 때 문제 제기 한 평생학습 추구의 필요성과 『논어』에서 추출한 敎學 관련 성어를 복습한다.</p> <p>-성어의 음·뜻, 번역 및 의미를 복기한다.</p> <p>② 『논어』에서 유래한 敎學 관련 성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학습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p> <p>-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학습의 중요성에</p>	35분	문답법, 문제 해결 중심 학습법	활동지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려움을 겪는 모둠을 돕는다.</p> <p>◆ 발표 1. 활동한 사항을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한다.</p>	<p>대해 생각해 본다.'의 성어를 활용한다.</p> <p>●예시① 三十而立, 不惑 : 『논어』에서는 학습은 내면의 힘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p> <p>●예시② 生而知之, 學而知之 :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p> <p>●예시③ 後生可畏 : 후세대라도 학습을 하면 윗세대를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 발표 1. 활동한 사항을 발표한다. 타 학습자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신이 심화 학습한 『논어』에서 나타난 敎學과 관련된 성어 외 다른 성어도 학습한다.</p>			
정리 및 평가	<p>◆ 확인 학습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p> <p>◆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p>	<p>◆ 확인 학습 -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p> <p>◆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p>	5분	마무리	활동지

3. 易地思之를 위한 〈역할 놀이〉와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법

1) 역할 놀이 및 토의·토론하기를 적용하는 이유와 효과

역할 놀이는 학습자가 글의 내용과 연관된 상황이나 장면에 처해보도록 하거나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을 실행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법이다.⁶⁰⁾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흥미를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체험을 통해 의미가 구현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심화시킬 수 있다.⁶¹⁾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법은 학습자가 다양한 정보를 분석 및 평가하고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게 한다.⁶²⁾ 또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사고력이 확장될 수 있고, 토의·토론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비판적·논리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역할 놀이와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법에 적용할 성어는 孝悌와 관련된 성어이다. II장에서 분류한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와 관련된 성어는 7개이다. 『논어』에서는 孝悌를 仁을 행하는 근본⁶³⁾이라고 할 만큼 孝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논어』에서 孔子는 효의 실천 방법으로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방법을 말하였는데, 孝悌 관련 성어를 학습하면 孔子의 孝에 대한 사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가 비교적 적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孝悌 관련 성어가 수록되어 있다. 다양한 주제 중에서 孝悌의 성어가 있는 만큼 중·고교에서도 孝悌와 관련된 성어는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孝悌를 학습하는 것은 『논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지만 고령사회이기도 하다.⁶⁴⁾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학대, 노인혐오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

60)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23쪽 참조.

61) 류준경, 「2015 개정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의 소설 관련 교수-학습방법 구현양상 및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모색」, 『漢字漢文教育』 제1권 제45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8, 11쪽 참조.

62)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12쪽 참조.

63) 『論語集註』 「學而」: 若上文所謂孝弟 乃是爲仁之本 學者務此 則仁道自此而生也

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약 14.2%로 증가하였으며, 신고접수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020년 대비 약 8.2%가 증가하였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높았는데, 2021년 5,962건(88.0%)으로 높게 나타났다.⁶⁵⁾ 이러한 수치를 통해 孝悌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가정 내에서도 제대로 孝悌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올바른 孝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단편적인 노인에 대한 학대와 혐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무조건적인 아랫세대의 공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 어른에 대한 공경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마땅히 아랫세대에게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순돌·정주희·김미리(2016)⁶⁶⁾는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노인들을 포함한 다른 세대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세대 통합적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세대 갈등의 해소 방안으로 아랫세대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공경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논어』에서 孝悌와 관련된 성어를 추출하여 가르칠 때, 어른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경을 요구하는 교육방법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와닿지 않을 것이고, 『논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와 관련된 성어를 학습할 때, 현대적 관점

64) KOSIS 국가통계포탈에 의하면 2023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8.4%이다. 현재는 고령사회(14% 이상일 때 해당)이지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SIS 국가통계포탈에서 예측한 고령인구 비중도 해가 갈수록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65)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2, 18-24쪽 참조.

66) 정순돌·정주희·김미리,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勞而不怨이 나온 경문의 『논어 집주』를 살펴보면, 부모가 죄를 얻게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諫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화를 내고 기뻐하지 않아서 나의 종아리를 치고, 피가 흐르더라도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다.⁶⁷⁾ 만약, 부모의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및 공경만을 요구하였다면, 부모가 죄를 짓는 행실을 보고도 따라야 한다고 하였을 것이다. 이 경문을 통해 부모 혹은 윗세대의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만이 孝悌가 아님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논어』에서 말한 孝悌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하여 孝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孝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孝悌는 나 혼자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易地思之는 타인의 입장에 직접 처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역할 놀이를 교수학습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직접 부모 또는 어른이 되는 역할 놀이를 함으로써 孝悌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어』에서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하였다.⁶⁸⁾ 孝悌와 관련된 성어는 그 의미를 학습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 함양을 기대할 수 없다. 『논어』에서 말한 孝悌의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문 고전은 단순히 답습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孝悌의 의미와 실천 방법에는 차이가 있기

67) 『論語集註』「里仁」：勞而不怨 所謂與其得罪於鄉黨州閭 寧熟諫 父母怒不悅而撻之流血 不敢疾怨 起敬起孝也

68) 『論語』「爲政」：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때문에 토의·토론하기의 교수학습법이 『논어』에 담긴 孝悌와 관련한 성어를 학습하는 것에 효과적이다.

이처럼 역할 놀이를 통해 『논어』에서의 孝悌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여 생각하게 하고, 토의·토론하기를 통해 『논어』에서의 孝悌의 가치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직접 실천하게 함으로써 『논어』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역할 놀이 및 토의·토론하기를 활용한 수업지도안 예시

역할 놀이 교수학습법은 일반인보다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활동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대상의 3차시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1차시에서는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 관련 성어를 학습한다. 이때, 문답법을 적극 활용한 강의식 수업,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2차시에서는 모듈별로 1차시에서 학습한 성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성어의 의미를 담은 5분~10분의 역할 놀이를 구성한다. 모듈별 역할 놀이 발표가 끝난 후, 타 학습자들은 해당 모듈이 역할 놀이에 사용한 성어를 맞추도록 한다. 역할 놀이 중 어떤 부분에서 성어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났는지를 함께 발표한다. 역할 놀이를 구성한 모듈은 역할 놀이 대본을 작성하고, 직접 시연하는 과정에서 성어의 의미와 성어를 추출한 『논어』를 이해할 수 있다. 타 학습자들은 다른 모듈의 발표를 보며 자신의 모듈에서 준비한 성어 외, 다른 성어도 심화 학습할 수 있다.

역할 놀이에서는 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현대사회에서 孝悌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의 성어를 易地思之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遊必有方⁶⁹⁾은 자식과 부모의 상황을 대조적으

69) 『論語』 「里仁」：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로 보여주는 장면을 구성할 수 있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犬馬之養⁷⁰⁾의 경우, 현대사회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논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부모, 자식, 반려동물 등의 역할을 등장시켜서 역할 놀이를 구성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기를 때와 부모에게 봉양하는 것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역할 놀이를 창작할 수 있다. 더불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때의 중요한 점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와 반려동물을 기를 때의 차이점이 나타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논어』의 내용을 이해하게 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孝悌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할 수 있다.

3차시에서는 2차시에서 한 역할 놀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孝悌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역할 놀이를 보며 깨달은 『논어』에서의 성어의 의미와 연결 지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孝悌의 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은 2차시로 구성하였다. 먼저, 1차시 수업에서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와 관련된 성어들을 학습하도록 한다. 2차시 수업에서는 토의·토론하기 활동을 통해 孝悌 관련 성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토의·토론하기에서는 孝悌 관련 성어의 시의성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현대사회에서도 유의미한지, 성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윗세대와 아랫세대 각각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孝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수업 이후, 토의·토론을 통해 산출한 孝悌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천하고, 다시 수업 시

70) 『論語』「爲政」：子遊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犬馬之養은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논어집주』를 저본으로 하므로 주어는 사람으로, 목적어를 犬馬로 하여 ‘사람이 犬馬를 기른다’라고 해석한다.

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새로운 차시의 수업 전, 전시학습 복습 시간에 각자 실천한 孝悌의 방법과 그때의 생각, 그 이후의 달라진 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논어』에서 말한 孝悌의 태도를 직접 행동함으로써 학습자의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논어』를 의미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토의·토론의 주제로는 성어를 학습한 후, 학습자가 성어에서 주제를 추출한 다음 투표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本立道生⁷¹⁾과 君子務本⁷²⁾을 통해서는 『논어』에서는 孝悌를 근본으로 삼았는데, 현대사회에서도 孝悌가 근본인지에 대한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 활동을 통해 孝悌의 가치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勞而不怨⁷³⁾을 통해서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孝悌의 태도에 대한 주제로 토의·토론을 할 수 있다. 부모님 및 어린 세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및 복종이 孝悌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더불어, 아랫세대의 孝悌에 대한 윗세대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위의 성어 외에도 II장에서 분석한 孝悌 관련 성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활동은 그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논어』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음은 역할 놀이와 토의·토론하기의 수업지도안이다. 아래에서 구성한 역할 놀이 수업지도안과 토의·토론하기 수업지도안은 2차시 수업이다. 1차시 수업에서 이미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 관한 성어와 성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경문을 학습하였다고 가정하였다. 역할 놀이는 중·고교 학생을 대상의 50분 수업으로 작성하였고, 토의·토론하기는 중·고교 학생과

71) 『論語』「學而」：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72) 『論語』「學而」：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73) 『論語』「里仁」：子曰 事父母 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으로 작성하였다.

〈표 41〉 중·고등학생 대상 역할 놀이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孝悌’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전시학습 복습 -1차시 때 학습한 성어를 상기시킨다. ◆ 학습목표 확인 -성어를 통해 孝悌의 다양한 방법을 이해한다. -역할 놀이를 통해 『논어』에서의 孝悌의 의미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전시학습 복습 -1차시 때 학습한 성어의 의미를 복습한다. ◆ 학습목표 확인 -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 	5분	문답법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놀이 실연 1. 모듈별로 준비한 역할 놀이를 시연하게 한다. -교사는 역할 놀이가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하며, 각 역할 놀이마다 피드백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놀이 실연 1. 모듈별로 준비한 역할 놀이를 시연한다.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 관련 성어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시연한다. -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현대사회에서 孝悌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의 성어를 활용할 수 있다. ●예시① 遊必有方 : 부모와 자식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상황에 이입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예시② 犬馬之養 : 반려동물을 기를 때와 부모에 대한 봉양 또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차이점을 나타내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孝 	40분	문답법, 협동 학습법, 역할 놀이 학습법	활동지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2. 역할 놀이가 끝나면, 발표 모둠이 어떤 성어를 표현하였는지 타 학습자들이 발표하도록 한다.</p> <p>-성어의 의미와 연결지어 느낀 바를 발표한다.</p> <p>-발표 모둠은 역할 놀이를 준비하며 깨달은 바를 발표하도록 한다.</p>	<p>梯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p> <p>2. 역할 놀이가 끝난 후, 발표 모둠에서 나타난 성어가 무엇인지 발표한다.</p> <p>- 타 학습자들은 역할 놀이를 보며 들었던 생각도 함께 발표한다.</p> <p>-발표 모둠은 역할 놀이를 구성하며 깨달은 바를 발표한다.</p>			
정리 및 평가	<p>◆ 확인 학습</p> <p>-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p> <p>◆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p>	<p>◆ 확인 학습</p> <p>-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p> <p>◆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p>	5분	마무리	활동지

〈표 42〉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孝悌’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p>◆ 인사</p> <p>◆ 학습목표 확인</p> <p>-『논어』에서 추출한 孝悌 관련 성어를 이해한다.</p> <p>-현대사회에서 필요한 孝悌의 자세를 학습한다.</p>	<p>◆ 인사</p> <p>◆ 학습목표 확인</p> <p>-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p>	5분	문답법	PPT
전개	<p>◆ 토의·토론하기 활동</p> <p>1. 활동지를 배부하고 활동을 안내한다.</p> <p>① 1차시 때 학습한 孝悌 관련 성어를 복습하도록 한다.</p> <p>②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 관련 성어의 의미를 바탕</p>	<p>◆ 토의·토론하기 활동</p> <p>1. 활동지를 받고 활동을 한다.</p> <p>① 1차시 때 학습한 孝悌 관련 성어를 복습한다.</p> <p>-성어의 음·뜻, 번역, 의미를 복기한다.</p> <p>②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 관련 성어의 의미에 대한</p>	40분	문답법, 토의·토론하기	활동지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으로 토론 주제를 작성하게 한다.</p> <p>-수업 현장을 순회하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돕는다.</p> <p>-발표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한다.</p> <p>③ 발표를 통해 선정한 주제로 토론을 하게 한다.</p> <p>-소외되는 학습자가 없도록 지도한다.</p>	<p>이해를 바탕으로 토론 주제를 작성한다.</p> <p>-발표를 통해 토의·토론 주제를 선정한다.</p> <p>③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와 관련된 성어에서 추출한 주제로 토론을 한다.</p> <p>-성어의 시의성 여부 확인, 현대사회에 필요한 孝悌의 태도 등에 대해 토론한다.</p> <p>●예시① 本立道生, 君子務本 : 현대사회에서도 孝悌가 근본인지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한다.</p> <p>●예시② 勞而不怨 : 현대사회에서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孝悌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토의·토론한다.</p>			
정리 및 평가	<p>◆ 확인 학습</p> <p>-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p> <p>◆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p>	<p>◆ 확인 학습</p> <p>-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p> <p>◆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p>	5분	마무리	활동지

Ⅳ. 온라인 교육에서의 ‘修養’·‘言行’과 관련한 성어 교수학습법

1. 온라인 교육의 대두와 개발 필요성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공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며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ZOOM·Google Meet 등 화상 회의 플랫폼을 사용한 온라인 교육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온라인 교육은 존재했다. 김용재(2023)⁷⁴⁾는 2000년 미국 MIT에서 시작한 OCW(Open Course Ware)가 온라인 교육모형의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이후 2012년 ‘코세라’와 ‘에덱스’ 등, MOOC⁷⁵⁾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실질적인 서막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교육은 존재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더욱 각광받은 것이다. 노일경·정혜령·우영희(2021)⁷⁶⁾도 온라인교육이 고등교육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만 촉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대학에서의 온라인 교육 시행에 대한 강조는 감염병 상황 이전부터 있었던 사회변화의 흐름과 이에 대한 대학의 대응 역할, 즉 디지털 시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대학 혁신의 과제와 전략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사회적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74) 김용재, 「K-MOOC 강좌의 ‘효율성’과 ‘이수율’ 제고를 위한 제언: ‘대학 교양수업(한자어)’과의 연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86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3.

75) 온라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이다.

76) 노일경·정혜령·우영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교육의 뉴노멀로서 온라인교육 시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온라인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실시간 형태의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시간적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학습자가 편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성이 있다.⁷⁷⁾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약 3년이 지난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던 수업들이 다시 대부분 오프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확대될지언정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것이고, 현재보다 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에서의 교수학습법이 개발될 것이다. 이에 한문교육도 오프라인에서의 교수학습법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한문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대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강의가 있다. 그중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한국고전번역원,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당, 한국형 온라인 강좌인 KMOOC 등이 있다. 박수밀·김혜진(2022)⁷⁸⁾은 학교 밖 디지털을 활용한 한자한문 교육의 현황으로 VOD를 활용한 한자·한문교육, 실시간 화상 강의를 활용한 한자·한문교육, 앱(App)을 활용한 한자·한문교육을 소개하였다.⁷⁹⁾ 교육내용으로는 전통문화연구회와 한국고전번역원을 제외하면 급수 한자와 생활 한자어를 익히는 실용적인 프로

77) 조수선·주라헬, 「온라인 학습 환경의 편리성이 학업성취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21, 228-229쪽 참조.

78) 박수밀·김혜진, 「4차 산업혁명 시대 학교 밖 漢字·漢文 교육의 실태와 방향」, 『한문교육논집』, 5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22.

79) VDO의 경우, 인터넷 동영상(사이버 서당, EBS)과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였고, 실시간 화상 강의는 실시간 스트리밍(전통문화연구회의 고전연수원)과 줌(ZOOM) 화상 수업을 제시하였다. 앱을 활용한 교육에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앱인 고구마,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앱인 『논어』, 귀로 듣는 『논어』 등을 제시하였다.

그램이 많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한문을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강하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경문 등의 내용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수밀·김혜진(2022)⁸⁰)는 현재 학교 밖 한문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자·한문교육 프로그램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한 인지도를 갖춘 사이트가 많지 않아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개인 사이트는 찾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한문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한문교육을 개발할 때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일단,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에 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힘들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 의지가 중요하다. 학습자의 학습 의지가 떨어지면 학습률 또한 떨어지는데,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 성취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점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사람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문교육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공간과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외, 새로운 플랫폼과 교육 내용의 탐색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한문교육의 공간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나 필요한 내용을 학습 내용으로 삼는다면, 온라인에서의 한문교육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One-Day Class〉를 활용한 교육공간 개발

1) One-Day Class를 적용하는 이유와 효과

80) 박수밀·김혜진, 「4차 산업혁명 시대 학교 밖 漢字·漢文 교육의 실태와 방향」, 『한문교육논집』, 5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22.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 강의 외,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2절에서는 새로운 교육공간으로 온라인 One-Day Class⁸¹⁾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인터넷 강의를 통한 한문교육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정된 플랫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이 거의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한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한문교육의 채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둘째, 기존의 인터넷 강의는 대개 몇 차시 이상의 수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한문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이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 의지가 필요하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학습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데, 현재는 일방적인 강의 위주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온라인 One-Day Class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One-Day Class는 한문 또는 『논어』에 흥미가 생겼을 때, 하루 동안 체험처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수업과 연계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면 학습자의 흥미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One-Day Class를 활용해 한문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면, 이후 다른 형태의 한문교육 수업의 수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One-Day Class는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시행되지만, 본고에서는 온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것과 현대사회에서는 One-Day Class 외에도 다양한 수업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호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온라인에서의 교육이 학

81) One-Day Class란 하루의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배워보는 일회성 수업이다. 취미 생활을 배우거나, 엑셀 등 전문적인 분야를 배울 수도 있다.

습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는 『논어』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어를 활용하였다. 처음 『논어』에 관심이 생겨 수강을 희망할 때 오프라인 One-Day Class의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생겨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실행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본고에서는 『논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성어를 선택한 만큼, 사람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논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논어』에서 유래한 修養 관련 성어를 활용하여 One-Day Class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II장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는 총 11개이다. 주제별로 분류한 성어 중 비교적 많은 수에 해당한다. 또한, 중·고교 교과서에도 修養과 관련한 성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만큼 『논어』에서도 修養을 많은 부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어』에서 말하는 孝悌를 하는 방법, 敎學을 하는 방법 등은 결국 修養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기성찰을 통해 修養을 꾀하면, 다른 사항에 접목하여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처럼 修養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논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더욱 접근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부, 업무 등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자기성찰의 기회가 부족하다. 현대에서는 휴식 시간에 대부분 각종 SNS 등을 통해 자극적인 매체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휴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팝콘브레인⁸²⁾ 현상을 일으킨다. 이것 외에 현대인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수양을 통한 자기 발전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가나 명상 등 자기

82) 첨단 디지털기에 익숙해져서 뇌가 현실에 무감각 또는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장승영·정향, 「팝콘브레인 현상에 대한 지각예술작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8권 제4호, 한국전자통신학회, 2013, 518쪽 참조.)

수양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One-Day Class를 활용하여 修養 관련 성어의 학습을 통한 수양의 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단순히 성어를 통해 학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One-Day Class 수업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체득하도록 한다.

1차시 수업에서는 『논어』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를 학습하며, 본인이 정신건강 및 자기 발전을 위해 수양을 하고 있는지, 수양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짧은 글 짓기⁸³⁾와 성찰 일지 쓰기⁸⁴⁾ 활동하여 개인을 성찰해 보는 교수학습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2차시에는 1차시 때 작성한 성어를 활용하여 캘리그래피를 학습한다. 3차시 수업에서는 직접 작품을 만들고 그 안에 1차시와 2차시에서 학습한 『논어』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를 캘리그래피로 작성하는 것이다. 작품을 집 안에 두고 관찰함으로써 지속해서 『논어』에서 배운 修養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가 『논어』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修養 관련 성어를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하게 함으로써 『논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2) One-Day Class를 활용한 수업지도안 예시

타 One-Day Class 수업과 연계하여 총 3차시의 수업을 개발하였다. 그중 『논어』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가 1차시 수업이다. 도입 단계에서는 자

83) 학습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 등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게 함으로써 그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14쪽 참조.)

84) 학습한 명언·명구 중 한 문장을 골라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성찰 일지를 쓰는 활동이다.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16쪽 참조.)

기 수양을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더불어 스마트폰을 하며 자극적인 영상과 게시물을 보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것을 통해 수양의 필요성과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수양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논어』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를 학습한다. 이때, 교사의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되 孔子의 교육방법이기도 한 문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 성어 학습이 끝난 후, 학습자의 짧은 글 짓기 혹은 성찰 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성어 학습을 심화한다. 도입 단계에서 한 자기 성찰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논어』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논어』에 나타난 修養의 의미를 활용하여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修養의 방법을 작성하고, 개별 발표를 한다.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내가 작성한 성어 외, 다른 성어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새로운 修養의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때, 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에서 ‘현대사회에서 수양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와 ‘올바른 수양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학습요소 중 하나인 三省吾身⁸⁵⁾의 경우, 하루에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했을 때의 장점을 통해 수양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논어』에서 자신을 반성할 때 사용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제 하루에 세 가지로 반성을 해보며 『논어』의 의미를 체득하게 할 수 있다. 不捨晝夜⁸⁶⁾을 통해서도 밤낮을 쉬지 않고 수양해야 되는 이유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수양의 필요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요소인 過則勿憚改⁸⁷⁾과 反求諸己⁸⁸⁾를 통해서도 수양의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過則勿憚改에 대해서 『논어』에서는 스스로 다

85) 『論語』 「學而」：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86) 『論語』 「子罕」：子在川上 曰 逝者如斯夫 不捨晝夜

87) 『論語』 「學而」：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88) 『論語』 「衛靈公」：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스리는 것이 용감하지 못하면 뉘이 나날이 자라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어』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過則勿憚改의 이유를 찾도록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도록 할 수 있다. 反求諸己를 통해서도 남 탓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고쳐야 하는 이유를 찾음으로써 올바른 修養의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성어 외에도 II장에서 修養으로 분류한 다른 성어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논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득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논어』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차시 수업에서는 자신이 정한 성어로 캘리그래피를 작성하는 One-Day Class를 구성한다. 캘리그래피에 필요한 도구 및 체본은 키트로 받으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다. 영상을 시청하며 따라서 캘리그래피를 작성하고, 완성된 개인 작품을 온라인상에 업로드를 한다. 이때, 캘리그래피로 작성한 『논어』에서 유래한 修養 성어의 의미와 해당 성어를 선택한 이유를 함께 올린다. 투표 및 댓글을 통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제고시킬 수 있다.

3차시 수업에서는 드림캐쳐, 무드등, 도자기 등과 같은 작품을 제작한 후 2차시에서 연습한 성어의 캘리그래피를 추가로 작성하여 완성하도록 한다. 이 역시 키트로 우송을 받으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차시에서 제작한 것을 집 안 등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논어』에서 말한 修養의 의미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논어』를 이해하고 체득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표 43〉 One-Day Class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修養’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p>◆ 인사</p> <p>◆ 동기유발 -휴식이 필요함을 알게 하는 지식채널 e의 <우리가 ‘멍 때리기’를 해야 할 과학적 이유>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다.</p> <p>◆ 학습목표 확인 -『논어』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를 이해한다. -修養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修養의 방법을 이해한다.</p>	<p>◆ 인사</p> <p>◆ 동기유발 -동영상을 시청하며 휴식의 필요성과 올바른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성찰한다.</p> <p>◆ 학습목표 확인 -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p>	7분	문답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PPT, 스마트 기기
전개	<p>◆ 성어 학습 1. 강의 및 학습지를 통해 『논어』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를 가르친다. -성어의 의미와 성어가 유래한 경문을 소개한다. -강의식으로 하되, 孔子의 교육방법인 문답법을 활발히 사용한다.</p> <p>◆ 글 짓기 활동 1. 학습한 성어를 활용하여 짧은 글 짓기 혹은 성찰일지 쓰기 활동을 하게 한다. -수업 현장을 순회하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돕는다.</p>	<p>◆ 성어 학습 1. 학습지를 통해 강의를 들으며 『논어』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를 학습한다. -성어의 의미와 성어가 유래한 『논어』를 이해한다.</p> <p>◆ 글 짓기 활동 1. 학습한 성어 중, 자신에게 필요한 修養의 의미가 담긴 성어를 선택하여 글을 작성한다. -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현대사회에서 수양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와 ‘올바른 수양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를 활용한다. -도입 단계에서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어』에서 추출한 修養 관련 성어를 하나</p>	38분	문답법, 강의법, 반성적 글쓰기 학습법	PPT, 스마트 기기, 활동지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 발표하기</p> <p>1. 활동한 것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게 한다. - 소외되는 학습자가 없도록 지도한다. - 발표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한다.</p>	<p>선택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수양과 자기 발전을 위한 수양 방법을 작성한다.</p> <p>● 예시① 三省吾身, 不畚晝夜 : 『논어』에서 말한 수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수양의 필요성에 대해 글을 작성하게 한다.</p> <p>● 예시② 過則勿憚改, 反求諸己 : 『논어』에서 제시한 수양의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수양의 자세를 작성하도록 한다.</p> <p>◆ 발표하기</p> <p>1.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발표한다. - 타 학습자의 발표를 들으며, 다른 성어의 의미도 심화 학습한다.</p>			
정리 및 평가	<p>◆ 확인 학습</p> <p>-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p> <p>◆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p>	<p>◆ 확인 학습</p> <p>- 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p> <p>◆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p>	5분	마무리	스마트 기기, 활동지

3. <메타버스> 를 활용한 AI 기술 교수법 개발

1)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이유와 효과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AI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Universe)의 합성어이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1992년 닐 스텝슨(Neil Stephens)

on)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메타버스의 유형으로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가 있다. 국내에는 메타버스를 구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제페토(ZEPETO)가 있다.⁸⁹⁾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랫폼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는 등⁹⁰⁾ 현대사회에서 메타버스는 이미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 대학교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입학식을 진행하였고, 메타버스를 교육에 접목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가 갖는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는 공간 이동, 참여자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공간 실재감, 그리고 현실 세계를 반영한 공간 구성 및 아바타 생성 등의 특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과 실재감을 높이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메타버스를 통해서 고비용, 고위험, 시·공간의 제약, 인간의 신체 및 감각기능 등의 제한 등으로 경험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할 수 있다. 셋째,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실감기술과 직접 창조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을 증가시키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⁹¹⁾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교육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학습자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한문교육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논어』의 교수학습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메타버스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논어』에서 추출한 言行과 관련한 성어를 교육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 분류한 언행 관련 성어는 총 15개이다. II장에서 주제별로 분류한 성어 중

89) 한송이·김태중, 「메타버스 뉴스 빅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제7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1092쪽 참조.

90) 한때 SNS에서 ‘본디(Bondee)’라는 메타버스 기반의 앱이 유행하였다.

91) 김세영·임유진·김보경·이예경,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교수학습방법별 교수활동 도출 및 타당화」,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23, 232쪽 참조.

에서 개수가 상위권에 속하는만큼 『논어』에는 言行과 관련한 내용이 자못 많다. 또한, 『논어』는 인물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논어』 자체가 그 당시 언어의 기록인 것이다. 言行과 관련된 성어를 학습하는 것은 『논어』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익힐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논어』의 구성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言行은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는 온라인의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안에서의 言行도 중요해졌다. 익명을 방패 삼아 악플을 달고, 채팅창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사회 내 심각한 문제이다. 이희옥(2022)⁹²⁾은 메타버스가 가져올 인간의 자유로운 세계 구현에 독이 되는 문제점 중 하나로 혐오·차별과 같이 적대성을 드러내는 언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폭행 행위가 아니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인격 모독, 가상공간에서의 따돌림 현상으로 확대되거나 현실 세계와 연계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채팅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실제 가상 캐릭터로 움직이며 활동하는 가상 세계인 만큼 그 안에서의 언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며 온라인의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언행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AI 기술을 활용한 공간에서의 언행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논어』에 나타난 언행을 배울 수 있는 『논어』에서 추출한 言行 관련 성어가 메타버스 교수학습법에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논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92) 이희옥,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지도안 예시

메타버스 교수학습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 환경 설정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공간을 제작한다. 학습할 성어마다 각각의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타 학습자와 이야기를 통해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메타버스를 소개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한 태블릿 PC 사용방법과 유의점, 학습 단계를 공지한다. 관련 내용을 공지로 띄워서 학습자들이 활동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각 성어의 방에 입장하여 『논어』에서 추출한 言行과 관련된 성어를 학습한다. 방에 모인 학습자간 의견 공유를 통해 성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다. 이때, 온라인상에서 언행과 관련한 자기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며 『논어』에서 말한 성어의 의미를 내면화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다른 방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개의 성어를 학습하는 동안 해당 성어의 의미와 온라인상에서 언행의 유의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도 함께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모든 성어를 학습한 후, 모든 학습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온다. 『논어』에서 추출한 言行 관련 성어를 통하여 깨달은 온라인상에서의 言行의 중요성과 올바른 言行의 자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습한 성어와 연결 지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言行에 대한 다짐을 발표하도록 한다.

이 교수학습법에는 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의 성어를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오프라인에서의 언행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한 『논어』에서 추출한 言行 관련 성어와 연관 지어 온라인상에서의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온라인은 면대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며 익명으로 만나는 곳이고,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하지 못했던 용감한 행동이 아닌,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暴虎馮河⁹³⁾와 死而無悔⁹⁴⁾를 통해서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측해 보며 온라인상에서도 신중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 駟不及舌⁹⁵⁾과 放言高論⁹⁶⁾을 통해서 익명의 뒤에서 근거 없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의 문제점을 성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주의해야 할 언행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성어 외에도 II장에서 言行으로 분류한 성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온라인에서의 언행과 관련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논어』에 대한 접근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다음은 言行과 관련한 성어를 AI 기술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지도안이다. 아래에서 구성한 지도안은 1차시 수업이다. 이 교수학습법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에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표 44〉 메타버스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言行’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동기유발 -메타버스 소개 뉴스 시청 -메타버스 사용법 및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동기유발 -메타버스 사용법을 익힌다. 	5분	문답법,	PPT,

93) 『論語』「述而」：子路曰 子行三軍 則誰與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

94) 『論語』「述而」：子路曰 子行三軍 則誰與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

95) 『論語』「顏淵」：棘子成曰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 君子也 駟不及舌 文猶質也 質猶文也 虎豹之鞞猶犬羊之鞞

96) 『論語』「微子」：逸民 伯夷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少連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謂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謂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清 廢中權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점 소개한다.</p> <p>◆ 학습목표 확인</p> <p>-『논어』에서 추출한 言行 관련 성어를 이해한다.</p> <p>-온라인상에서 필요한 言行을 학습한다.</p>	<p>◆ 학습목표 확인</p> <p>-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p>		웹기반 중심 학습법	스마트 기기
전개	<p>◆ 메타버스 접속 및 활동</p> <p>1. 메타버스 공간 속 『논어』에서 추출한 言行 관련 성어를 학습할 수 있는 각각의 방에 접속하여 학습하게 한다.</p> <p>-성어의 의미에 대해 학습자 간 의견을 공유하며 학습하도록 한다.</p> <p>-성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게 한다.</p> <p>-수업 현장을 순회하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돕는다.</p> <p>2. 모든 성어를 학습한 후, 온라인 상에서의 言行의 중요성과 올바른 言行의 자세를 발표하도록 한다.</p> <p>-모든 학습자가 모여있는 방에서 활동을 진행한다.</p> <p>-『논어』와 연결 지어 생각하도록 한다.</p> <p>-소외되는 학습자가 없도록 지도한다.</p> <p>-발표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한다.</p>	<p>◆ 메타버스 접속 및 활동</p> <p>1. 메타버스 속 각 성어의 방에 입장하여 학습한다.</p> <p>-각각의 방에서 『논어』에서 추출한 言行 관련 성어를 학습한다.</p> <p>-학습자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성어의 의미를 파악한다.</p> <p>-『논어』에서 추출한 言行 관련 성어와 관련하여 자신의 온라인상에서의 言行 관련 경험을 함께 제시한다.</p> <p>-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논어』에서 추출한 言行 관련 성어를 학습한다.</p> <p>2. 言行과 관련한 성어를 모두 학습한 후, 온라인에서 필요한 言行을 생각한다. 이를 학습한 성어와 연결 지어서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言行에 대한 다짐을 발표한다.</p> <p>-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바람직한 언행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의 성어를 활용할 수 있다.</p> <p>●예시① 暴虎馮河, 死而無悔 : 온라인상에서 무모한 행실에 대해 성찰을 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행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p>	40분	문답법, 메타버스 학습법	스마트 기기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② 駟不及舌, 放言高論 : 『논어』에서 말한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소문의 빠른 확산의 이유와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올바른 언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 ◆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 ◆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 	5분	마무리	스마트 기기

V.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에서의 ‘友情’·‘政治’와 관련한 성어 교수학습법

1.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

아직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많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은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현시점에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의 하나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에서의 교수학습법이다. 학습자들의 한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종이로 된 아날로그 텍스트보다는 학습자가 삶에서 많이 접하는 여러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⁹⁷⁾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영상 시청, 퀴즈, 콘텐츠 만들기 등의 수업은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교수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소수의 학생만 발표하는 등 모든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모든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사용률은 높다.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라고 하였다.⁹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을 보면, 디지털기기 종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스마트폰 보유율이 전체의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노트북이 85.1%, 원격수업용 TV가 72.5%로 확인

97) 정동운, 「디지털 매체(콘텐츠,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의 한자, 한문교육」, 『한문교육논집』 제5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22, 175쪽 참조.

98) 고태영,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 보급률 1위 국가는?」, KBS NEWS, 2019.02.1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35732>)

되었다. 태블릿 PC 보유율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1.3%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도 디지털기기 보유 현황에 있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유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⁹⁹⁾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수업을 적절하게 구안하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하도록 제시하였다.¹⁰⁰⁾ 디지털 도구 및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사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그림·만화 활용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진로 선택 과목인 한문 고전 읽기에서는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료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자료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라고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¹⁰¹⁾

이처럼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스마트 기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법에 디지털 매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한 곳에서만의 교육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함께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99) 강선경·최윤, 「코로나 19 시대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교육매체 활용방안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7권 제2호, 한국웰니스학회, 2022, 27쪽 참조.

100) 디지털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수업 중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한문’ 학습에 적합한 문자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28쪽 참조.)

101) [12한고01-05] 이 성취기준은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거나 확장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료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자료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디지털 자료나 매체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적 성격을 띤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나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원문 및 유관 자료를 검색하고 목적에 맞는 형태로 조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글의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고 감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 내용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37-38쪽 참조.)

2.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능동적 참여 학습

1) 스마트 기기인 태블릿 PC를 적용하는 이유와 효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생은 포함한 일반인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태블릿 PC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디지털+벗의 줄임말인 디벗¹⁰²⁾을 2022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¹⁰³⁾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은 학습자 활동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정동운(2022)¹⁰⁴⁾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 특히 영상 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실생활과 연결된 영역에서 한자, 한문 학습이 삶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한자, 한문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의의가 있다고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 중 友情·인간관계 관련 성어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장에서 분류한 『논어』에서 友情·인간관계에 관련한 성어는 총 11개이다. 주제별 성어 중 상대적으로 높은 개수인 만큼 『논어』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중·고교 교과서에는 비록 『논어』에서 추출하여 友情·인간관계와 관련한 성어는 없지만, 고사성어 중에는 友情과 관련한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¹⁰⁵⁾ 그만큼 중

102) 2022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육용 스마트기기이다. (서울교육, 2021 겨울호(245호),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어떤 정책인가요?)

103) 박규빈, 「1인 1스마트 기기 서울교육청 '디벗 사업', 초등학생 확대 검토」, 미디어펜, 2022.07.17. (<http://www.mediapen.com/news/view/738664>)

104) 정동운, 「디지털 매체(콘텐츠,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의 한자, 한문교육」, 『한문교육논집』 제5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22.

105) 管鮑之交, 金蘭之契, 伯牙絕絃 등이 수록되어 있다.

· 고교에서 友情·인간관계에 관한 성어는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논어』에서도 友情·인간관계와 관련한 성어를 추출하여 교수학습법에 활용하고자 한다.

『논어』에서 말하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어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은 결국 모두 인간관계를 나타낸다. 인간관계 안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孝가 필요한 것이고, 忠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논어』를 인간관계의 寶庫라고 하기도 하니, 友情·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은 『논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友情·인간관계와 관련한 성어는 『논어』의 내용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논어』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友情·인간관계는 현대사회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먼저, 중·고교 학교 현장 내 따돌림은 심각한 문제이다. 코로나19 이후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2019년 8.6%에서 2021년에는 9.8%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상에서 다양화·복합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¹⁰⁶⁾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만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핸드폰 채팅창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도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강 형식의 일회성 교육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오희정(2022)¹⁰⁷⁾에 의하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유형의 학교 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106) 교육부,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22, 4쪽 참조.

107) 오희정, 「학교 급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1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였다. 윤태현(2017)¹⁰⁸⁾은 학교에서는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¹⁰⁹⁾, 이미 대다수의 학교 관계자는 이를 실시하는 것에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하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및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특강, 연수 형식의 교육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한문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방법은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은 올바른 우정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다. 『논어』에서 언급한 友情·인간관계와 현대사회에서의 友情·인간관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논어』에 담긴 가치가 현대에서도 유효한 가치인지 등을 고찰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우정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학습자 스스로 올바른 우정관계란 무엇인지, 우정관계에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중·고교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학교 내부에서 맺는 학생들끼리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에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학교 내, 올바른 우정관계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학교 밖, 사회로 나아갔을 때 겪는 여러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108) 윤태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검토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09)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2023.05.31.)

友情·인간관계 관련 성어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에 가장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友情·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성어의 의미가 담긴 제작물을 만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관찰하며 내면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孝悌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왜 友情·인간관계 관련 성어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에 더 적합한가? 孝悌를 실천하는 공간은 계속 변화한다. 가정, 사회 등 孝悌의 실천이 필요한 공간과 대상은 자주 바뀐다. 반면에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거의 동일한 인물을 마주한다. 우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작물을 계속 눈에 띄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바로 실천할 수 있고,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수학습법에 효과적이다. 태블릿 PC를 활용하면 제작물을 만들 때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아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시각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성어에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강의가 많은데, 이것을 통해 현대인들은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간관계 고민에 대한 해답을 『논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타인과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신문, 영상 등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2장에서는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퀴즈 참여, 제작물 만들기 등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논어』의 성어 교수학습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스마트 기기인 태블릿 PC를 활용한 수업지도안 예시

중·고교 학생 때는 생애 모든 나이대 중 가장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친구와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시기이다. 일반인은 친구관계를 넘어 사회에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으므로 중·고교 학생과 일반인 모두에게 友情·인간관계에 관한 성어를 학습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들에게 동일한 성어로 가르치지만, 교육장소나 나이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법을 나누어 개발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학습한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의 내용이 담긴 제작물을 만드는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먼저, 1차시에서 『논어』에서 추출한 友情 관련 성어들을 학습한다. 이때, 문답법을 적극 활용한 강의식 수업,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2차시 전시학습 단계에서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게임을 진행하여 1차시에서 학습한 성어를 복습한다. 교사가 카훗¹¹⁰⁾을 통해 학습한 성어 관련 퀴즈를 출제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태블릿 PC로 접속하여 문제를 풀며 동기유발 및 전시학습 복습을 한다. 카훗을 활용하여 성어의 독음, 의미 등을 O·X 문제, 선다형 문제 등으로 낸다. 전개 단계에서는 1차시에서 학습한 友情 관련 성어가 현대사회에서도 유의미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성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그 이후에는 나에게 도움되는 내용의 성어를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작성한다. 더불어 해당 성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슬로건 형태로 짧지만, 그 안에 의미가 담기도록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한다. 앞면에는 성어를 포함한 슬로건을 작성하고, 뒷면에는 성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작성하게 한다.

활동이 끝난 후, 자신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타 학습자의 결과물을 경청하

110) 카훗은 교수자가 퀴즈 문제를 올리면 학습자들은 각자의 스마트기기로 접속하여 문제를 푸는 게임 앱 기반의 플랫폼이다. (강영돈, 「게임앱 기반 스마트교육을 위한 수업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인문사회21』 제10권 3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1620쪽 참조.)

며 자신이 선택한 성어 외, 다른 성어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본다. 수업 이후에 교사는 학습자가 태블릿 PC로 제작한 슬로건을 프린트하여 배부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슬로건을 삼각 종이 형태로 접어서 책상에 부착한다. 평소 학교 생활을 하며 해당 글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개 단계에서 성어가 현대사회에서도 유의미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볼 때는 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올바른 우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논어』에서 말한 우정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올바른 우정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久而敬之¹¹¹⁾를 통해서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오래 사귀어도 공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찰하게 할 수 있고, 이 성어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益者三友¹¹²⁾에 대해서 『논어』에서는 정직하고, 信實하고, 견문이 넓은 친구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였다. 이같이 『논어』에서 말한 유익한 세 부류의 벗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를 ‘나’로 하여 내가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는 것보다 자신부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損者三友¹¹³⁾에 대해서 『논어』에서는 겉치레만 하고, 아침을 잘하며 말만 잘하는 친구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 성어를 학습할 때 먼저 『논어』에서 말한 손해가 되는 세 부류의 벗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친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11) 『論語』「公冶長」：子曰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

112) 『論語』「季氏」：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113) 『論語』「季氏」：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以文會友¹¹⁴⁾의 경우, 『논어』에서는 學問에 뜻을 둔 친구를 모은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學問만이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논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친구를 사귈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고찰하게 할 수 있다.

『논어』에서 추출한 友情 관련 성어를 단순히 학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성어의 의미를 포함한 실제 생활 속에서의 실천 방안을 작성하여 실천함으로써 『논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논어』를 이해하는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먼저, 1차시에서 『논어』에서 추출한 인간관계에 관한 성어를 학습하게 한다. 중·고등학생 대상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문답법을 적극 활용한 강의식 수업,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2차시 도입 단계에서는 카훗을 이용한 게임을 통해 전시학습을 복습하도록 한다. 이후, 태블릿 PC를 활용해 학습한 성어의 의미와 시의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패들렛(Padlet)¹¹⁵⁾에 접속하여 성어에 대한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의 발표와 참여를 통해 누적하여 작성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성어를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게 할 수 있다. 발표가 끝난 후, 학습자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각자 패들렛에 접속한다. 패들렛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성어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공유하도록 한다. 익명으로 진행하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보고 서로 댓글을 달며 성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때, 교수자도 함께 참여하여 모든 학습자가 참여하게 하고,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하며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14) 『論語』「顔淵」：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

115) 패들렛은 하나의 작업 공간에 사람들이 동시·비동시로 들어와서 접촉식 메모지를 붙이는 형태의 작업이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노채환, 「비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상호작용 연구」, 『어문학』 제153집, 한국어문학회, 2021, 107쪽 참조.)

이 수업에서는 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의 성어를 활용할 수 있다. 和而不同¹¹⁶⁾을 통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되,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서까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不念舊惡¹¹⁷⁾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마음 속에 새겨두는 것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 도움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게 할 수 있다. 以德報怨¹¹⁸⁾과 以直報怨¹¹⁹⁾를 통해서는 인간관계에서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일차원적인 양갓음의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먼저 옳을 베푸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논어』와는 반대로 반복적으로 자신만 원수에게 德을 베푸는 것만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논어』에 나타난 인간관계와 관련된 성어를 학습할 때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 경험과 결부시켜 체득하게 한다면 『논어』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 교수법을 友情·인간관계에 관련한 성어와 연계한 교수학습법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아래에서 구성한 지도안은 2차시 수업이다. 1차시 수업에서 이미 『논어』에서 추출한 友情·인간관계에 관한 성어와 성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경문을 학습하였다고 가정하였다. 첫 번째 지도안은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友情의 성어의 태블릿 PC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이다. 두 번째 지도안은 일반인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성어의 태블릿 PC 혹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이다.

116) 『論語』「子路」：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117) 『論語』「公治長」：子曰 伯夷 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

118) 『論語』「憲問」：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119) 『論語』「憲問」：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표 45〉 중·고등학생 대상 태블릿 PC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友情’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p>◆ 인사</p> <p>◆ 동기유발 및 전시학습 복습 -카훗을 이용하여 1차시에 학습한 『논어』에서 추출한 友情 관련 성어를 퀴즈로 제시한다.</p> <p>◆ 학습목표 확인 -『논어』에서 추출한 友情과 관련된 성어를 이해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友情의 자세를 학습한다.</p>	<p>◆ 인사</p> <p>◆ 동기유발 및 전시학습 복습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퀴즈에 참여한다.</p> <p>◆ 학습목표 확인 -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p>	5분	문답법, 스마트 기기 학습법	PPT, 태블릿 PC
전개	<p>◆ 성어 적용 학습</p> <p>1. 학습한 友情 관련 성어의 현대사회에서의 유의미한 가치를 살펴보게 한다. -수업 현장을 순회하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돕는다.</p> <p>2. 학습한 성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성어를 활용한 友情 관련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작성하게 한다.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슬로건을 제작하게 한다.</p>	<p>◆ 성어 적용 학습</p> <p>1. 1차시때 학습한 友情 관련 성어의 현대사회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살펴본다.</p> <p>2. 성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이 생각한 실천 방안을 작성한다. -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올바른 우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는 검색을 통해 활용한다. -앞면은 성어를 작성하고, 뒷면에는 실천 방안을 작성한다. ●예시① 久而敬之 : 우정</p>	40분	문답법, 스마트 기기 학습법	스마트 폰, 태블릿 PC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3. 활동한 것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게 한다. -발표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한다.</p>	<p>관계에서 공경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고, 공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예시② 益者三友, 損者三友 : 『논어』에서 말한 친구 부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이익을 줄 수 있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예시③ 以文會友 : 『논어』에서 말한 學問 외, 친구를 사귄 때 중요한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p> <p>3. 자신이 제작한 결과물을 발표한다. -제작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를 소개한다. -타 학습자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이 선택한 성어 외, 다른 성어도 함께 학습한다.</p>			
정리 및 평가	<p>◆ 확인 학습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 ◆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p>	<p>◆ 확인 학습 -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 ◆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p>	5분	마무리	

〈표 46〉 일반인 대상 태블릿 PC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인간관계’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p>◆ 인사 ◆ 동기유발 및 전시학습 복습</p>	<p>◆ 인사 ◆ 동기유발 및 전시학습 복습</p>	5분	문답법,	PPT,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카훗을 이용하여 1차시에 학습한 『논어』에서 추출한 인간관계에 관한 성어를 복습할 수 있는 퀴즈를 낸다.</p> <p>◆ 학습목표 확인</p> <p>-『논어』에서 추출한 인간관계와 관련된 성어를 이해한다.</p> <p>-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논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한다.</p>	<p>-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퀴즈에 참여한다.</p> <p>◆ 학습목표 확인</p> <p>-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p>		스마트 기기 학습법	스마트 폰, 태블릿 PC
전개	<p>◆ 성어 학습</p> <p>1. 『논어』에서 추출한 인간관계 관련 성어의 의미와 시의성에 대해 살펴보게 한다.</p> <p>-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의견을 누적하여 작성하도록 한다.</p> <p>-발표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한다.</p>	<p>◆ 성어 학습</p> <p>1. 『논어』에서 추출한 인간관계 관련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어의 시의성을 살펴본다.</p> <p>-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의 성어를 활용할 수 있다.</p> <p>-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패들렛에 접속한다.</p> <p>-학습자들이 발표한 성어의 시의성을 패들렛을 활용하여 누적하여 작성한다.</p> <p>-타 학습자의 발표를 경청하며, 다른 성어도 심화 학습한다.</p> <p>●예시① 以文會友 : 현대사회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學問만이 중요한 요소인지 생각할 수 있다.</p> <p>●예시② 以德報怨 : 『논어』와 반대로 반복적으로 자신만 원수에게 德을 베푸는 것만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p>	40분	문답법	스마트 폰, 태블릿 PC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 성어 적용 활동</p> <p>1. 패들렛을 활용하여 인간 관계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성어를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한다.</p> <p>-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거나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관한 태도에 대해 작성하도록 한다.</p> <p>-수업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p>	<p>지 생각해 볼 수 있다.</p> <p>◆ 성어 적용 활동</p> <p>1.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패들렛에 접속한다. 학습한 성어를 개인적 인간관계와 관련한 경험과 연관 지어 작성한다.</p> <p>-성어를 통해 인간관계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p> <p>-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자세에 대해 학습자 간 의견을 공유한다.</p> <p>●예시① 和而不同 : 인간 관계에서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p> <p>●예시② 不念舊惡 :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p> <p>●예시③ 以德報怨, 以直報怨 : 사이가 안 좋더라도 먼저 선을 베푸는 것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p>			
정리 및 평가	<p>◆ 확인 학습</p> <p>-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p> <p>◆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p>	<p>◆ 확인 학습</p> <p>-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p> <p>◆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p>	5분	마무리	

3. <Flipped Learning> 기반의 미디어를 활용한 거꾸로 학습

1) Flipped Learning 교수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효과

Flipped Learning(이하 플립러닝)이란 Blended Learning(이하 블렌디드 러닝)의 한 형태이다. 블렌디드 러닝은 E-Learning을 통한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교실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학습이 혼합된 교수학습이다.¹²⁰⁾ 플립러닝은 블렌디드 러닝에서 선행학습의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수업 전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한 후 교실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교실 수업에서는 문제 해결, 토론, 적용 등 선행지식을 점검하고 확장한다. 교실 수업이 적극적인 참여 형태로 진행되기 위해선 선행학습이 중요하며, 선행학습의 대표적 자료는 강의 동영상이다.¹²¹⁾

이처럼 플립러닝은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학습하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학습요소에 대해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미리 학습하면서 학습요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 수업의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孔子の 교육방법 중 하나는 개별화 교육이다. 孔子는 학습자의 환경과 개성 등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을 수준과 개성에 알맞게 조성하여 그들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결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플립러닝은 거꾸로 수업이라고도 하는데, 거꾸로 수업의 장점 중 하나가 개별화 수업이 용이하게 실천 가능하다는 것이다.¹²²⁾ 孔子の 교육방법과 유사한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논어』를 교육함으로써 『논어』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플립러닝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이다. 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학습하고, 오프라인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바탕으로 수업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핫-미디어(hot-medi

120) 박성익·이상은·송지은, 「블렌디드 러닝에서 효과적 온/오프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07, 20-21쪽 참조.

121) 이은선·임희석, 「플립러닝이 학습방법과 플립러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0, 46-47쪽 참조.

122) 김병철, 「한문과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적용 방안」, 『漢字漢文教育』 제1권 제46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98쪽 참조.

a)와 쿨-미디어(cool-media)로 분류할 수 있다. 핫미디어는 신문·책·고전 등과 같은 문자와 활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밀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의 참여도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쿨미디어는 TV·영화·애니메이션·사진 등 상징적인 그림이나 화보로 구성된 것이다.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¹²³⁾ 핫미디어와 쿨미디어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교육에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 핫미디어와 쿨미디어를 사용한 교수학습법을 각각 개발하였다.

미디어를 활용한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에 활용할 성어의 주제는 政治이다. II장에서 정치로 분류한 성어는 총 23개이다. 주제별 성어 중 개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논어』에서 孔子는 王道政治를 말하였는데, 이는 곧 德治라고 하였다.¹²⁴⁾ 이 밖에도 『논어』에는 孔子에게 정치에 대해 묻고, 孔子가 답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孔子의 정치에 대한 사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논어』에서의 政治 관련 성어를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고교 교과서에도 『논어』에서 추출한 정치 관련 성어가 2개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에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가 적게 수록된 것을 감안하면 총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정치는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논어』에서 말하는 정치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의 올바른 방향성 등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 댓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에 관한 의견을 표

123) 김용재, 「儒教 經典教育의 필요성과 새로운 교육방법론 모색」, 『유교사상연구』 제22집, 한국유교학회, 2005, 356-357쪽 참조.

124) 임현규, 「공자의 생애와 학문 여정」, 『온지논총』 제58호, 온지학회, 2019, 261쪽 참조.

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¹²⁵⁾처럼 정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하게 걸러서 듣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에는 자신만의 정치에 관한 기준이나 가치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 통계¹²⁶⁾에서는 19세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소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정치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혀 관심이 없다’ 5.8%, ‘별로 관심이 없다’ 53%, ‘약간 관심이 있다’ 38.2%, ‘매우 관심이 있다’ 2.9%로 나왔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도 ‘약간 관심이 있다’ 보다는 ‘별로 관심이 없다’의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정치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도 있지만,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 현대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평소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을 확립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이에 『논어』에 나타난 정치와 관련된 성어를 살펴봄으로써 정치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정치 관련 성어가 미디어를 활용한 플립러닝에 적합한가?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핫미디어로는 신문을 통해 접할 수 있고, 쿨미디어로는 TV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정치 관련 영상, 온라인 기사를 볼 수 있다. 정치가 우리 삶 속의 일부인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논어』에서 추출한 정치 관련 성어교육은 미리 그 주의 정치적 이슈를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한 뒤, 오프라인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플립러닝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125)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로 ‘읽고 쓰는’ 능력, 즉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생산되는 메시지와 텍스트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용욱,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0호, 인문콘텐츠학회, 2018, 118쪽 참조.)

126)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 정치 관심도, 2023.05.3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3_0&conn_path=I2)

2) 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수업지도안 예시

핫미디어를 활용한 방안과 쿨미디어를 활용한 방안으로 나누어 수업을 구성하였다. 핫미디어를 활용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선행학습으로 활동지를 통해 『논어』에서 추출한 政治 관련 성어를 학습하도록 한다. 성어의 음·뜻, 번역, 의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신문을 통해서도 그 주의 정치 뉴스를 살펴보고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온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선행학습한 정치 관련 성어 중, 의문이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교사에게 질문을 한다. 더불어 성어의 시의성을 살펴보고 현대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타 학습자들과 함께 논의한다. 이후, 선행학습을 통해 살펴본 정치 뉴스와 오프라인에서 논의한 성어의 의미를 연결 지어 토의한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배경,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향 등을 학습한 성어를 통해 살펴본다. 학습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종합 정리하여 글로 작성한다. 이후,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식지의 한 코너에 해당 글을 신는다.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도 소식지에 실린 글을 보면서 해당 성어를 학습할 기회를 줄 수 있고, 해당 성어가 유래한 『논어』도 알게 할 수 있다.

쿨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의 경우, 선행학습으로 교사가 제작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정치 관련 개념과 『논어』에서 추출한 政治 관련 성어를 학습하도록 한다. 이후 온라인 기사와 TV를 통해 정치 뉴스를 살펴보고, 간단한 스크랩 형식으로 정리를 한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핫미디어 활용 교수학습법과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중에 생긴 궁금증에 대해 질문도 하며 해당 성어의 시의성을 살펴보고 현대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선행학습을 통해 정리한 정치 뉴스가 발생한 배경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어』에서 추출한 政治 관련 성어와 연결 지어 알아본다. 모둠별로 하나의 기사를 선택하여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성어와 관련지어 해당 사건의 문제

점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세를 짧은 글로 짓는 활동이나 성어를 넣은 기사 제목을 새롭게 만드는 활동을 한다. 이후, 발표를 통해 본인 모듬이 활용한 성어 외, 다른 성어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이 교수학습법에는 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를 활용할 수 있다. 無信不立¹²⁷⁾의 경우, 『논어』에서는 ‘정치에 있어서 음식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대를 갖추는 것, 백성이 나라를 믿게 하는 것’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이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혹은 세 가지 외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勝殘去殺¹²⁸⁾의 경우, 『논어』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잔악한 사람도 교화시켜서 사형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사형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다. 이 성어를 통해 사형제와 관련한 뉴스를 살펴보고, 사형제의 존폐에 대해 학습자 간 의견을 나누도록 할 수 있다. 分崩離析¹²⁹⁾과 禍起蕭牆¹³⁰⁾를 통해서도 나라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나라가 무너지고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정치 갈등 등 내부 문제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경우의 뉴스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의 덕목이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교육 요소

127) 『論語』「顏淵」：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128) 『論語』「子路」：子曰 善人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是言也

129) 『論語』「季氏」：孔子曰 求 君子 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 丘也 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 無貧 和 無寡 安 無傾 夫如是故 遠人 不服則修文德以來之 既來之則安之 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 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不在顛輿而在蕭牆之內也

130) 『論語』「季氏」：孔子曰 求 君子 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 丘也 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 無貧 和 無寡 安 無傾 夫如是故 遠人 不服則修文德以來之 既來之則安之 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 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不在顛輿而在蕭牆之內也

이기에 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아래에서 구성한 지도안은 이미 선행학습을 했다고 가정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수업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핫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지도안이고, 두 번째는 콜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지도안이다.

〈표 47〉 핫미디어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政治’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동기유발 1. 플립러닝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킨다. ◆ 학습목표 확인 -『논어』에서 추출한 政治와 관련된 성어를 이해한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동기유발 1. 플립러닝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한다. -선행학습한 『논어』에서 추출한 정치 관련 성어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신문을 통해 읽은 정치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학습목표 확인 -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 	10분	문답법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어 적용 활동 1. 『논어』에서 추출한 정치에 관한 성어의 시의성과 현대에서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어 적용 활동 1. 『논어』에서 추출한 정치에 관한 성어의 시의성과 현대에서의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학습자 간 의견을 공유한다. ●예시① 無信不立 : 현대사회에서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선정한다. 	35분	문답법, 글 짓기 학습법	PPT, 활동지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2. 선행학습한 정치 사건의 배경 및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성어와 연관 지어 토의하도록 한다.</p> <p>-교사는 학습자들의 의견을 정리 및 요약한다.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p> <p>3. 학습자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글로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한 글을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한 코너에 실는다.</p>	<p>2. 선행학습한 정치 뉴스를 오프라인에서 심화 학습한 정치 관련 성어의 적용 활동을 연계하여 학습한다.</p> <p>-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를 활용할 수 있다</p> <p>-정치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를 통해 알아본다.</p> <p>●예시① 勝殘去殺 : 사형선고 관련한 기사를 활용하여 사형제 존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등의 문제를 사형제의 필요성과 연관 지어 토의할 수 있다.</p> <p>●예시② 分崩離析, 禍起蕭牆 : 나라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결과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의논한다.</p> <p>3. 학습자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가장 유의미한 것을 선별하여 글로 작성한다.</p>			
정리 및 평가	<p>◆ 확인 학습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p> <p>◆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p>	<p>◆ 확인 학습 -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p> <p>◆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p>	5분	마무리	

〈표 48〉 콜미디어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政治’ 관련 성어 수업지도안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도입	<p>◆ 인사</p> <p>◆ 동기유발</p> <p>1. 플립러닝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킨다.</p> <p>◆ 학습목표 확인</p> <p>-『논어』에서 추출한 政治와 관련된 성어를 이해한다.</p> <p>-현대사회에서 정치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한다.</p>	<p>◆ 인사</p> <p>◆ 동기유발</p> <p>1. 선행학습한 정치 관련 개념과 정치 관련 성어를 떠올린다.</p> <p>-온라인 기사, TV로 학습해온 정치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p> <p>◆ 학습목표 확인</p> <p>-학습목표를 읽으며 인지한다.</p>	10분	문답법	PPT
전개	<p>◆ 성어 적용 활동</p> <p>1. 『논어』에서 추출한 정치에 관한 성어의 시의성과 현대에서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게 한다.</p> <p>2. 선행학습 한 정치 뉴스와 성어를 연계한 활동을 하게 한다.</p> <p>●예시① 선행학습한 뉴스 기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약·정리하고, 정치 사건</p>	<p>◆ 성어 적용 활동</p> <p>1. 『논어』에서 추출한 정치에 관한 성어의 시의성과 현대에서의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p> <p>-학습자 간 의견을 공유한다.</p> <p>-II장에서 분류한 학습요소 중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치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를 활용할 수 있다</p> <p>●예시① 無信不立 : 현대사회에서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선정한다.</p> <p>2. 선행학습 한 정치 뉴스와 성어를 연계한 활동을 하게 한다.</p> <p>●예시① 기사를 요약·정리하고, 학습한 정치 관련 성어와 연관 지어 해당 뉴</p>	35분	문답법, 짧은 글 짓기, 요약·정리하기	PPT, 활동지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형태	학습 매체
	교사	학생			
	<p>의 문제점과 그에 필요한 정치 덕목을 성어와 연관이 지어 글로 작성하도록 한다.</p> <p>●예시② 선행학습한 뉴스 기사의 제목을 정치 관련 성어를 넣어서 새롭게 만들도록 한다.</p> <p>3. 개별 발표를 통해 다양한 학습 내용을 공유한다. -발표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한다.</p>	<p>스의 문제점과 그에 필요한 자세를 짧은 글로 작성한다.</p> <p>-無信不立 :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글을 작성할 수 있다.</p> <p>●예시② 선행학습한 뉴스 기사의 제목을 정치 관련 성어를 넣어서 새롭게 만든다. -“불필요한 정당 간 갈등, 分崩離析를 일으킨다” -“지속되는 강력 범죄, 勝殘去殺의 정신만으로 범죄 억제 효과 가능한가?”</p> <p>3. 개별 발표를 통해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타 학습자의 발표를 경청하며 다른 성어도 심화 학습한다.</p>			
정리 및 평가	<p>◆ 확인 학습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 ◆ 다음 차시 학습 예고 및 인사</p>	<p>◆ 확인 학습 -모르는 내용을 질문한다. ◆ 다음 차시 학습을 이해 및 인사</p>	5분	마무리	

VI. 結論

본 연구는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여 주제별로 분류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이라는 교육공간에 따른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논어』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도 필요한 주제의 성어를 그에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으로 제시하였다.

『논어』는 AI 시대 속에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고, 인성교육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도 찾을 수 있다. 『논어』는 경문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처음 『논어』를 접하는 학습자는 경문으로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성어는 언어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논어』는 대화체 경문으로써 그 자체가 당시 언어의 기록이므로 성어와 관련성이 높다. 또한, 미래 교육에서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으로 교과서 안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어는 학습자가 가장 활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이에 성어로 『논어』를 교육함으로써 『논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제고시킬 수 있다. 『논어』에 담긴 내용은 옛 시대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논어』의 성어교육은 시의적절하다.

본고에서는 성어를 활용한 『논어』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하였다. 특정 교육 대상에게만 국한되어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의 성어와 교수학습방법은 없기 때문에 『논어』 학습이 가능한 중·고교 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집단에게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상의 요소가 있는 경우, 각각 다른 교수학습법을 작성하였다.

II 장에서는 『논어』 「학이」편부터 「요왈」편까지의 경문에서 성어를 추출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1절에서는 成語의 정의를 분석하고 교육적 효과

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문과 교육과정과 사전을 통해 성어는 ‘대체로 옛사람들이 만들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어휘의 내용 요소로 성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절에서는 「학이」편부터 「요왈」편까지에서 성어를 추출하였다. 단순히 글자를 축약한 것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어를 정리하였다. 또한, 5자를 초과하는 것은 함축적인 뜻을 품고 있는 성어보다는 문장에 가깝기 때문에, 5자 이하의 성어만을 추출하였다. 제1편부터 제20편까지에서 총 201개의 성어를 추출하였다. 3절에서는 추출한 성어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성어의 주제는 ‘敎學, 孝悌, 言行, 正義, 겸손, 修養, 政治, 友情·인간관계, 禮·智, 孔子, 富貴·處世, 中庸, 君子·小人, 仁, 道, 信義, 其他’이다. 또한,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어의 학습요소를 유형화하여 작성하였다.

III장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敎學과 孝悌의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1절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교육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성어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교과서는 『논어』에서 유래한 성어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대개 겉뜻과 속뜻만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논어』라는 텍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어휘의 개념으로 성어를 제시하고 있었다.

2절에서는 Problem-Based Learning을 적용한 敎學 관련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제시하였다. 孔子의 교육방법 중 하나인 啓發敎育과 유사한 Problem-Based Learning을 활용하여 敎學의 중요성을 주체적으로 깨닫고, 올바른 敎學의 자세를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안하였다.

3절에서는 易地思之를 가능하게 하고, 비판적·논리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역할 놀이와 토의·토론하기 교수학습법을 孝悌 관련 성어를 통해

개발하였다. 孝悌는 나 자신만의 관계가 아니라 타자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놀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역할 놀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중·고교 학생들은 역할 놀이를 통해 『논어』에서 추출한 孝悌 관련 성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온라인 속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비판적·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하다. 이에 토의·토론을 통해 孝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IV 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에서 修養과 言行之 성어의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1절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대두된 배경과 개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이 각광받았지만, 그 이전에도 온라인 교육은 존재했다. 다시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었지만, 사회적 흐름에 따라 온라인 교육은 계속해서 개발될 것이다. 한문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데, 『논어』에서 추출한 성어를 통해 온라인 교육에서의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2절에서는 修養 관련 성어를 One-Day Class를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공간에서의 한문교육을 제시하였다. One-Day Class는 한문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학습자의 경우, 하루 동안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른 One-Day Class 수업과 연계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자기성찰의 기회가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修養 관련 성어는 학습자에게 유의미하다.

3절에서는 言行 관련 성어를 AI 기술 중 하나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으로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메타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의 언행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미 메타버스를 포함한 온라인상에서 적대적 언어와 범죄적 행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화체인 『논어』

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가상 공간 속에서 필요한 언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법을 고안하였다.

V 장에서는 友情·인간관계와 政治 관련 성어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겸용의 교수학습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수학습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강조하고 있다. 중·고교 학생의 경우,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배부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높은 스마트 기기 보유율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다.

2절에서는 友情·인간관계 관련 성어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제작물 만들기, 퀴즈 참여하기, 익명으로 의견 나누기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논어』에서 추출한 友情·인간관계에 관한 성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政治 관련 성어를 Flipped Learning 기반으로 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였다. 政治와 우리 삶은 떼어 수 없는 만큼 일상 생활 속에서 政治에 관해 사전 지식을 학습한 후, 오프라인을 통해 『논어』에서의 政治 관련 성어의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핫미디어, 클미디어를 활용한 거꾸로 학습을 고안하였다. 政治 관련 개념을 학습하고, 현대사회에서의 政治 관련 뉴스를 살펴보는 것은 『논어』에 나타난 政治의 내용을 현대사회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에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논어』에서 성어를 추출하여 이를 온·오프라인의 교육환경으로 나누어 각각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교수학습법을 개발하는 데에 착안하였다. 애당초 『논어』는 경문을 읽어야 함이 마땅하나, 경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일반화된 ‘성어’를 교육함으로써 『논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논어』뿐 아니라 유가 경서 외 다양한 한문 고전 교육에도 적용 가능한 다채로운 성어 교수학습법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원전류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論語』 영인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0.

□ 교육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11-361.
-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 교육부 고시, 『한문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2022.
- 교육부,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2016.
- 교육부,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22.
- 서울교육, 2021 겨울호(245호).

□ 중·고교 한문교과서 (2015 교육과정)

- 김성중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이젠 미디어, 2018
- 김영진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씨마스, 2018
- 김용재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와이비엠, 2018
- 박성규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동아출판, 2018
- 송재소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다락원, 2018
- 심경호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미래엔, 2018
- 안대회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천재교과서, 2018
- 안재철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지학사, 2018
- 오형민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금성출판사, 2018
- 이동재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비상교육, 2018
- 이병순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 2018

- 이병주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대학서림, 2018
- 이상진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동화사, 2018
- 이항배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대명사, 2018
- 이현교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중앙교육, 2018
- 임완혁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교학사, 2018
- 진재교 외, 『중학교 한문교과서』, 장원교육, 2018
- 김영진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씨마스, 2018.
- 김용재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와이비엠, 2018.
- 김성중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이젠미디어, 2018.
- 박성규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동아출판, 2018.
- 송재소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다락원, 2018.
- 신표섭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2018.
- 심경호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미래엔, 2018.
- 안대회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천재교과서, 2018.
- 안재철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지학사, 2018.
- 오형민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금성출판사, 2018.
- 이동재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비상교육, 2018.
- 이항배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명사, 2018.
- 진재교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장원교육, 2018.

□ 단행본

- 김용재, 『論語入門』,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4.
- 국어국문학회 감수, 『밀레니엄 새로나온 국어사전』, 민중서관, 2003.
- 보경문화사 편집부, 『논어 영인본』, 보경문화사, 1989.
- 성백효, 『최신판 論語集註』,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7.

- 최영갑·김용재·진성수, 『四字論語 100選』, 풀빛, 2021.
- 민중서림 편집국, 『漢韓大字典』, 제2판, 민중서림, 2008.
- 이신동·조형정·장선영·정종원, 『알기쉬운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양서원, 2012.

□ 학위논문

- 김민경, 「《論語》 成語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송분화,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故事成語 교육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 윤태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검토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연구논문

- 강선경·최윤, 「코로나 19 시대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교육매체 활용방안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7권 제2호, 한국웰니스학회, 2022.
- 강영돈, 「게임앱 기반 스마트교육을 위한 수업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인문사회21』 제10권 3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 권진옥, 「중등 한자·한문 교육 방법론에 대한 모색 -학습자 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어문연구』 제49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 김병철, 「한문과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적용 방안」, 『漢字漢文教育』 제1권 제46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 김세영 · 임유진 · 김보경 · 이예경,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교수학습방법별 교수활동 도출 및 타당화」,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23.
- 김용재, 「한문고전과 인성교육[1] -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4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 김용재, 「四書에서 유래하는 成語에 대한 중·고교 ‘漢文科’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법」, 『교육연구』 제60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 김용재,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6] - 雍也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81집, 동양철학연구회, 2015.
- 김용재, 「『論語集解』와 『論語集註』의 註釋 比較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理解[1] - 「學而」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3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 김용재, 「K-MOOC 강좌의 ‘효율성’과 ‘이수율’ 제고를 위한 제언: ‘대학교양수업(한자어)’과의 연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86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3.
- 김용재, 「儒敎 經典敎育의 필요성과 새로운 敎育방법론 모색」, 『유교사상연구』 제22집, 한국유교학회, 2005.
- 김용재, 「『論語』 編纂에 대한 異見과 諸註釋을 통해 본 孔子의 敎育精神」, 『한문고전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김용재, 「류성룡의 실학적 토대로서의 經學觀 연구」, 『서애연구』 제7권, 서애학회, 2023.
- 김윤아 · 이복희,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상담 수준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과 학습만족도 매개효과」, 『평생교육인

적자원개발연구』 제1권 제1호, 한국평생교육HRD학회, 2022.

- 김현우, 「온라인 한국어 수업과 오프라인 한국어 수업의 학습자 성취도 비교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제13호,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0.
- 노일경·정혜령·우영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교육의 뉴노멀로서 온라인교육 시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 노채환, 「비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상호작용 연구」, 『어문학』 제153집, 한국어문학회, 2021.
- 류준경, 「2015 개정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의 소설 관련 교수-학습방법 구현양상 및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모색」, 『漢字漢文教育』 제1권 제45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8.
- 문병도·이병준, 「공자의 교육목표와 교육방법」, 『공자학』 제10호, 한국공자학회, 2003.
- 박성익·이상은·송지은, 「블렌디드 러닝에서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07.
- 박수밀·김혜진, 「4차 산업혁명 시대 학교 밖 漢字·漢文 교육의 실태와 방향」, 『한문교육논집』, 5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22.
- 백광훈·공민정, 「第4次 産業革命 變化에 따른 漢文科에서의 ‘成語’ 授業 具案」, 『漢字漢文教育』 제4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7.
- 백광훈, 「《漢文教育》에 대한 反省的 考察」, 『漢字漢文教育』 제4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0.
- 신영주, 「중등학교 한문과 독해 수업의 단계별 구성에 관하여」, 『동방한문학』 제73호, 동방한문학회, 2017.
- 오희정, 「학교 급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

육연구』 제22권 1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 이용욱,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0호, 인문콘텐츠학회, 2018.
- 이은선·임희석, 「플립러닝이 학습방법과 플립러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0.
- 이희욱,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임현규, 「공자의 생애와 학문여정」, 『온지논총』 제58호, 온지학회, 2019.
- 장승영·정향, 「팝콘브레인 현상에 대한 지각예술작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8권 제4호, 한국전자통신학회, 2013.
- 장진엽,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한자 어휘 수록 체계 검토」, 『어문연구(語文研究)』 제49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 정동운, 「디지털 매체(콘텐츠,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의 한자, 한문교육」, 『한문교육논집』 제5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22.
- 정순돌·정주희·김미리,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 정효영, 「한문과 어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문교육연구』 제4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
- 조수선·주라헬, 「온라인 학습 환경의 편리성이 학업성취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21.
- 한송이·김태중, 「메타버스 뉴스 빅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제7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 인터넷사이트

- 한국고전종합DB, 2023.05.01. (<https://db.itkc.or.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05.31.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KOSIS 국가통계포탈, 2023.05.31. (<https://kosis.kr/index/index.do>)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3.05.31.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23&lsiSeq=224387#0000>)
-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2023.05.31. (<https://www.hscredit.kr/>)
- 고태영,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보급률 1위 국가는?」, KBS NEWS, 2019.02.1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35732>)
- 박규빈, 「1인 1스마트 기기 서울교육청 ‘디벗 사업’, 초등학생 확대 검토」, 미디어펜, 2022.07.17. (<http://www.mediapen.com/news/view/738664>)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 정치 관심도, 2023.05.3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1_0023_0&conn_path=I2)

□ 기타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2.

Abstract

A Study on idioms(成語) extract of The Analects(論語) and Online and Offline Teaching-Learning Methods

Park Ji Su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tracted idioms(成語) from The Analects(論語), classified idioms(成語) by subject, and studied teaching-learning methods using idioms(成語). The Analects(論語) should be learned through the original text(經文), but it is difficult for those who are new to them. By educating The Analects(論語) using idioms(成語).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accessibility and educational utilization of The Analects(論語).

The extraction of the idiom(成語) was done in the original text(經文) from The Analects(論語) 1 (「學而」) to 20 (「堯曰」). The idiom(成語) are summarized with less than 5 characters with meaningful contents. The extracted idioms(成語) were classified by subject, and the learning elements of each idiom(成語) were analyzed.

Education using idioms(成語) extracted from The Analects(論語) was studied on the basis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However, if there is a mor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the educational spaces and the tools, they were presented respectively.

In Chapter III, The idiom(成語)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re studied in offline education. Problem-Based Learning, where learner-centered learning takes place, was presented as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learning-related(教學) idioms(成語). In addition,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as developed, including discussion and role-playing of idioms related to filial piety and respect, so that The learners can be able to understand 易地思之, which means putting myself in someone else's shoes in Korean, and cultivate critical and logical thinking skills.

Chapter IV studied idioms(成語)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online education. Idioms(成語) related to cultivate(養修) were presented as Chinese character education in a new educational space using the One-Day Class. Idioms(成語) related to words and action(言行) were developed as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using metaverse, one of the AI technologies.

Chapter V examin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combine online and offline. Idioms(成語) related to friendly relationship(友情) and human relations were developed as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using smart devices to enable learners to participate actively in learning. Finally, based on Flipped Learning, idioms(成語)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related to politics using media were presented.

This study intends to inform that The Analects(論語) not only exist as old writings, but also have lots of valid meanings in modern society.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The Analects(論語) can be actively used in broader education fields.

부록

* 아래의 국역은 한국고전번역DB를 참고하였다.¹³¹⁾

1. 「學而」 제1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學而	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나서 수시로 익힌다면 이 역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와 준다면 이 역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군자답지 않겠는가.”	學而時習
	2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유자가 말하였다. “그 사람이 효성스럽고 공손한데 그런 사람이 윗사람에게 대들기를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다. 윗사람에게 대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亂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경우는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道가 생기는 법이다. 효성과 공경은 아마도 仁을 행하는 근본이리라.”	本立道生
	2	上同 上同	君子務本
	3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이나 듣기 좋게 하고 가식적인 얼굴로 비위를 맞추는 사람치고 仁한 사람은 적다.”	巧言令色
	4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曾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자신을 반성하는데, 그것은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를 지키지 않았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三省吾身
	5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千乘의 諸侯國을 다스릴 때에는 매사를 신중히 하고, 백성에게 미덥게 하며, 재정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농한기에 맞추어 백성을 부려야 한다.”	節用愛人
	5	上同 上同	使民以時
	7	子夏曰 賢賢易色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賢賢易色

131) 한국고전종합DB, 2023.05.01. (<https://db.itkc.or.kr/>)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子夏가 말하였다. “賢者를 존경할 때에는 女色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꿀 정도로 하고, 부모를 섬길 때에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길 때에는 자기 몸을 다 바치고, 친구와 사귄 때 말에 신의가 있으면, 비록 그가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 하리라.”	
	8	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나니, 배워도 견고하지 못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忠) 진실될 것이며(信), 나보다 못한 자와 벗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過則勿憚改
	9	曾子曰 慎終追遠 民德歸厚矣 증자가 말하였다.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후덕하게 될 것이다.”	慎終追遠
	10	子禽問於子貢曰 夫子至於是邦也 必聞其政 求之與 抑與之與 子貢曰 夫子 溫良恭儉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자공이 자공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 어떤 나라에 도착하시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 들으시는데, 스승님이 듣기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임금이 스스로 들려주는 것입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스승님은 온화하고 진실되고 공손하고 절제하고 겸양하는 덕이 있어 자연히 듣게 되는 것이니, 스승님이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아마도 다른 사람이 구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溫良恭儉讓
	14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먹을 때 배부르길 바라지 않고 거처할 때 편안하길 바라지 않으며, 일에는 민첩하고 말은 신중히 하며, 道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옳고 그름에 대해 質正을 받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居無求安
	15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지만 아첨하는 일이 없고 부유하지만 교만을 부리는 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도 괜찮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禮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富而無驕
	15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자공이 말하였다. “시경에 ‘자른 뒤에 다시 갈고 쪼은 뒤에 갈 듯 하네.’ 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切磋琢磨

2. 「爲政」 제2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爲政	2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一言以蔽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삼백 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는 것’이다.”	
	3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道德齊禮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법령으로 이끌어가고 형벌로 규제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악행에 대한 수치심은 없게 된다. 그러나 덕으로 이끌어가고 예로써 규제한다면 백성들은 수치심도 생기고 자연히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上同	有恥且格
		上同	
	4	子曰 吾十有五而志於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三十而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확고하게 섰으며, 마흔에는 의혹이 없었고, 쉰에는 천명을 알았으며, 예순에는 모든 소리에 통하고, 일흔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4	上同	不惑
		上同	
	4	上同	知天命
		上同	
	4	上同	從心所欲
		上同	
	7	子遊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犬馬之養
자유가 효에 대해 물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의 효는 단지 물질적으로 봉양을 잘하는 걸 의미하는데, 개나 말에게도 물질적으로 잘해 줄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개나 말에게 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9	子曰 吾與回 言終日 不違如愚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不愚	不違如愚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顔回와 하루 종일 얘기해 보면, 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게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나 물러난 뒤의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면 역시 나의 뜻을 잘 실행하고 있으니, 안회는 어리석지 않다.”		
11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溫故知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배운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子曰 君子不器	君子不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다.”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14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편당을 짓지 않는데 반해, 소인은 편당을 짓지 공평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周而不比
	14	上同 上同	比而不周
	18	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자장이 녹봉을 받을 수 있는 방도에 대해 배우려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듣고서 그중에 의심스러운 것은 빼놓고 그 나머지 확실한 것만 신중히 말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많이 보고서 그중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빼놓고 그 나머지 믿을 만한 것만 신중히 행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실에 후회가 적게 한다면 녹봉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多聞闕疑
	22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輓 小車無軌 其何以行之哉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 비유하면, 큰 수레에 멍에 채잡이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 채받이가 없는 격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수레가 굴러갈 수 있겠는가.”	大車無輓
24	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지낼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면 그것은 아첨이고,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見義勇爲	

3. 「八佾」 제3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八佾	8	子夏問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자하가 물었다. “시경에 ‘예쁘게 웃으니 보조개 귀엽고, 아름다운 눈동자 흑백이 분명하네. 흰 바탕으로 채색을 한다네.’ 하였는데, 이 시는 무슨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색칠할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한다는 뜻이다.” 그러자 자하가 말하였다. “충신의 바탕을 갖추는 것이 먼저이고 형식적인 예는 그 뒤라는 말이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일깨우는 자는 商이구나. 비로소 함께 詩를 말할 수 있겠구나.”	繪事後素
	17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자공이, 초하루를 곁하는 의식에 쓰는 희생양을 없애고자 하였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賜야, 너는 그 양이 아까우냐? 나는 그 예가 아깝구나.”	告朔餼羊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17	上同	愛禮存羊
		上同	
	20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樂而不淫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경 關雎篇의 詩는 즐거워하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和氣를 상하지 않고 있다.”
		上同	
	20	上同	哀而不傷
21	哀公 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 以松 殷人 以栢 周人 以栗 曰 使民戰栗 子聞之 曰 成事 不說 遂事 不諫 既往 不咎	既往不咎 애공이 재아에게 社木에 대해 물었는데, 재아가 대답하였다. “夏나라는 소나무로 사목을 하고, 殷나라는 잣나무로 사목을 하고, 周나라는 밤나무로 사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가 밤나무를 택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자께서 나중에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말할 수도 없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 말릴 수도 없고, 이미 지난 일이라 탓할 수도 없구나.”	
	子謂 韶盡美矣 又盡善也 謂武盡美矣 未盡善也		
25	공자께서 舜임금 음악인 韶를 평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지극히 善하다.” 武王의 음악인 武를 평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지극히 선하지는 못하다.”	盡善盡美	

4. 「里仁」 제4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里仁	2	子曰 不仁者 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樂 仁者 安仁 知者 利仁	仁者安仁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仁하지 못한 사람은 곤궁한 상황에 오래 처해 있지 못하고 즐거움도 장구하게 누리지 못한다. 仁한 사람은 仁을 편안히 여겨 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仁을 이롭게 여겨 지켜간다.”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以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以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 終食之間違 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5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귀는 사람이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도로 얻은 것이 아니면 누리지 말아야 하며, 빈천은 사람이면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도로 얻은 것이 아니라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仁을 떠난다면 무엇으로 ‘군자’라는 이름을 이루겠는가. 그러니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동안에도 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급박한 때라도 반드시 여기에 힘써야 하고 경황 중에도 반드시 여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造次顛沛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7	子曰 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그 부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잘못만 살펴봐도 그 사람이 仁한지 알 수 있다.”	觀過知仁
	8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道를 깨달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朝聞夕死
	9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비가 道에 뜻을 두었으면서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이런 사람과는 도를 논할 가치가 없다.”	惡衣惡食
	10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천하의 일에 전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없고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없다.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	無適無莫
	15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參아, 나의 道는 하나로 꿰어져 있다.” 증자가 “예!”라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다른 문인이 물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증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의 道는 충과恕일 뿐이다.”	一以貫之
	17	子曰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으로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見賢思齊
	18	子曰 事父母 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면 부드럽게 諫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내 말을 따라주지 않아도 더욱 공경하고 거스르지 말 것이며, 괴로워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勞而不怨
	19	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계시면 멀리 나가지 않아야 하고, 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밝혀야 한다.”	遊必有方
	24	子曰 君子 欲訥於言而敏於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실행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	訥言敏行

5. 「公治長」 제5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公治長	8	子謂子貢曰 女與回也孰愈 對曰 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 賜也聞一以知二 子曰 弗如也 吾與女弗如也 공자께서 子貢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안연 중에 누가 더 나은가?” 자공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찌 감히 회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같지 않다. 나도 네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聞一知十
	14	子貢問曰 孔文子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 자공이 물었다. “孔文子를 어째서 ‘文’이라 시호하였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명민하고 배우기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라 시호한 것이다.”	不恥下問
	16	子曰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평중은 남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사귄 지 오래되어도 그 사람을 공경하니.”	善與人交
	16	上同 上同	久而敬之
	19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 曰 再 斯可矣 季文子는 每事 세 번 생각을 한 뒤에야 행하였는데, 공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만 생각하면 된다.”	三思而行
	20	子曰 甯武子 邦有道則知 邦無道則愚 其知 可及也 其愚 不可及也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무자는 나라에 道가 있으면 지혜를 드러내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우직함을 보였는데, 그 지혜는 다른 사람도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우직함은 아무나 따라갈 수 없다.”	愚不可及
	21	子在陳 曰 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 공자께서 陳나라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야지, 돌아가야겠다. 魯나라에 있는 나의 제자들이 뜻은 높으나 행하는 데는 서툴러, 文理의 성취는 불만해도 中道로 재단할 줄은 모르니.”	斐然成章
	22	子曰 伯夷 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다른 사람들의 지난 잘못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원망하는 사람이 그래서 적었다.”	不念舊惡

6. 「雍也」 제6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雍也	3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 子曰 與之釜 請益 曰 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 子曰 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 吾聞之也 君子周急不繼富	肥馬輕裘, 輕裘肥馬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赤(子華)이 제 나라에 갈 때 보니,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갓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한 이에겐 보태주지 않는다.’고 했다.”	
	8	伯牛有疾 子問之 自牖執其手 曰 亡之 命矣夫 斯人也 而有斯疾也 斯人也 而有斯疾也 伯牛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공자께서 문병을 가서 창문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는데, 天命인가보다.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斯人斯疾
	9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구나, 안회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 물을 마시며 누추한 거리에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속에서도 항상 道를 즐기니, 안회는 참 어질구나.”	簞食瓢飲
	9	上同	簞瓢陋巷
	9	上同	
	9	上同	不堪其憂
	9	上同	
	10	冉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畫 冉求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道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힘이 부족하여 행하지 못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자는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미리 한계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中道而廢
	12	子遊爲武城宰 子曰 女得人焉耳乎 曰 有澹臺滅明者 行不由徑 非公事 未嘗至於偃之室也 子游가 武城의 수령이 되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 곳에서 인재를 얻었느냐?” 자유가 대답하였다. “澹臺滅明이란 자가 있는데, 그는 길을 갈 때 지름길로 가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제 방에 오는 법이 없습니다.”	行不由徑
	16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면의 질박함이 외면의 세련미를 압도하면 어리숙한 시골티가 나고, 외면의 세련미가 내면의 질박함을 압도하면 번지르르한 관리티가 난다. 질박함과 세련미가 잘 어우러진 뒤에야 君子인 것이다.”	文質彬彬
	20	樊遲問知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問仁 曰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樊遲가 지혜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한다면 지혜롭다 할 수 있을 것이다.” 仁에 대해 묻자, 말씀하셨다. “仁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먼	敬而遠之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저하고 결과로 얻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데, 이러하다면 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仁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動的이고 仁한 사람은 靜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고 仁한 사람은 오래 산다.”	知者樂水
	21	上同 上同	仁者樂山
	21	上同 上同	樂山樂水
	24	宰我問曰 仁者 雖告之曰 井有仁焉 其從之也 子曰 何爲其然也 君子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 宰我が 물었다. “仁한 사람은 누군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해도 아마 뛰어들어 구하지 않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그러겠느냐. 군자는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으나 빠지게 할 수는 없고, 사리에 닿는 말로 속일 수는 있어도 터무니없는 말로 현혹시킬 수는 없다.”	從井救人
	25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가 널리 글을 배우고 中正한 예로 요약하여 행한다면 또한 道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博文約禮
	27	子曰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中庸의 德은 참으로 지극하구나. 그러나 이 덕을 지닌 이가 적어진 지 오래되었다.”	中庸之道
	28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舜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子貢이 말하였다. “만일 백성에게 恩德을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仁하다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仁만을 한다고 하겠느냐. 그건 반드시 성인이라야 가능한 것이다. 堯舜도 아마 그건 오히려 어렵게 여기셨을 것이다. 무릇 仁한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까지 세워 주고, 자기가 통하고자 할 때 남까지 통하게 해 준다. 가까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이 역시 仁을 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博施濟衆

7. 「述而」 제7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述而	1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述而不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것을 傳述만 하고 창작하지 않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나를 가만히 우리 노팽에게 건주어 본다.”	
	2	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보고 들은 것을 묵묵히 마음에 기억해 두고, 배우면서 싫증을 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있는가.”	誨人不倦
	8	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배우는 자가 스스로 알려고 분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았고, 표현하려 해도 잘 안 되어 답답해하지 않으면 터주지 않았다. 한 모서리를 제시하였는데 배우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세 모서리를 반증하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 주지 않았다.”	舉一反三
	10	子謂顏淵曰 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有是夫 공자께서 顏淵에게 말씀하셨다. “등용되면 나아가 道를 행하고, 써주지 않으면 물러나 은거하는 일은, 오직 나와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用行舍藏
	10	子路曰 子行三軍 則誰與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 자로가 말하였다. “만약 선생님께서 三軍을 거느리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려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자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계획하기를 좋아하여 성공하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	暴虎馮河
	10	上同	死而無悔
	10	上同	臨事而懼
	10	上同	好謀而成
	11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富가 추구해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내가 하겠지만, 만일 추구해서 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從吾所好
	14	冉有曰 夫子爲衛君乎 子貢曰 諾 吾將問之 入曰 伯夷叔齊何人也 曰 古之賢人也 曰 怨乎 曰 求仁而得仁 又何怨 出曰 夫子不爲也 冉有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衛나라 임금을 도우실까?” 子貢이 말하였다. “좋아, 내가 한번 여쭙어 보지.” 들어가서 묻기를,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賢者들이시다.” 다시 묻기를, “나라를 양보한 것을 후회했습니까?”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仁을 추구하다 仁을 얻었는데,	求仁得仁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다시 무엇을 후회했겠느냐.” 자공이 나와서 말하였다. “선생님께 서는 돕지 않으실 거다.”	
	15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 지내는 생활 속에도 즐거움이 있나니, 不義로 얻은 부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으니라.”	曲肱而枕之
	15	上同 上同	富貴浮雲
	16	子曰 加我數年 卒以學易 可以無大過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에게 몇 해만 시간을 더 주어 끝내 주역을 다 배울 수 있게 해 준다면 큰 허물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假我年數
	18	葉公問孔子於子路 子路不對 子曰 女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雲爾 葉公이 子路에게 공자에 대해 물었는데, 자로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공자께서 뒤에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 ‘그 사람됨이, 무엇을 알려고 애쓸 때에는 먹는 것도 잊고, 알고나면 즐거워서 근심을 잊어 버리며, 늙어가는 것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發憤忘食
	19	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 敏以求之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면서부터 道를 안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生而知之
	20	子不語怪力亂神 공자께서는 괴이한 일, 勇力을 쓰는 일, 도에 어그러진 일, 그리고 鬼神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怪力亂神
	26	子釣而不網 弋不射宿 공자께서는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으셨으며, 주살로 새를 잡으셨지만 잠자는 새는 쏘지 않으셨다.	弋不射宿
	37	子 溫而厲 威而不猛 恭而安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고, 공손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威而不猛

8. 「泰伯」 제8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泰伯	3	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水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曾子가 병이 들었을 때,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불을 걷어 내 발을 열어 보고 내 손을 열어 보아라. 시경에 ‘두려워하고 조	戰戰兢兢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심하라, 깊은 못에 임한 듯이,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였는데, 죽음에 임한 이제야 나는 부모님이 주신 몸을 상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겠다. 제자들아.”	
	3	上同 上同	如履薄水
	5	曾子曰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昔者 吾友嘗從事於斯矣 증자가 말하였다. “유능하면서 유능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고, 학식이 많으면서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있으면서도 없는 듯이 하고, 짝 찻으면서 텅 빈 듯이 하며, 남이 무례하게 굴어도 전혀 꾀넘치 않는 德을, 옛날 나의 벗(顏淵)이 지니고 행하였다.”	犯而不校
	6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裏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증자가 말하였다. “나이 어린 임금을 부탁할 만하고, 100리 되는 나라를 맡길 만하며, 큰 절개가 드러나는 생사의 기로에서도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면 군자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六尺之孤
	6	上同 上同	託孤寄命
	7	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증자가 말하였다. “선비는 마음이 넓고 크며 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仁이 내가 질 짐이니, 무겁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멈추니, 멀지 않은가.”	任重道遠
	7	上同 上同	死而後已
	17	子曰 學如不及 猶恐失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은 따라가지 못할 듯이 해야 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學如不及
	19	子曰 大哉堯之爲君也 巍巍乎 唯天爲大 唯堯則之 蕩蕩乎 民無能名焉 巍巍乎其有成功也 煥乎其有文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하다, 堯 임금의 임금됨이여. 높고 크기로는 저 하늘이 가장 큰 존재인데, 오직 요 임금의 덕이 이와 나란하셨다. 너무나 넓고 커서 백성들이 뭐라 형언하지 못하였다. 위대하도다, 그가 이룬 업적이여. 찬란하도다, 그가 이룬 문물이여.”	巍巍蕩蕩

9. 「子罕」 제9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子罕	8	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河不出圖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聖王의 징조인 봉황도 오지 않고 河水에서는 등에 그림을 진 龍馬도 나오지 않으니, 나는 이제 그만인가보다.”	
	10	顏淵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 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	欲罷不能
		顏淵이 깊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선생님의 道는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파고 들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보면 앞에 있는 듯하다가 홀연히 뒤에 있도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에, 학문으로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中正한 禮로 나의 행동을 단속(절제)하게 해 주셨다. 공부를 그만 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어 나의 재주(능력)를 다해 보았더니, 비로소 선생님의 도가 우뚝하게 내 앞에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비록 그러하나 그것을 따라가려 해도 따라갈 방도가 없구나.”	
	16	子在川上 曰 逝者如斯夫 不捨晝夜	不捨晝夜
		공자께서 시냇가에 서서 말씀하셨다.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으로 쉬질 않는구나.”	
	18	子曰 譬如爲山 未成一簣 止 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 吾往也	未成一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을 비유하자면 흙을 쌓아 산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산을 만들면서 마지막 흙 한 삼태기를 붓지 않아 산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며, 비유컨대, 평지에 흙 한 삼태기를 부어 산 만들기를 시작했더라도 그 걸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21	上同	秀而不實
		上同	
22	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	後生可畏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후배가 두려운 것이다. 어찌 그들의 장래가 오늘의 우리만 못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러나 40, 50이 되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		
28	子曰 知者 不惑 仁者 不憂 勇者 不懼	知者不惑	
2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仁한 자는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仁者不憂	
	上同		
28	上同	勇者不懼	
	上同		

10. 「先進」 제11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先進	12	閔子侍側 閔閔如也 子路 行行如也 冉有子貢 侃侃如也 子樂 若由也 不得其死然	不得其死
		민자건은 공자를 옆에서 모실 때 온화한 모습이었고, 자로는 굳센 모습이었고, 염유와 자공은 강직한 모습이었는데, 공자가 즐거워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로는 제명에 죽지 못할 듯하구나.”	
	14	子曰 由之瑟奚爲於丘之門 門人不敬子路 子曰 由也升堂矣 未入於室也	升堂入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由의 살벌한瑟 소리가 어찌 내 집에서 나느냐?” 이후로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由의 학문은 이미 대청에는 올라섰다. 아직 방(심오한 경지)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15	子貢問 師與商也孰賢 子曰 師也過 商也不及 曰 然則師愈與 子曰 過猶不及	過猶不及
		子貢이 물었다. “師(子張)와 商(子夏) 중에 누가 더 어집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가 더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	
	16	季氏富於周公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 子曰 非吾徒也 小子鳴鼓而攻之可也	鳴鼓而攻
季氏が 周公보다 부유한데도 冉求가 그를 위해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재산을 더 불려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자는 우리 무리가 아니니, 너희들은 북을 울려 그의 죄를 성토하는 것이 옳다.”			
24	子路使子羔 爲費宰 子曰 賊夫人之子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然後 爲學 子曰 是故 惡夫佞者	惡夫佞者	
	子路가 子羔로 하여금 費邑의 수령이 되게 하였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자식을 망치는구나.” 자로가 말하였다. “백성이 있고 社稷이 있으니 다스리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찌 꼭 글을 읽어야만 배우는 것이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25	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 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一日之長	
	子路와 曾皙과 冉有와 公西華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보다 조금 나이가 많지만, 그렇다고 나를 어려워 말고 말을 하도록 해라. 평소에 너희들은 ‘나를 몰라준다.’고들 하는데, 만약 너희를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11. 「顔淵」 제12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顔淵	1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克己復禮
	4	司馬牛問君子 子曰 君子不憂不懼 曰 不憂不懼 斯謂之君子已乎 子曰 內省不 夫何憂何懼 司馬牛가 君子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마우가 말하였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를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으로 살펴보아도 잘못이 없으니,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內省不疚
	6	子張問明 子曰 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 可謂明也已矣 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 可謂遠也已矣 子張이 현명함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물이 스며들 듯 은근하게 하는 참소와 피부에 와 닿을 듯 절박하게 하는 하소연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이 스며들 듯 은근하게 하는 참소와 피부에 와 닿을 듯 절박하게 하는 하소연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멀리 내다본다고 할 수 있다.”	浸潤之譖
	6	上同 上同	膚受之愬
	7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子貢이 정치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실하게 갖추고, 백성이 나라를 믿게 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부득이해서 꼭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대를 버려야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부득이해서 꼭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버려야 한다. 자고로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백성은 신의가 없으면 존립하지 못하게 된다.”	足食足兵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7	上同 上同	無信不立
	8	棘子成曰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 君子也 駟不及舌 文猶質也 質猶文也 虎豹之鞞猶犬羊之鞞 棘子成이 말하였다. “군자는 질박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에 문채를 쓰겠는가.” 子貢이 말하였다. “애석하다. 그대의 말이 군자답기는 하나 말실수 한 그 혀는 네 필의 말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문채와 질박은 똑같이 중요하고 질박과 문채는 비중이 같다. 범이나 표범의 가죽도 털을 깎아버리면 개나 양의 털없는 가죽과 구분이 안 되는 법이다.”	駟不及舌
	11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齊 나라 景公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는데,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하는 것입니다.” 景公이 말하였다. “좋은 말씀입니다.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한들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君君臣臣
	12	子曰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子路無宿諾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마디 말로 소송을 판결할 수 있는 자는 由일 것이다.” 자로는 하겠다고 승낙한 일에 대해서는 묵혀두는 일이 없었다.	片言折獄
	16	子曰 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反是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남의 좋은 도와 이루도록 해주고, 남의 뉘은 이루도록 돕지 않는데,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成人之美
	17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季康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는데,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란 바르게 한다는 말이니, 그대가 바르게 이끌어 간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	政者正也
	21	樊遲從遊於舞雩之下 曰 敢問崇德 修慝 辨惑 子曰 善哉問 先事後得 非崇德與 攻其惡 無攻人之惡 非修慝與 一朝之忿 忘其身 以及其親 非惑與 樊遲가 공자를 따라 舞雩 아래에서 노닐다가 말하였다. “감히 묻습니다. 내면의 德을 높이고, 자신의 사악함을 없애고, 미혹을 분별하는 방도는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참 좋구나, 그 질문이. 해야 할 일을 먼저하고 댓가를 따지지 않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이 아니겠는가. 자기의 惡을 다스리고 남의 악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사악함을 없애는 길이 아니겠는가. 일시적인 분노로 자신을 잊고 싸우다가 부모에게 禍가 미치게 하는 것이 미혹한 것이 아니겠는가.”	一朝之忿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24	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 曾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글로 벗을 모으고 벗의善으로 나의 仁을 배양한다.”	以文會友

12. 「子路」 제13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子路	3	子路曰 衛君 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 野哉 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故 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 子路가 말하였다. “衛나라 임금께서 선생님을 기다려서 정치를 하려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다.” 자로가 말하였다. “선생님께 이런 우월한 점이 있으시네요. 어떻게 명분을 바로잡는단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由야, 참으로 상스럽구나. 군자는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법이다.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도리에 맞지 않고, 말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고, 일이 되지 않으면 질서와 화합(禮樂)이 안 이루어지고, 질서와 화합이 안 이루어지면 형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형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디에 손발을 두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군자가 먼저 명분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도리에 맞게 말할 수 있게 되고, 말이 도리에 맞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군자는 그 말에 있어서 구차한 바가 없을 뿐이다.”	名正言順
	11	子曰 善人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是言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말에 ‘좋은 사람이 연이어 백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잔악한 사람을 교화시키고 사형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옳구나, 이 말은.”	勝殘去殺
	16	葉公問政 子曰 近者悅 遠者來 葉公이 정치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 기뻐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近悅遠來
	17	子夏爲莒父宰 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子夏가 莒父의 邑長이 되어 정치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라. 서두르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면 큰	欲速不達

篇名	순	경문	성어
		일을 이루지 못한다.”	
	18	<p>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p> <p>葉公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고을에 정직하게 행동한 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것을 고발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고을의 정직한 자는 이와 달라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니, 정직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p>	父爲子隱
	20	<p>子貢問曰 何如斯可謂之士矣 子曰 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曰 敢問其次 曰 宗族稱孝焉 鄉黨稱弟焉 曰 敢問其次 曰 言必信 行必果 硜硜然小人哉 抑亦可以爲次矣 曰 今之從政者何如 子曰 噫 斗筭之人 何足算也</p> <p>子貢이 물었다. “이렇게 해야 士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엄치 있게 처신하고, 외국에 使臣 가서 君命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士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감히 그 다음에 대해 묻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친척들이 효성스럽다고 칭찬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감히 그 다음에 대해 묻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하면 반드시 미덥게 하고 일을 하면 과단성 있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좀 경직된(융통성 없는) 小人이긴 해도 역시 그 다음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요즘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그 속이 좁고 자잘한 사람들을 따질 게 뭐 있는가.”</p>	斗筭之人
	23	<p>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p> <p>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잘 화합하고 부화뇌동 하지 않는 데 반해, 소인은 부화뇌동 하고 잘 화합하지 못한다.”</p>	和而不同
	23	<p>上同</p> <p>上同</p>	同而不和
	26	<p>子曰 君子泰而不驕 小人驕而不泰</p> <p>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태연하고 교만하지 않는데 반해, 소인은 교만하고 태연하지 못하다.”</p>	泰而不驕
	27	<p>子曰 剛毅木訥 近仁</p> <p>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한 것이 仁에 가깝다.”</p>	剛毅木訥

13. 「憲問」 제14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憲問	2	克伐怨慾 不行焉 可以爲仁矣 子曰 可以爲難矣 仁則吾不知也 原憲이 물었다. “남을 이기려고 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남을 원망하고, 욕심을 부리는 일,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려운 일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仁인지 나는 모르겠다.”	克伐怨慾
	4	子曰 邦有道 危言危行 邦無道 危行言孫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에 道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당당하게 행동하되, 말은 겸손해야 한다.”	危言危行
	13	子路問成人 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曰 今之成人者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子路가 완성된 사람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臧武仲의 지혜와 孟公綽의 무욕과 卞莊子의 용맹과 冉求의 재능에다 외적으로 예악을 갖춘다면 완성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하셨다. “오늘날의 완성된 사람이야 어찌 굳이 그럴 것이 있겠느냐. 이익 앞에서 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며, 오래된 약속일지라도 평소 그 말을 잊지 않으면 역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見利思義
	13	上同 上同	見危授命
	14	子問公叔文子於公明賈曰 信乎夫子不言不笑不取乎 公明賈對曰 以告者過也 夫子時然後言 人不厭其言 樂然後笑 人不厭其笑 義然後取 人不厭其取 子曰 其然 豈其然乎 공자께서 公叔文子(公孫枝)의 인품을 公明賈에게 물으셨다. “정말로 선생은 말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가?” 공명가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아뢰어 사람이 지나쳤습니다. 선생님은 말할 때가 되어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고, 즐거워야 웃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고, 의에 맞아야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까.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時然後言
	16	子曰 晉文公譎而不正 齊桓公正而不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晉 文公은 속임수를 쓰고 정당한 수단을 쓰지 않았으며, 齊 桓公은 정당한 수단을 쓰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譎而不正
	17, 18	(17)子路曰 桓公殺公子糾 召忽死之 管仲不死 曰 未仁乎 子曰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18)子貢曰 管仲非仁者與 桓公殺公子糾 不能死 又相之 子曰 管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於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一匡天下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p>豈若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p> <p>(17)子路가 말하였다. “제 환공이 公子 糾를 죽이자, 그를 돕던 召忽은 죽었는데 管仲은 죽지 않았으니, 관중은 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면서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으니, 누가 그의 仁만 하겠는가, 누가 그만큼 仁하겠는가.”</p> <p>(18)子貢이 말하였다. “관중은 仁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는데, 따라죽지도 못하고 도리어 환공을 돕기까지 하였으니 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의 覇者가 되게 하여 한번 천하를 바로잡았는데, 백성들이 지금껏 그 혜택을 받고 있다. 관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야만인이 되었을 것이다. 무지한 남녀가 하찮은 신의를 지킨다고 아무도 모르게 구렁에서 목을 매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관중이 어찌 하겠느냐.”</p>	
	17,	上同	被髮左衽
	18	上同	
	25	<p>子曰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p> <p>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인격 수양을 위하여 공부를 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남에게 알려지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p>	爲己之學
	36	<p>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p> <p>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恩德으로 원한을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은덕은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나. 공정한 방도로 원한을 갚고 은덕으로 은덕을 갚는 것이다.”</p>	以德報怨
	36	上同	以直報怨
		上同	
	37	<p>子曰 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p> <p>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子貢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면서, 아래로 사람이 할 일을 배워 위로 天理에 통하니, 나를 알아주는 이는 하늘일 것이다.”</p>	下學上達
	46	<p>原壤夷俟 子曰 幼而不孫弟 長而無述焉 老而不死 是爲賊 以杖叩其脛</p> <p>原壤이 걸터 앉아서 공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와서 보시고 “어려서는 공손하지도 못하고, 커서는 칭찬 받을 만한 일 하나 없고, 늙어서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도적이다.”라고 하시며, 지팡이로 그의 정강이를 두드리셨다.</p>	老而不死

14. 「衛靈公」 제15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衛靈公	4	子曰 無爲而治者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無爲而治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일 없이 잘 다스린 분은 아마舜 임금일 것이다. 무엇을 하셨는가?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南面을 하였을 뿐이다.”	
	5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裏 行乎哉 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 子張書諸紳	參前倚衡
		子張이 뜻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진실되고 미덥게 하며 행동을 독실하고 신중히 하면 비록 오랑캐 나라라 하더라도 뜻이 행해질 수 있겠지만, 말이 진실되거나 미덥지 못하고 행동이 독실하거나 신중하지 못하면 비록 내가 사는 고을에선들 뜻이 행해질 수 있겠는가. 서 있을 때는 그것이 눈앞에 나란히 있는 것을 보고, 수레에 탔을 때는 그것이 멩에에 기대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뜻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장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자 허리띠에 써넣었다.	
	8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志士仁人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선비와 덕을 갖춘 仁者는 살기 위하여 仁을 해치는 일은 없고, 자신을 희생하여 仁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8	上同	殺身成仁
		上同	
	16	子曰 群居終日 言不及義 好行小慧 難矣哉	好行小慧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럿이 종일 모여 義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않고 잔피나 부리기를 좋아한다면 곤란하다.”	
20	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反求諸己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22	子曰 君子不以言舉人 不以人廢言	以言取人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등용하지 않으며, 사람이 나쁘다고 그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22	上同	不以人廢言	
	上同		
38	子曰 有教無類	有教無類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가 교화를 퍼면 모두 善해지니, 선한 부류, 악한 부류의 구분이 없어진다.”		

15. 「季氏」 제16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季氏	1	季氏將伐顓臾 冉有季路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於顓臾 孔子曰 求 無乃爾是過與 夫顓臾 昔者 先王 以爲東蒙主 且在邦域之中矣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社稷之臣
		季氏が 전유국을 정벌하려 하였는데, 염유와 季路가 공자를 뵈고 말하였다. “계씨가 전유국을 치려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求야,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냐. 저 전유국은 옛날 선왕께서 東蒙山의 祭主로 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영역 안에 있으니, 이는 社稷을 지켜주는 신하이다. 어떻게 정벌할 수 있겠는가.”	
	1	冉有曰 夫子欲之 吾二臣者 皆不欲也 孔子曰 求 周任 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危而不持 顓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且爾言 過矣 虎兕出於柙 龜玉毀於櫝中 是誰之過與 冉有曰 今夫顓臾固而近於費 今不取 後世 必爲子孫憂	危而不持
		염유가 말하였다. “계손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다 원치 않는 일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求야, 옛날 史官이었던 周任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힘을 기울여 직무를 행하다가 능력이 안 될 때는 그만두라.’고 말이다. 소경이 위험한데도 잡아주지 못하고 넘어져도 부축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디에다 그런 안내자를 쓰겠느냐. 그리고 네 말이 잘못되었다. 호랑이나 들소가 우리에서 뛰쳐 나오고, 짐치는 거북이나 구슬이 상자 속에서 망가졌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염유가 말하였다. “지금 저 전유국은 성곽이 견고하고 費邑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자손의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1	孔子曰 求 君子 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 丘也 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 無貧 和 無寡 安 無傾 夫如是故 遠人 不服則修文德以來之 既來之則安之 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 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不在顓臾而在蕭牆之內也	分崩離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求야, 군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굳이 그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듣기로는, 나라를 소유하고 집안을 소유한 자는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빈부가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고 한다. 대체로 균등하면 백성이 가난할 리 없고, 화목하면 백성이 적을 리 없으며, 편안하면 나라가 기울 리가 없다. 이와 같기 때문에 먼 데 사는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文德을 닦아서 귀의해 오게 하고, 오게 했으면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由와 求是 계씨를 도우면서, 먼 데 사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데도 귀의해 오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분리되어 무너지고 쪼개지는데도 지키지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못한 채,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나는 季孫의 우환이 전유국에 있지 않고 그 내부에서 생길까 걱정스럽다.”	
	1	上同 上同	禍起蕭牆
	4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有益한 세 부류의 벗이 있고, 해가 되는 세 부류의 벗이 있다. 벗이 정직하고, 벗이 信實하고, 벗이 건문이 넓으면 나에게 유익하고, 벗이 걸치레만 잘하고, 벗이 아침을 잘 하고, 벗이 말만 잘하면 나에게 해가 된다.”	益者三友
	4	上同 上同	損者三友
	7	孔子曰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에게는 경계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라 경계해야 할 것이 女色에 있고, 장성해서는 혈기가 한창 강한 때라 경계해야 할 것이 싸움에 있고,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한 때라 경계해야 할 것이 욕심에 있다.”	君子三戒
	8	孔子曰 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小人 不知天命而不畏也 狎大人 侮聖人之言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天命을 두려워하고, 大人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대인에게 함부로 하고 성인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君子三畏
	9	孔子曰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 道를 안 사람이 上等이고, 배워서 안 사람이 그 다음이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사람이 또 그 다음이니, 힘들다고 배우지 않으면 바로 최하등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學而知之
	13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 陳亢이 伯魚에게 물었다. “자네는 선생님께 남다른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는가?” 백어가 대답하였다. “없었네. 언젠가 홀로 서 계실 때 내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는데, ‘시를 배웠느냐?’ 하시기에 ‘아직 못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	過庭之訓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네. 그래서 나는 물러나와 그때부터 시를 배웠다네. 다른 날 또 홀로 서 계실 때 내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는데, ‘예를 배웠느냐?’ 하시기에 ‘아직 못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네 그래서 나는 물러나와 그때부터 예를 배웠다네. 이 두 가지를 들은 적이 있지.” 진강이 물러나와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를 몰아서 세 가지를 들었다. 詩를 듣고 禮를 듣고 또 軍자가 아들을 남달리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16. 「陽貨」 제17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陽貨	1	陽貨欲見孔子 孔子不見 歸孔子豚 孔子時其亡也而往拜之 遇諸塗 謂孔子曰 來 予與爾言 曰 懷其寶而迷其邦 可謂仁乎 曰 不可 好從事而亟失時 可謂知乎 曰 不可 日月逝矣 歲不我與 孔子曰諾 吾將仕矣 陽貨가 공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공자께서 만나주지 않자, 공자에게 삶은 돼지를 선물로 보내어 인사차 찾아오게 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도 그가 없는 틈을 타 사례하러 가셨다가 그를 길에서 만났다. 양화가 공자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 보시오. 내 그대와 말 좀 해야겠소. 값진 보화를 품고 있으면서 나라의 혼란을 방치하는 것을 仁이라고 할 수 있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 종사하기 좋아하면서 자주 때를 놓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양화가 말하였다. “해와 달이 가고 있소. 세월은 나를 위하여 멈추어 주지 않는 법이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알겠습니다. 나는 장차 벼슬할 것입니다.”	歲不我與
	3	子曰 唯上知與下愚不移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상등의 智者와 하등의 愚人은 달라지지 않는다.”	下愚不移
	4	子之武城 聞弦歌之聲 夫子莞爾而笑 曰 割雞焉用牛刀 子游對曰昔者偃也聞諸夫子 曰君子學道則愛人 小人 學道則易使也 子曰 二三子偃之言 是也 前言 戲之耳 공자께서 武城에 가서 고을 사람들이 거문고를 타고 노래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 夫子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닭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子游가 대답하였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들으니 ‘군자가 道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偃(子游의 이름)의 말이 옳다. 조금 전에 한 말은 농담이었다.”	牛刀割雞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6	<p>子張 問仁於孔子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 爲仁矣 請問之 曰恭寬信敏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p> <p>子張이 공자에게 仁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으면 仁이라 할 것이다.” 자장이 그 내용을 물었는데, 말씀하셨다. “공손함과 너그러움과 믿음과 민첩함과 은혜로움이다. 공손하면 남이 업신여기지 않고, 너그러우면 민심을 얻게 되고, 미더우면 남들이 의지하게 되고, 민첩하면 功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남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p>	寬則得衆
	7	<p>佛肸 召 子欲往 子路曰 昔者 由也聞諸夫子 曰親於其身 爲不善者 君子不入也 佛肸 以中牟畔 子之往也 如之何 子曰 然 有是言也 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 白乎 涅而不緇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p> <p>필힐이 공자를 부르니, 공자께서 가시려 하였다. 子路가 말하였다. “옛날에 제가 선생님께 들었는데, ‘직접 몸으로 좋지 못한 짓을 하는 자의 黨에는 군자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필힐이 中牟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선생님께서 가시려는 것은 어찌서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견고하다고 말하지 않더냐? 견고하면 갈아도 닳아지지 않는 법이다. 희다고 말하지 않더냐? 희면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 법이다. 내 어찌 조롱박과 같겠는가. 어찌 것처럼 한 곳에 매달린 채 먹지도 못하고 지낼 수 있단 말인가.”</p>	涅而不緇
	12	<p>子曰 色厲而內荏 譬諸小人 其猶穿窬之盜也與</p> <p>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은 위엄이 있으나 마음이 유약한 것을 소인에게 비유하면 아마도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같다 할 것이다.”</p>	色厲內荏
	12	<p>上同</p> <p>上同</p>	穿窬之盜
	14	<p>子曰 道聽而塗說 德之棄也</p> <p>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해 버리면 德을 버리는 것이다.”</p>	道聽塗說
	15	<p>子曰 鄙夫可與事君也與哉 其未得之也 患得之 既得之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p> <p>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열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부귀를 얻지 못했을 때는 얻으려고 걱정하고, 얻고나서는 잃을까봐 걱정하니, 진실로 잃을까봐 걱정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p>	患得患失
	15	<p>上同</p> <p>上同</p>	無所不至
	18	<p>子曰 惡紫之奪朱也 惡鄭聲之亂雅樂也 惡利口之覆邦家者</p> <p>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間色인 자주색이 正色인 빨강색의 빛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며, 鄭 나라의 음란한 음악이 雅樂을 어지</p>	惡紫奪朱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말재주로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을 미워한다.”	
	18	上同 上同	禮壞樂崩

17. 「微子」 제18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微子	2	柳下惠爲士師 三黜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柳下惠가 獄事를 처결하는 士師가 되었다가 세 번 쫓겨나자, 어떤 이가 말하였다. “그대는 이 나라를 떠날 만하지 않은가?” 유하혜가 말하였다. “道を 바로 세워 사람을 섬기게 되면 어디로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겠으며, 도를 굽혀 사람을 섬기기로 하면 어찌 굳이 故國을 떠날 필요가 있겠는가?”	父母之邦
	3	齊景公待孔子曰 若季氏則吾不能 以季孟之間 待之 曰 吾老矣 不能用也 孔子行 齊 나라 景公이 공자를 대우함에 있어 “季氏처럼 내가 대우할 수는 없지만 계씨와 孟氏의 중간 정도로는 대우하겠다.”고 하더니, “내 늙어서 그를 쓸 수가 없다.” 하자, 공자께서 떠나셨다.	季孟之間
	5	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 已而 今之從政者殆而 孔子下 欲與之言 趨而辟之 不得與之言 楚 나라의 狂人인 接輿가 공자의 수레 앞을 지나면서 노래하였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그리 德이 쇠했는가. 지난 일은 탓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고칠 수 있으니,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지금 정치하는 자들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공자께서 수레에서 내려 그와 말하고자 하셨으나, 그가 빨리 걸어 피하는 바람에 함께 말씀하시지 못하였다.	來者可追
	7	子路拱而立 止子路宿 殺雞爲黍而食之 見其二子焉 자로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으니, 노인은 자로를 자기 집에 하룻밤 묵게 하고는,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먹이며, 그의 두 아들까지 인사를 시켰다.	殺鷄爲黍
	8	逸民 伯夷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少連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謂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謂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清 廢中權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초야에 은둔한 사람은 伯夷,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少連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이는 백이와 숙제이다.” 유하혜와 소련에 대해 평가하셨다. “그들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말이 의	放言高論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리에 맞았고 행실이 생각과 맞았다. 그들에게 취할 점은 이뿐이다.” 우중과 이일에 대해 평가하셨다. “숨어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하였으나 몸가짐은 淸高에 맞았고, 스스로를 폐한 것은 權道에 맞았다. 나는 이들과 달라서 可한 것도 없고 不可한 것도 없다.”	
	8	上同 上同	無可無不可

18. 「子張」 제19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子張	1	子張曰 士見危致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 子張이 말하였다. “선비가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이득을 보게 되었을 때 의에 맞는가를 생각하며, 제사에 공경을 생각하고 喪事에 슬픔을 생각한다면 괜찮다.”	見危致命
	4	子夏曰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不爲也 자하가 말하였다. “비록 작은 기예라도 반드시 볼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원대한 뜻을 이루는 데에 장애가 될까 두렵기 때문에 군자가 하지 않는 것이다.”	致遠恐泥
	6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자하가 말하였다. “배우기를 넓게 하고 뜻을 독실히 가지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仁은 그 안에 있다.”	博學篤志
	6	上同 上同	切問近思
	8	子夏曰 小人之過也必文 자하가 말하였다.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며댄다.”	文過飾非
	12	子遊曰 子夏之門人小子 當灑掃應對進退 則可矣 抑末也 本之則無如之何 子夏聞之 曰 噫 言遊過矣 君子之道 孰先傳焉 孰後倦焉 譬諸草木 區以別矣 君子之道 焉可誣也 有始有卒者 其惟聖人乎 子游가 말하였다. “자하의 제자들은 물뿌리고 쓸고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일일 뿐 근본적인 것은 없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자하가 듣고 말하였다. “아, 言游의 말이 지나치다. 군자의 道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라 하여 우선 전수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할 것이라 하여 게을리 가르치겠는가. 草木에 비유하자면 크고 작은 나무로 구별되는 것과 같으니,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에도 어찌 배우는 자의 수준 차이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처음과 끝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이는 오직 聖人뿐이시다.”	灑掃應對
	12	上同	有頭有尾, 有始有終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上同	
	13	子夏曰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 자하가 말하였다. 벼슬을하면서 여가가 있으면 배우고, 배우고서 여가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	學優登仕
	22	衛公孫朝問於子貢曰 仲尼焉學 子貢曰 文武之道 未墜於地 在人 賢者識其大者 不賢者識其小者 莫不有文武之道焉 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 衛나라 대부 公孫朝가 자공에게 물었다. “仲尼는 어디에서 배웠는가?” 자공이 말하였다. “文王과 武王의 道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 어진 자는 그 큰 것을 기억하고 어질지 못한 자들은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 문왕과 무왕의 도가 없는 곳이 없으니, 선생님께서 어디선들 배우지 않으셨겠으며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으시겠는가.”	文武之道
	22	上同 上同	學無常師
	25	陳子禽 謂子貢曰 子爲恭也 仲尼豈賢於子乎 子貢曰 君子一言 以爲知 一言 以爲不知 言不可不慎也 夫子之不可及也 猶天之不可階而升也 夫子之得邦家者 所謂立之斯立 道之斯行 綏之斯來 動之斯和 其生也榮 其死也哀 如之何其可及也 陳子禽이 자공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공손해서 그렇지 중니가 어찌 그대보다 낫겠는가.” 자공이 말하였다. “군자는 한 마디 말로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한 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게도 되는 것이니, 말을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마치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오를 수 없는 것과 같다. 선생님께서 나라를 얻으시게 되면, 이른바 ‘백성을 세워주니 이에 서고, 인도하니 이에 따르고, 편안하게 해주니 이에 모여들고, 고무시키니 이에 和順하여, 그가 살아 있을 때에는 영광으로 여기고, 돌아가시면 모두 슬퍼한다.’는 말처럼 될 것인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生榮死哀

19. 「堯曰」 제20에서 성어 추출

篇名	순	경문	성어
		번역	
堯曰	2	子張 問於孔子曰 何如 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屏四惡 斯可以從政矣 子張曰 何謂五美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子張曰 何謂惠而不費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擇可勞而勞之 又誰怨 欲仁而得仁 又焉貪 君子無衆寡 無小大 無敢慢 斯不亦泰而不驕乎 君子 正其衣冠 尊其瞻視 儼然人望而畏之 斯不亦威而不猛乎	惠而不費

	<p>子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정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美德을 존중하고 네 가지 惡德을 물리친다면 정사에 종사할 수 있다.” 자장이 물었다. “무엇을 일러 다섯 가지 미덕이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되 허비하지 않으며, 백성에게 일을 시키되 원망을 사지 않으며, 仁한 일에 의욕을 가지되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은 것이다.” 자장이 물었다. “무엇을 일러 혜택을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인하여 이롭게 해 주니, 이것이 혜택을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킬 만한 일을 가려 일을 시키니, 또 누가 원망하겠는가. 仁을 하고자 하다가 仁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탐하겠는가. 군자는 많거나 적거나 작거나 크거나에 관계없이 감히 교만을 부리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군자는 衣冠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기를 점잖게 함으로써 그 위엄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두려워 하니, 이것이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p>	
2	<p>子張曰 何謂四惡 子曰 不教而殺 謂之虐 不戒視成 謂之暴 慢令致期 謂之賊 猶之與人也 出納之吝 謂之有司</p> <p>자장이 물었다. “무엇을 일러 네 가지 악덕이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미리 가르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죽이는 것을 잔학이라 하고, 미리 훈계하지도 않고 결과만 따지는 것을 포악이라 하고, 명령은 태만히 내리고 기한을 재촉하는 것을 殘賊이라 하고, 어차피 내주기는 마찬가지인데 내줄 때에 인색하게 구는 것을 有司의 못된 근성이라 한다.”</p>	<p>不教而殺, 不教而誅</p>